



답이 나오는 실무 (회계교육, 노무교육)

일시 | 2024. 6. 27 (목)

장소 | 충남광역자활센터 교육실

내용 | 1강: 회계교육

2강: 노무교육



충남광역자활센터
Chungnam Practice Self-sufficiency Center



충남사회적경제지원센터
CHUNGNAM SOCIAL ECONOMY CENTER



충남사회적기업협의회

협동조합공작소의 가치

“협동조합이 사업을 통해
가치와 철학을 실현할 수 있도록
교육과 컨설팅을 수행한다.”

협동조합공작소

2012. 09. 주식회사협동조합공작소설립

2013. 02. 성북구청과 협동조합컨설팅 업무협약체결

2013. 06. 협동조합공작소를 협동조합으로 신규설립

2013. 06. 영등포구청과 협동조합회계와 세무교육공동시작, 현재까지

2014. 04. 협동조합회계와 세무분야 상시상담기관운용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2014. 09. 주식회사로부터 작은영화관사회적협동조합의 분할합병컨설팅

2015. 05. 협동조합회계와 세무분야 전문상시상담기관운용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2016. 05 협동조합회계와 세무분야 전문상시상담기관운용(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2018. 05 협동조합회계와 세무분야 전문상시상담기관운용(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2019. 03 협동조합회계와 세무분야 전문상시상담기관운용 및 경영공시 검토용역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2020. 05 협동조합조직변경 및 합병 전문상시상담기관운용(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2023. 03 협동조합회계와세무분야 전문상시상담기관운용(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한국퀵서비스협동조합설립자문 등 다수의 협동조합설립컨설팅 및 교육진행

지식순환협동조합, 작은영화관사회적협동조합, 맑은손공동체협동조합,
나무와열매사회적협동조합, 숲이좋아산립치유협동조합, 민달팽이주택협동조합,
경제교육협동조합푸른살림, 힐링협동조합느티나무, 사회적협동조합노느매기,
서울디지털인쇄협동조합, 소셜다이닝협동조합,, 다사리협동조합,
두꺼비산들학교사회적협동조합 등 다수 협동조합 회계와 세무자문

강사 이중제 공인회계사, 세무사

협동조합공작소 이사
회계법인새시대 이사(전)
세아회계법인이사(현)

한국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감사

작은영화관사회적협동조합, 맑은손협동조합, 지식순환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나무와열매, 사회적협동조합 도시농담, 협동조합다사리
사회적협동조합내일로, 사회적협동조합강서나눔돌봄센터, 한국시험분석원협동조합,
노원사회적경제사회적협동조합, 목수협동조합신나는 공장, 힐링협동조합느티나무,
경기수원지역자활센터 사회적협동조합, 숲학교이야기숲사회적협동조합,
숲이든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두잉, 청년협동조합몽땅,
협동조합롤링다이스, 사회적협동조합 교육플랫폼, 동강마을교육협동조합
소셜브릿지협동조합, 셔틀버스협동조합, 논살림사회적협동조합, 노원자치협동조합,
서울시민정원사협동조합 등 다수의 (사회적)협동조합 회계와 세무자문

사회적경제조직의 창업, 그리고 회계와 세무

목차

사회적경제조직의 창업, 그리고 회계와 세무

I . 창업형태와 사업자등록

II . 회계란 무엇인가?

III . 사업자의 세무의무

IV . 원천세

V . 부가가치세

VI . 법인세

VII . 종합소득세

VIII . 기타관리업무

I . 창업형태와 사업자등록

1. 창업조직(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주식회사, 협동조합 등)

내용

등록된 자연인인 대표자가 경영의 모든 책임을 지는 사업자

법류적으로 인격인 부여된 인격체(법인)를 설립하고 해당 법인이 경영을 운영하고 책임지는 형태

선택

불특정다수의 개인을 주고객으로 하고 현금거래의 비중이 큰 자영업 (소매, 요식업, 숙박업, 소규모개인서비스업 등), 매출이 소규모일 경우

사업의 규모가 크고, 사업자간의 거래비중이 높은 업종, 대외적이고 재무적인 신뢰도를 요구하는 업종이나 사업에 적합
사업을 장기적으로 성장시킬 계획이 있을 경우

2. 창업조직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

9

장점

개인사업자

- 설립등기가 필요없고 사업자등록만으로 사업개시가 가능하므로 기업설립이 용이,
- 기업이윤 전부를 개인이 독점함
- 창업비용이 비교적 적게 소요되어 소자본을 가진 창업자도 창업가능
- 일정규모 이상으로는 성장하지 않는 소규모의 사업에 적합
- 사업활동에 있어 자유롭고, 신속한 계획수립, 계획 변경 등이 용이
- 개인기업은 인적조직체로서 제조방법, 자금운용상의 비밀유지가 가능
- 소규모 사업자의 경우 장부기장의무의 면제 또는 간편장부로 대체가능함(소득세신고의 간편성)

법인사업자

- 대표자는 회사운영에 대해 일정한 책임을지며, 주주는 주금납입을 한도로 채무자에 대해 유한책임을 짐
- 일정규모 이상으로 성장 가능한 유망사업의 경우에 적합
- 주식회사는 신주발행 및 회사채 발행 등을 통한 다수인으로부터 자본조달이 용이
- 대외공신력과 신용도가 높기 때문에 영업수행과 관공서, 금융기관등과의 거래에 있어서도 유리
- 기업이윤에 대하여 비교적 저율 (10%(9%)~ 20%(19%))의 법인세율이 적용됨 (사업 성장에 필요한 자금을 개인사업자보다 더 적립이 쉽다)
- 주주 혹은 대표자가 개인이 소득을 증가시킬 때 개인사업자 보다 절세의 방법이 크다.

3. 창업조직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

10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단점

- 대표자는 채무자에 대하여 무한책임을 짐
- 대표자가 바뀌는 경우에는 폐업을 하고, 신규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므로 기업의 계속성이 단절됨
- 사업양도시에는 양도된 영업권 또는 부동산에 대해 높은 수준의 종합소득세 또는 양도소득세가 부과됨
- 이윤이 커지면 6% ~ 45%의 소득세율이 적용되므로 세부담이 급격히 증가하고 건강보험료 등의 납부부담이 증가함

- 설립절차가 개인사업자보다 복잡하고 설립비용이 발생함
- 대표자가 기업자금을 개인용으로 사용하면 회사는 대표자로부터 이자를 받아야 하는 등 세제상의 불이익이 있음 (법인자금과 개인자금의 철저분리)
- 세무상 복식부기의무자로서 반드시 회계장부를 기장하고 재무제표를 작성하여야 함에 따라 관리비용이 증가

4. 창업조직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

11

개인사업자

개인사업자
= 개인

이익(소득)
100,000,000원 발생시

세금(세율 38.5%)
22,100,000원 세금으로 유출

활용가능자금(개인 돈)
77,890,000원

법인사업자

법인
사업자



주주
대표

이익(소득)
100,000,000원 발생시

세금(세율 11%)
11,000,000원 세금으로 유출

활용가능자금(법인 돈)
89,000,000원

사업화의 방향?

돈을 벌려고

주식회사
개인사업자

(개인의,공통의)필요를
충족하려고,

협동조합

사업자등록

사업자

영리목적 유무에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자

사업장

사업자나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또는 일부를 제공하는 장소

사업자등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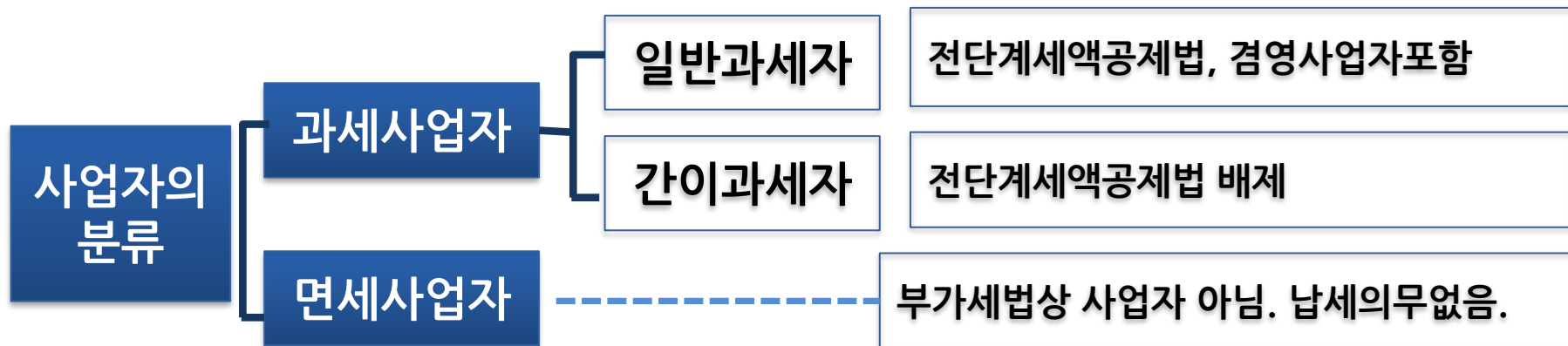
부가가치세법에서는 사업자가 아닌 사업장단위로 사업자등록을 하게 되어 있음.

사업장단위 과세

부가가치세법에서는 사업자 단위가 아닌 사업장단위별로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하여야 함

사업자총괄납부제도 : 신고는 사업장별로, 납부는 사업자단위로

사업자단위과세제도 : 신고와 납부를 사업자단위로 함.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와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로서 간이과세자가 아닌 사업자,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재화와 용역을 같이 공급하는 사업자로 여기에 포함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와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로서 연간 공급대가 (부가가치세 포함)가 4,800만원(8,000만원) 미만이거나, 간이배제업종이 아닌 사업을 개시하는 신규개인사업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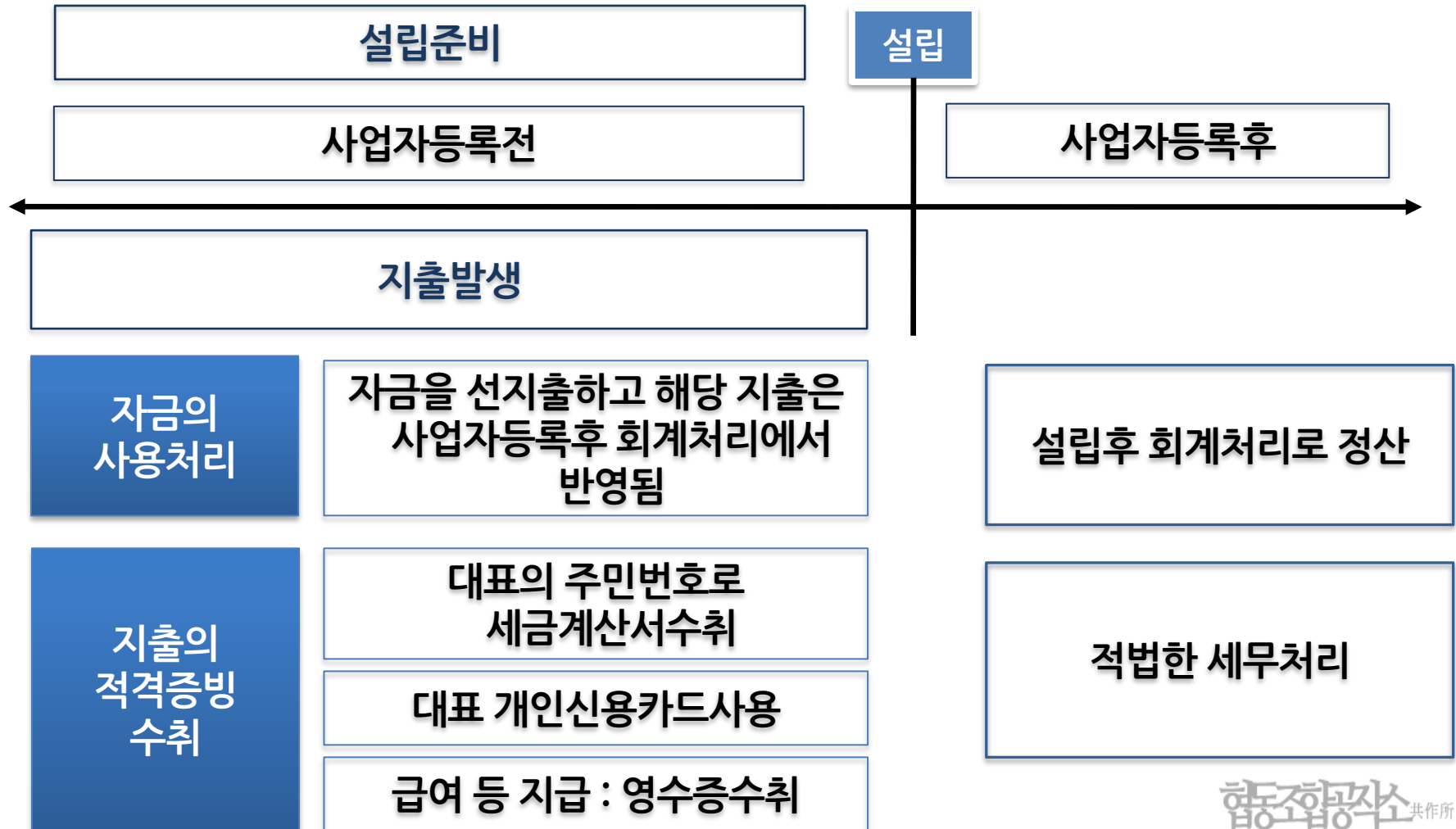
간이배제업종 : 광업, 제조업, 도매업, 부동산매매업, 시이상지역의 과세유흥장소, 전문직사업자, 등

면세사업자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재화와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로서 부가가치세법상의 사업자가 아니다.

면세업종 : 미가공 농, 축, 수, 임산물거래, 의료보건용역과 혈액, 교육용역, 도서, 신문 등 언론매체, 문화, 예술, 체육분야, 기타 다양함.

부가가치세법에선 사업자등록전 지급한 매입세액을 환급해주지 않는다.
단,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환급이 가능합니다.





II. 회계란 무엇인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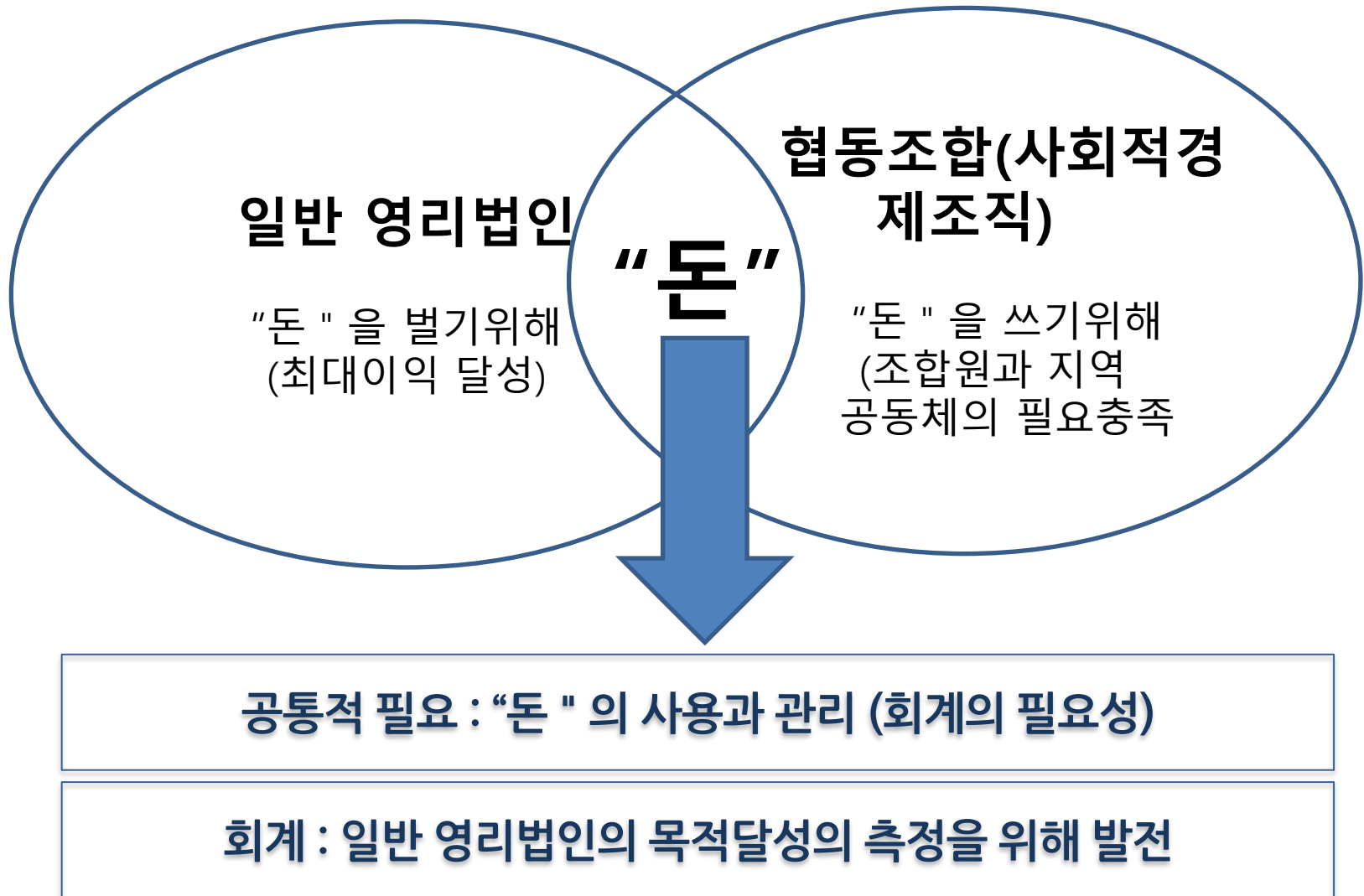
〈협동조합기본법〉 제52조(결산보고서의 승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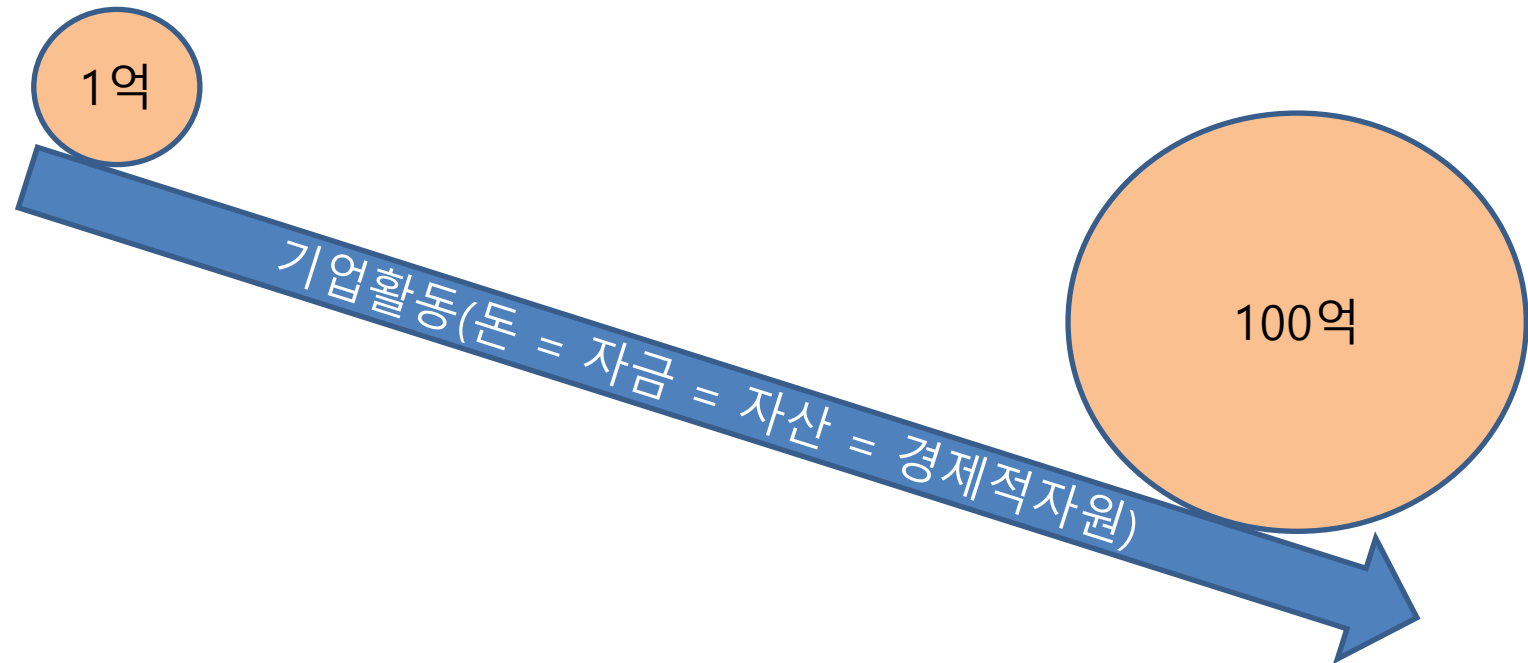
① 협동조합은 정기총회일 7일 전까지 결산보고서(사업보고서,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잉여금처분안 또는 손실금처리안 등을 말한다)를 감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협동조합은 제1항에 따른 결산보고서와 감사의 의견서를 정기총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영리법인 재무제표	협동조 합결산보고서
재무상태표	대차대조표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손익계산서 (운영성과표)
	잉여금처분안 (손실금처리안)
자본변동표	
현금흐름표	
주석	
(사업보고서)	사업보고서

회계는 주식회사 등 영리법인의 발전과 함께 변화되어 왔다





사업을 할 경우 알고 싶은 것은 무엇인가?
무엇이 궁금한가?

1-3. 영리법인의 목적달성의 측정(돈벌기)

22

알고 싶은 것

내 돈을 어떻게 얼마나 벌었을까?

손익계산서

전체 돈 중에서 내 돈은 얼마일까?

재무상태표

꼬리표 작업, 크기를 결정

돈 =

? 돈

+

? 돈

돈에 꼬리표를 붙여 각각의 몫(크기)을 정하는 것이 복식부기이다

꼬리표는 사용(use)할 수 없다

돈을 조달과 사업결과 돈의 증감과 귀속을 나타내는 것이 재무상태표

사업결과

돈을 벌었다. 누구돈인가?

이 돈을 이익금 또는 잉여금이라고 한다.

이익금 또는 잉여금을 사용(use)할 수 있는가?

1-4. 영리법인의 목적달성의 측정(복식부기)

23

재무상태표(시점기준)

돈 자 산	남의돈 부채 꼬리표(뭉)	
	내돈 자본 꼬리표 (뭉)	자본금 출자금
		이익금 잉여금

이익의 발생의 구체적인 내역을
표시하는 것, 손익계산서

손익계산서(기간기준)

비용 내돈을 감소시킴 (꼬리표)	수익 내돈을 증가시킴 (꼬리표)
차이 이익금(잉여금) 자본	

2-1. 회계란? (단식부기와 복식부기)

24

사업시작

통닭집(술과 통닭판매)개업

내 돈은 30백만원밖에 없음, 개업자금 1억원필요

가계부_2020년

날자	금액(천원)	내용
2020-07-02	30,000	개업자금을 통장 입금
2020-07-20	70,000	은행차입금입금
2020-07-21	△ 50,000	보증금을 지급
2020-07-22	△ 30,000	시설장치와 집기비품 구매
2020-07-23	△ 20,000	재료(술과 생닭 구매)
2020-08-24	50,000	현금판매대금
2020-08-25	△ 10,000	급여지출

사업시작

궁금한 것은 무엇인가?

가계부_2020년

날자	금액(천원)	내용
2020-07-02	30,000	개업자금을 통장 입금
2020-07-20	70,000	은행차입금입금
2020-07-21	△ 50,000	보증금을 지급
2020-07-22	△ 30,000	시설장치와 집기비품 구매
2020-07-23	△ 20,000	재료(술과 생닭 구매)
2020-08-24	50,000	현금판매대금
2020-08-25	△ 10,000	급여지출

단식부기

현금(자산)의 증감만을 기록

단식부기 한계

내 돈이 얼마 증가했는지 모른다

수익과 비용의 내용과 규모를 모른다(이익산출불가)

영업에 사용하는 자산의 내용을 모른다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를 얻지 못한다.

3-1. 복식부기(영리법인 설립목적의 달성정도의 측정)

26

설립목적과 돈(자산)	영리법인	(내)돈벌기 자체가 설립목적, 조달, 증식, 귀속	
		정확하게는 내돈벌기가 목적	
돈 =	내 돈	+	남의 돈
	회계에서는	= 자 산	= 경 제 적 자 원
	남의 돈	= 부 채	
	내 돈	= 순자산=자본	자산 - 부채

내 돈을 벌기 위해사업을 한다. 내 돈의 증감을 기록하는 것이 손익계산서

알고싶은것

내 돈을 얼마나 벌었는가? 그래서 남의 돈은 얼마이고, 내 돈은 얼마?

“재무상태표” 일정 시점의 돈의 양과 내 돈과 남의 돈의 양 표시

그래서

돈에 내 돈(자본,순자산), 남의 돈(부채)이라는 **꼬리표**를 붙여 내돈과 남의 돈의 크기를 결정하는 것 (복식부기 원리)

복식부기는 돈(자산)에 내 돈, 남의 돈이라는 **꼬리표**를 붙이는 작업
(= 크기를 결정하는 작업)

3-2. 복식부기(내 돈이 어떻게 증감했는가?)

27

알고싶은것	내 돈(자본, 잉여금)을 어떻게 벌었는가?		
그래서	내 돈의 증감은 사업의 목적이므로 좀 더 세부적으로 꼬리표를 붙임		
내 돈	= 순자산=자본	자산 - 부채	
내 돈 증가	자산이 증가	또는	부채가 감소
	이를 "수익" 이라고 꼬리표 를 붙임		
내 돈 감소	자산이 감소	또는	부채가 증가
	이를 "비용" 이라고 꼬리표 를 붙임		
수익	돈의 증가중에서 내 돈을 증가시키는 부분		
비용	돈의 감소중에서 내 돈을 감소시키는 부분		
이익(손실)	= 수익 - 비용	내 돈의 순증감액	

내 돈을 벌기 위해사업을 한다. 내 돈의 증감을 구체적으로 기록하여 내 돈의 구체적인 증감내역을 수익과 비용으로 보여주는 것이 손익계산서

3-3. 영리법인에서 회계란?

28

회계

“정보이용자가 실제상황에 정통하여 합리적 판단과 경제적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기업실체에 관한 경제적 정보를 식별, 측정, 전달하는 프로세스”

정보이용자

의사결정에 유용한 정보

투자자에게 유용한 정보는?

경영자에게 유용한 정보는?

측정도구로서
의 회계

조직의 설립목적(내돈벌기)의 측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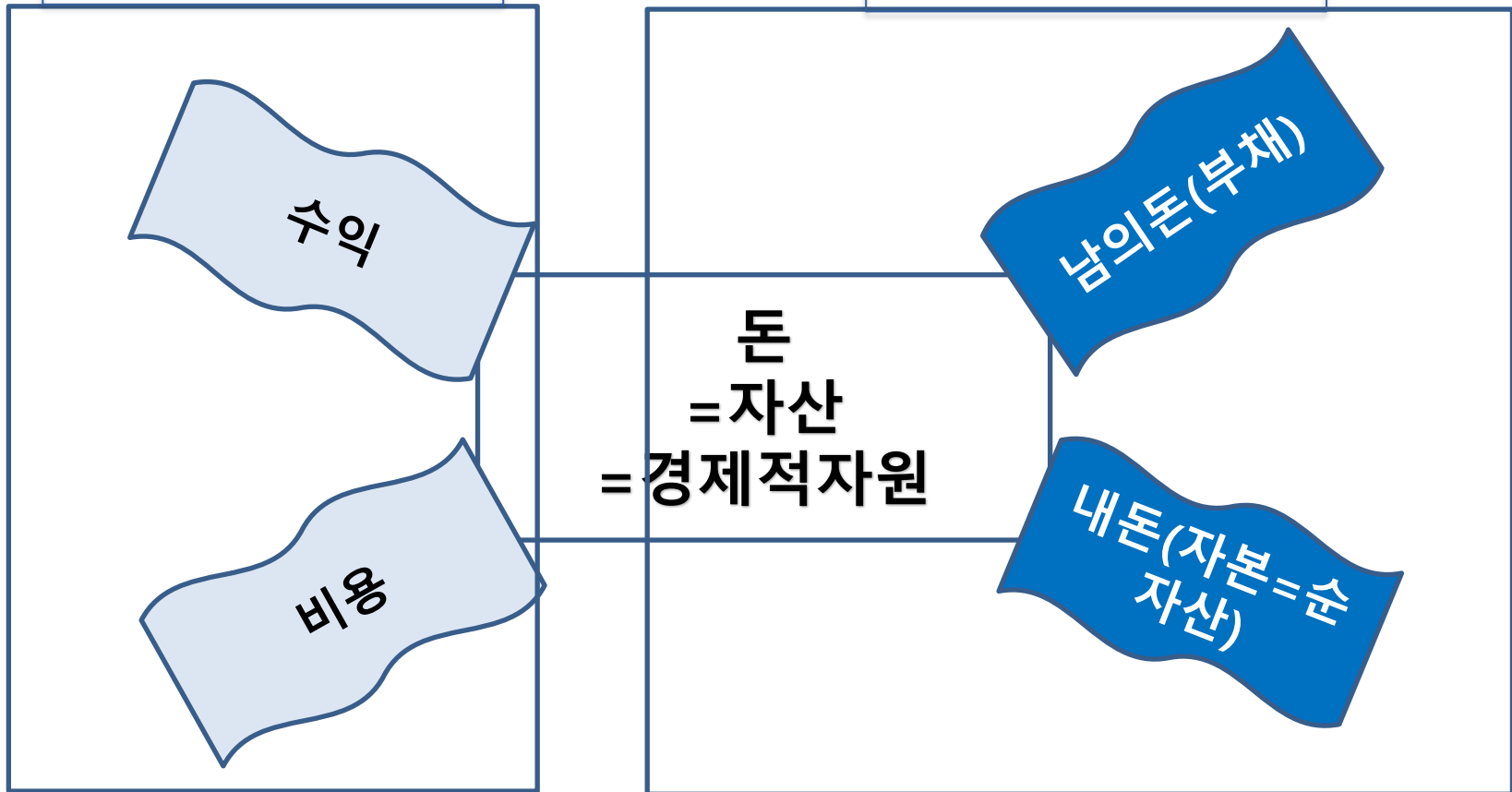
재무제표

3-4. 영리법인에서 회계란? 돈에 꼬리표를 붙이는 것

29

손익계산서=운영성과표

재무상태표=대차대조표



꼬리표는 사용(Use)할 수 없다.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오로지 돈=자산뿐이다

3-5. 영리법인에서 회계란? 돈에 꼬리표를 붙이는 것

30

재무상태표(시점기준)

자 산 3,000	부 채 2,000	
	자 본	출자금 300
		법정적립금 200
		임의적립금 300
		전기이월미 처분잉여금 100
		당기발생잉 여금 100

운영성과표(기간동안)

비 용 2,900	수 익 3,000
당기순이익 100	

재무제표5요소

자 산

자산의 증감원인
과 귀속을 밝혀
주는 꼬리표

부 채

자 본

수 익

비 용

3-6. 영리법인에서 회계란?

내 돈을 벌기위해 사업(영업)을 하고, 그것을 기록하는 것이 손익계산서

손익계산서
(운영성과표)

내 돈 버는 과정을 기록한 것

“순자산” 증가

수익 : 순자산을 증가

비용 : 순자산을 감소

당기순이익 : 순자산의 증가분 = 내 돈 증가

당기순손실 : 순자산의 감소분 = 내 돈 감소

사업 결과로

총 돈은 얼마이며, 내 돈이 얼마인지 알고 싶다.

재무상태표
(대차대조표)

모든 돈
(총자산)

남의 돈 = 부채

모든 돈에서 남의 돈을
차감한 내 돈
= 자본 = 순자산

4-1. 회계란? (단식부기와 복식부기)

32

사업시작

궁금한 것은 무엇인가?

가계부_2020년

날자	금액(천원)	내용
2020-07-02	30,000	개업자금을 통장 입금
2020-07-20	70,000	은행차입금입금
2020-07-21	△ 50,000	보증금을 지급
2020-07-22	△ 30,000	시설장치와 집기비품 구매
2020-07-23	△ 20,000	재료(술과 생닭 구매)
2020-08-24	50,000	현금판매대금
2020-08-25	△ 10,000	급여지출

단식부기

현금(자산)의 증감만을 기록

단식부기 한계

내 돈이 얼마 증가했는지 모른다

수익과 비용의 내용과 규모를
모른다(이익산출불가)

영업에 사용하는 자산의 내용을
모른다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를
얻지 못한다.

4-2. 복식부기(돈에 내 돈 남의 돈 꼬리표를 붙임)

33

단식부기_2020년

복식부기처리

날자	금액	내용	왼쪽(차변)		오른쪽(대변)	
07-02	30,000	개업자금 통장 입금	예금(자산)	30,000	자본금(내돈)	30,000
07-20	70,000	은행차입금입금	예금(자산)	70,000	차입금(남의돈)	70,000
07-21	△ 50,000	보증금을 지급	보증금(자산)	50,000	예금(자산)	50,000
07-22	△ 30,000	시설장치와 집기 비품 구매	시설장치(자산)	30,000	예금(자산)	30,000
07-23	△ 20,000	재료(술과 생닭 구매)	잉여금(자본,내돈)	20,000	예금(자산)	20,000
08-24	50,000	현금판매대금	예금(자산)	50,000	잉여금(자본,내돈)	50,000
08-25	△ 10,000	급여지출	잉여금(자본,내돈)	10,000	예금(자산)	10,000

자산의 증감에 내 돈,남의 돈의 꼬리표를 붙인다.

4-3. 복식부기(재무상태표)

왼쪽(차변)		오른쪽(대변)	
예금(자산)	30,000	자본금(내돈)	30,000
예금(자산)	70,000	차입금(남의돈)	70,000
보증금(자산)	50,000	예금(자산)	50,000
시설장치(자산)	30,000	예금(자산)	30,000
자본(내돈)	20,000	예금(자산)	20,000
예금(자산)	50,000	자본(내돈)	50,000
자본(내돈)	10,000	예금(자산)	10,000

재무상태표(8월31일 밤12시)

왼쪽(차변)자산		오른쪽(대변)	
예금	40,000	차입금	70,000
보증금	50,000		
시설장치	30,000	부채합계	70,000
		자본금	30,000
		잉여금	20,000
		자본합계	50,000
자산합계	120,000	부채와자본합계	120,000

자산의 증감에 내 돈, 남의 돈의 꼬리표를 붙인다.

그래서 내 돈(자본, 잉여금)이 20,000,000원이 증가한 것을 알았다.

여기서 더 궁금한 것은?

4-4. 복식부기(수익과 비용을 구체적으로)

35

단식부기_2020년

복식부기처리

날자	금액	내용	왼쪽(차변)		오른쪽(대변)	
07-23	△ 20,000	재료(술과 생닭 구매)	재료비(비용)	20,000	예금(자산)	20,000
		(재무상태표의 영향)	잉여금(자본)감소	20,000		
08-24	50,000	현금판매대금	예금(자산)	50,000	매출(수익)	50,000
		(재무상태표의 영향)			잉여금(자본)증가	50,000
08-25	△ 10,000	급여지출	급여(비용)	10,000	예금(자산)	10,000
		(재무상태표의 영향)	잉여금(자본)감소	10,000		

자산의 증감 중 내 돈증감(사업을 시작한 목적)을 구분하여

내 돈을 증가시키는 것을 수익, 감소시키는 것을 비용으로 꼬리표를 붙임

4-5. 복식부기(수익과 비용을 구체적으로)

36

날자	금액	내용	왼쪽(차변)		오른쪽(대변)	
07-23	△ 20,000	재료(술과 생닭 구매)	재료비(비용)	20,000	예금(자산)	20,000
		(재무상태표)	잉여금(자본)	20,000		
08-24	50,000	현금판매대금	예금(자산)	50,000	매출(수익)	50,000
		(재무상태표)			잉여금(자본)	50,000
08-25	△ 10,000	급여지출	급여(비용)	10,000	예금(자산)	10,000
		(재무상태표)	잉여금(자본)	10,000		

재무상태표(잉여금부분만)

왼쪽(차변)		오른쪽(대변)	
예금(자산)	50,000	예금(자산)	20,000
		예금(자산)	10,000
		잉여금순증	20,000
합계	50,000	합계	50,000

손익계산서

왼쪽(차변)		오른쪽(대변)	
비용(재료비)	20,000	매출	50,000
급여	10,000		
잉여금순증	20,000		
합계	50,000	합계	50,000

4-6. 복식부기(손익계산서)

왼쪽(차변)		오른쪽(대변)	
예금(자산)	30,000	자본금(내돈)	30,000
예금(자산)	70,000	차입금(남의돈)	70,000
보증금(자산)	50,000	예금(자산)	50,000
시설장치(자산)	30,000	예금(자산)	30,000
비용(재료비)	20,000	예금(자산)	20,000
예금(자산)	50,000	매출(수익)	50,000
비용(급여)	10,000	예금(자산)	10,000

손익계산서			
왼쪽(차변)		오른쪽(대변)	
비용(재료비)	20,000	매출	50,000
비용(급여)	10,000		
비용합계	30,000	수익합계	50,000
잉여금순증	20,000		

재무상태표(8월31일 밤12시)			
왼쪽(차변)자산		오른쪽(대변)	
예금	40,000	차입금	70,000
보증금	50,000		
시설장치	30,000	부채합계	70,000
		자본금	30,000
		잉여금	20,000
		자본합계	50,000
자산합계	120,000	부채와 자본합계	120,000

5. 영리법인에서 회계란?

38

내 돈을 벌기위해 사업(영업)을 하고, 그것을 기록하는 것이 손익계산서

손익계산서
(운영성과표)

내 돈 버는 과정을 기록한 것

“순자산” 증가

수익 : 순자산을 증가

비용 : 순자산을 감소

당기순이익 : 순자산의 증가분 = 내 돈 증가

당기순손실 : 순자산의 감소분 = 내 돈 감소

사업 결과로

총 돈은 얼마이며, 내 돈이 얼마인지 알고 싶다.

재무상태표
(대차대조표)

모든 돈
(총자산)

남의 돈 = 부채

모든 돈에서 남의 돈을
차감한 내 돈
= 자본 = 순자산

6-1. 기업 왜 설립하는가? “돈” 벌려고

39

내 돈이 얼마인지 알고 싶다. (30,000,000원으로 시작)

개시
재무상태표
(대차대조표)

모든 돈
(총자산)
=100,000,000원

남의 돈 =
부채

차입금 70,000,000원

내 돈 =
자본 =
순자산

자본금 30,000,000원

2개월 후
재무상태표
(대차대조표)

모든 돈
(총자산)
=125,000,000원

남의 돈 =
부채

차입금 등 75,000,000원

내 돈 =
자본 =
순자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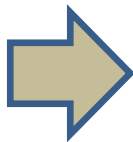
자본금 30,000,000원
잉여금 20,000,000원

더 궁금한 것은? 내돈이 20백만원이 어떻게 증가했지?

6-2. 기업 왜 설립하는가? “돈” 벌려고

40

“내 돈” 3천만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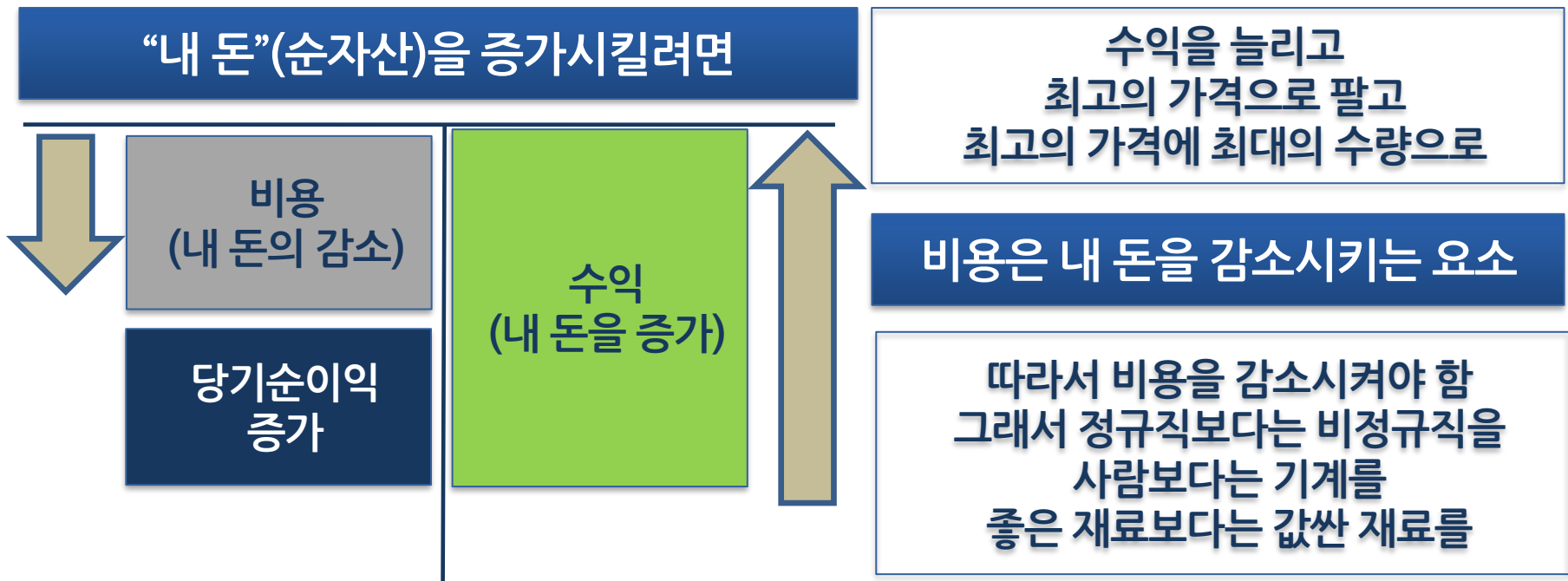
50백만원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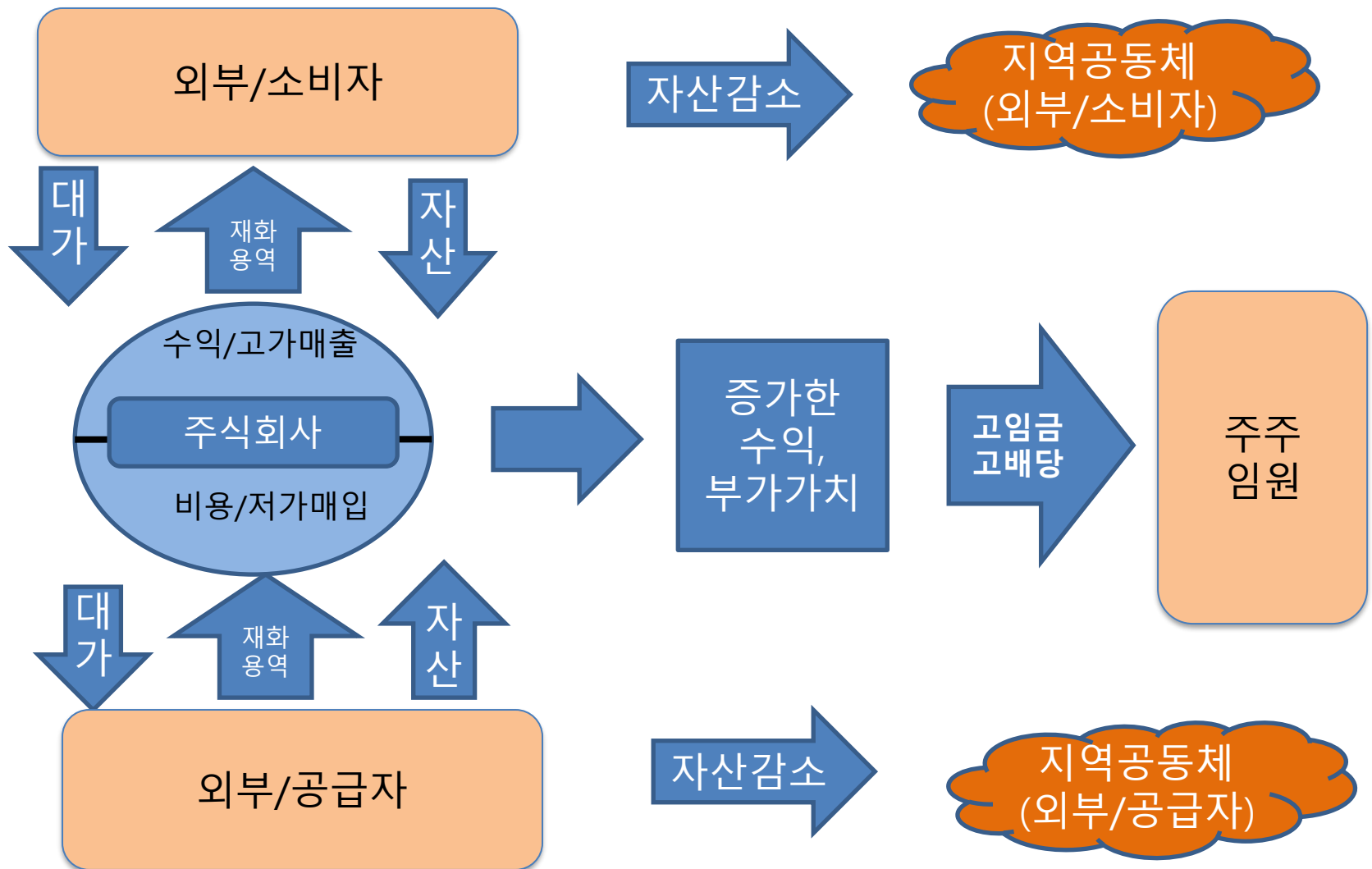
어떻게 증가?

손익계산서		(천원)	
재료비	20,000,000	매출	50,000,000
기타비용	10,000,000		
당기순이익	20,000,000		
합계	50,000,000	합계	50,000,000

7-1. 손익계산서(주식회사)

4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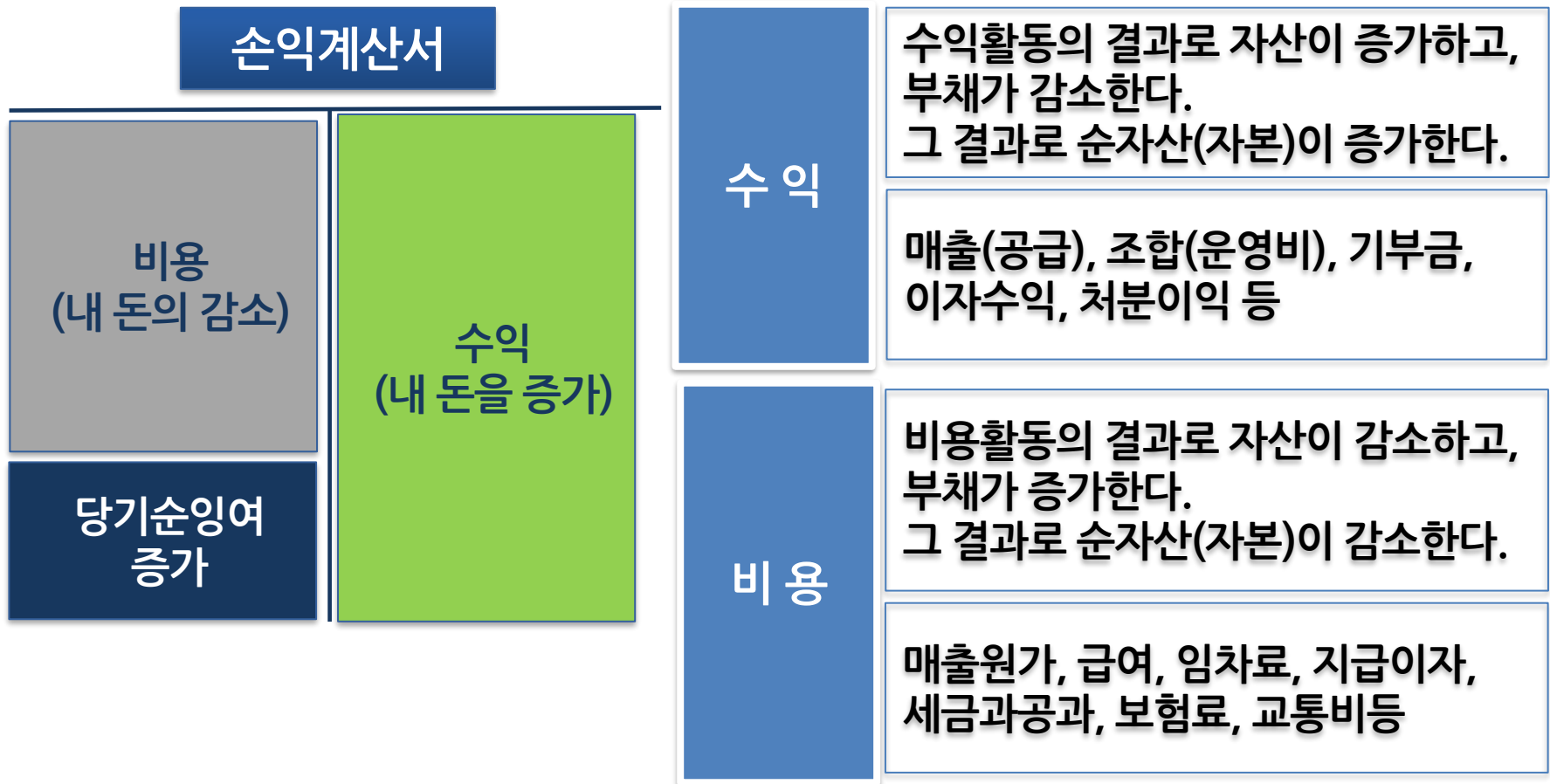


항목	투자자소유기업	사회적경제조직
설립목적	“내 돈“ 벌려고 투자자본의 보상이익극대화 (재무적성과중심)	사회적가치 실현 구성원과 공동체의 필요충족 (재무적성과와 활동중심)
돈 (자본)	목 적	수 단
운영원리	지배주주에 의한 지배와 운영	구성원 에 의한 의 민주적 운영원리
정보이용자	현재 및 잠재적투자자,대여자 기타채권자	현재 및 잠재적구성원,대여자 기타채권자
주요의사결정 의 내용	투자의 결정(보유,매수,매도 등)	구성원과 공동체의 필요충족이라는 목표달성여부

측정대상과 목적이 상이함 - 다른 측정도구와 관점

협동조합 등 사회적경제조직의 손익계산서(운영성과표)는?

7-3. 손익계산서(운영성과표)



수익의 발생으로 증감되어 지는 것은 무엇인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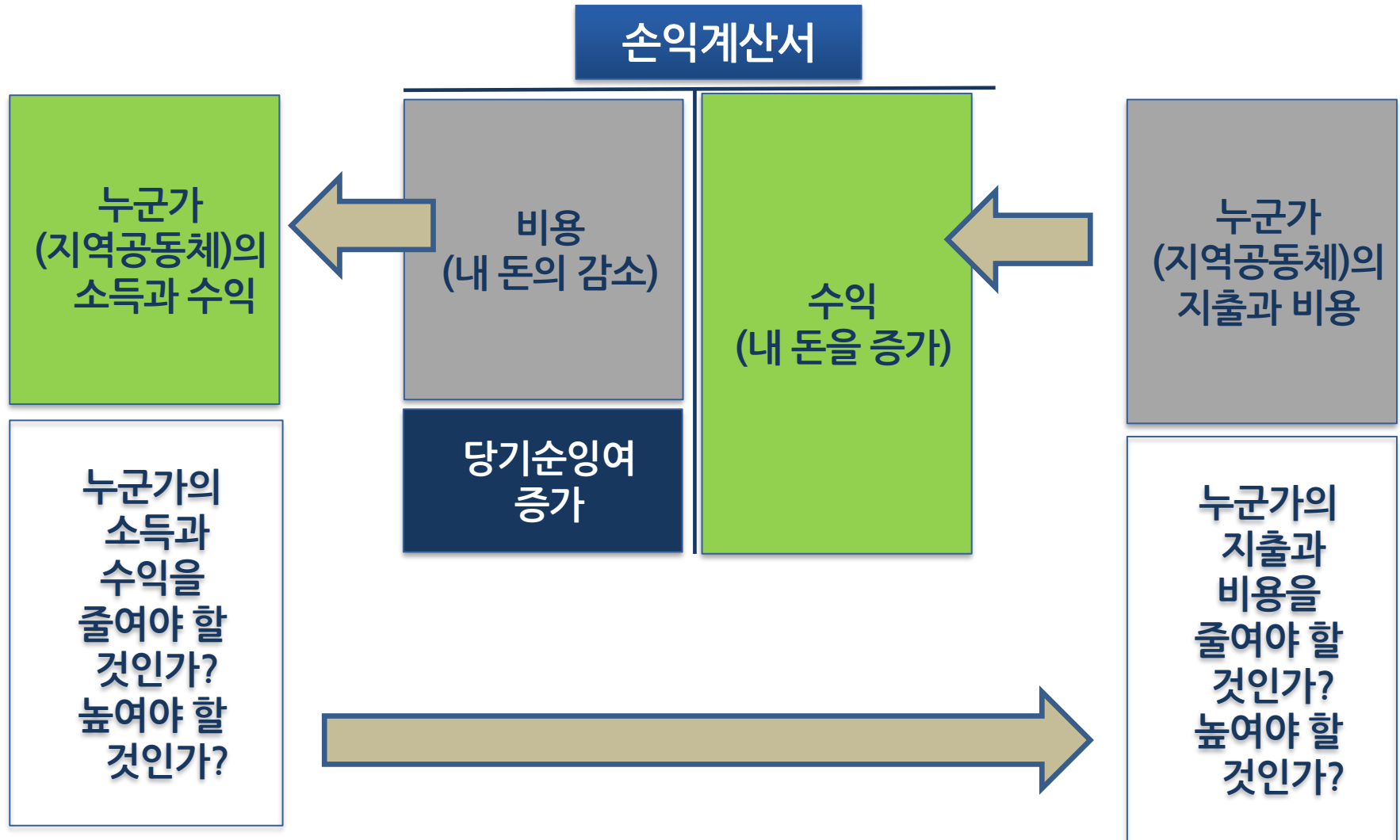
비용의 발생으로 증감되어 지는 것은 무엇인가?

7-4. 손익계산서 예시

과 목	제 4 (당)기		제 3 (전)기	
	금	액	금	액
I. 매출액		168,504,339		141,178,063
상품 매출	46,874,467		35,716,411	
서비스 수입	108,303,907		95,461,652	
국고보조금수입	0		10,000,000	
조합원회비수익	13,325,965		0	
II. 매출원가		20,828,224		29,420,778
상품매출원가		20,828,224		29,420,778
기초상품재고액	14,033,600		5,654,756	
당기상품매입액	6,794,624		37,799,622	
기말상품재고액	0		14,033,600	
III. 매출총이익		147,676,115		111,757,285
IV. 판매비와관리비		99,557,470		138,939,788
직원급여	24,224,520		36,000,000	
잡급여	0		3,680,000	
복리후생비	11,304,630		8,583,200	
여비교통비	2,264,600		2,330,910	
접대비	1,480,000		720,000	
~	~		~	
건물관리비	785,320		0	
무형고정자산상각	320,000		320,000	
조합원용역수수료	20,539,000		44,717,310	
V. 영업이익		48,118,645		-27,182,503
VI. 영업외수익		1,824,722		28,424,756
이자수익	18,304		26,500	
조합회비	638,807		20,363,370	
공모보조금	700,000		700,000	
잡이익	467,611		7,334,886	
VII. 영업외비용		6,833		332,974
기부금	0		290,000	
잡손실	6,833		42,974	
VIII. 법인세차감전이익		49,936,534		909,279
IX. 법인세등		1,130		96,280
법인세등	1,130		96,280	
X. 당기순이익		49,935,404		812,999

이
손익계산서에
서 USE할 수
있는 무엇이
있나요?

모든 것이
꼬리표



조합원과
지역공동체의
필요충족

그래서 사회적경제조직도 자본(돈)이 필요하다.

그래서 사회적경제조직에서 자본(돈)은 목적이 아니라 수단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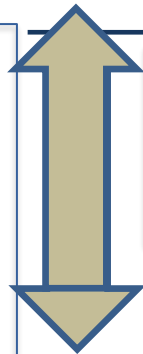
손익계산서

당기순이익을 달성정도를 측정하는 수단이 아니라,

목적달성을 위한 자원의 소비활동(비용)과 자원의 조달활동(수익)을 기록하는 것이다.

손익계산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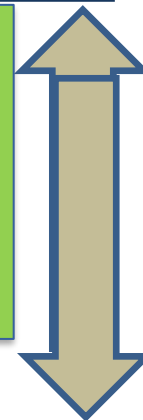
비용은 줄여야만
하는 요소가
아니다.
비용을 늘리면
조합원과
지역공동체의
경제적 자원이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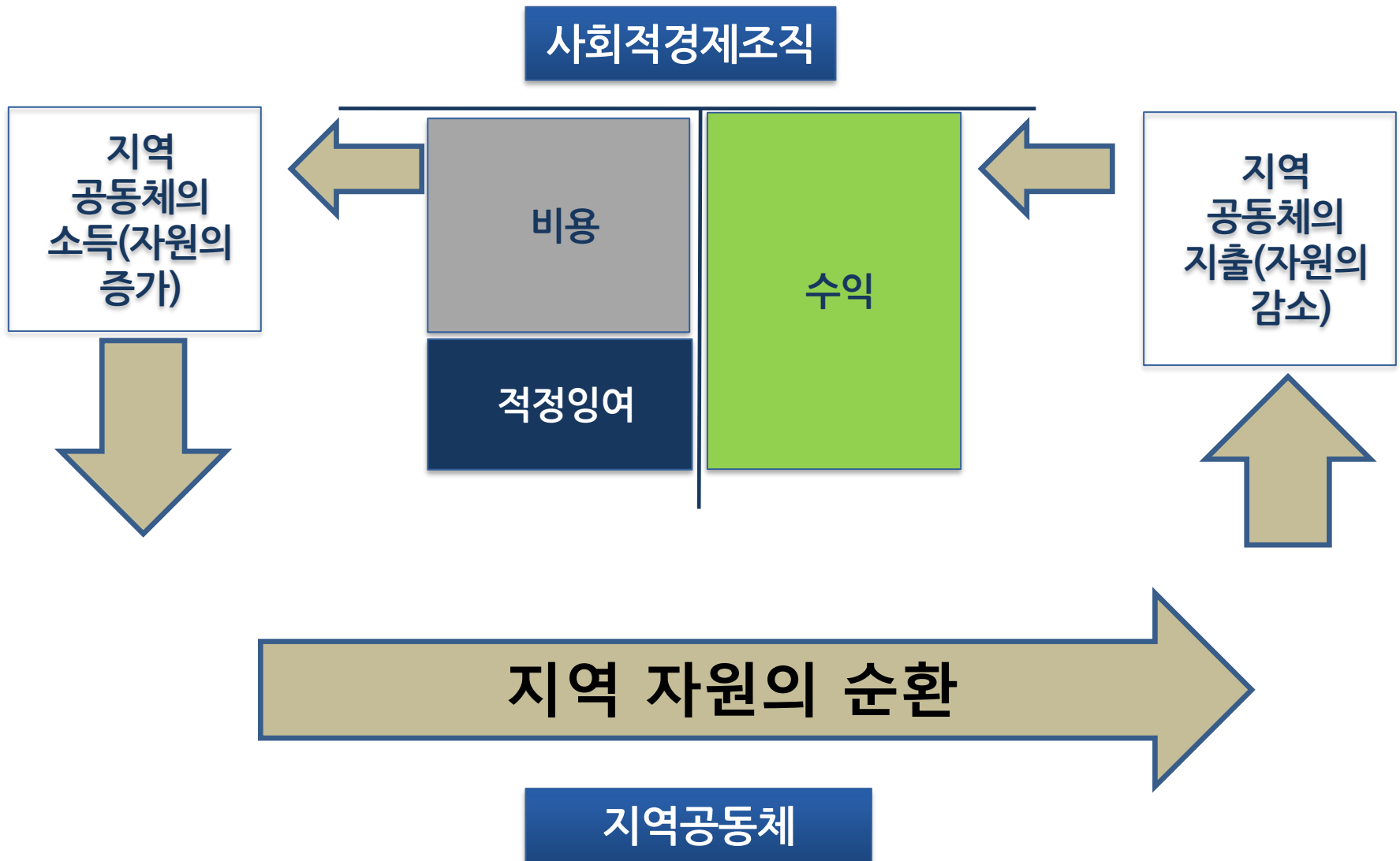
비용

적정잉여

수익



수익을 늘려야만 하는
요소가 아니고,
수익을 늘리면
조합원과
지역공동체의
경제적 자원이 감소



9-1. 조직운영에 대한 평가(A와 B 중 경영을잘한 조직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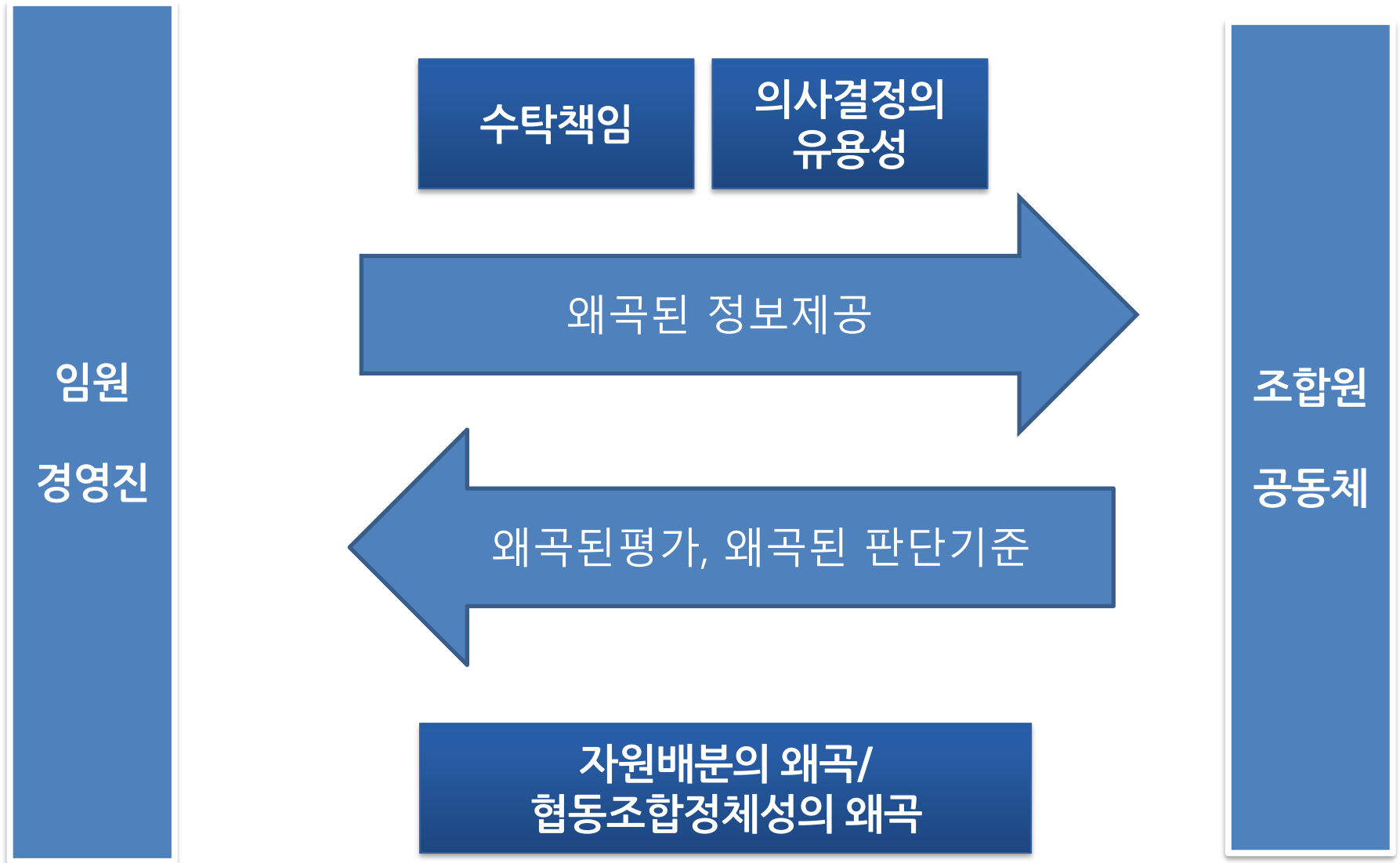
50

2017년 손익계산서(A)

계정과목	금액	금액
서비스매출		39,000,000
숲유치원교육비	25,000,000	
숲체험학습비등	14,000,000	
노무비		15,000,000
급여	15,000,000	
일반경비		
지급수수료	12,000,000	14,000,000
기타원가	2,000,000	
판관비		6,900,000
급여-임원	2,000,000	
대손상각비	500,000	
지급임차료	160,000	
회의비	1,200,000	
지급수수료	1,040,000	
감가상각비	2,000,000	
영업이익		3,100,000
영업외손익		(1,100,000)
기부금	1,100,000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		2,000,000

2017년 손익계산서(B)

계정과목	금액	금액
서비스매출		39,000,000
숲유치원교육비	25,000,000	
숲체험학습비등	14,000,000	
노무비		10,000,000
급여	10,000,000	
일반경비		
지급수수료	10,000,000	10,500,000
기타원가	500,000	
판관비		6,900,000
급여-임원	2,000,000	
대손상각비	500,000	
지급임차료	160,000	
회의비	1,200,000	
지급수수료	1,040,000	
감가상각비	2,000,000	
영업이익		11,600,000
영업외손익		(500,000)
기부금	500,000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		11,100,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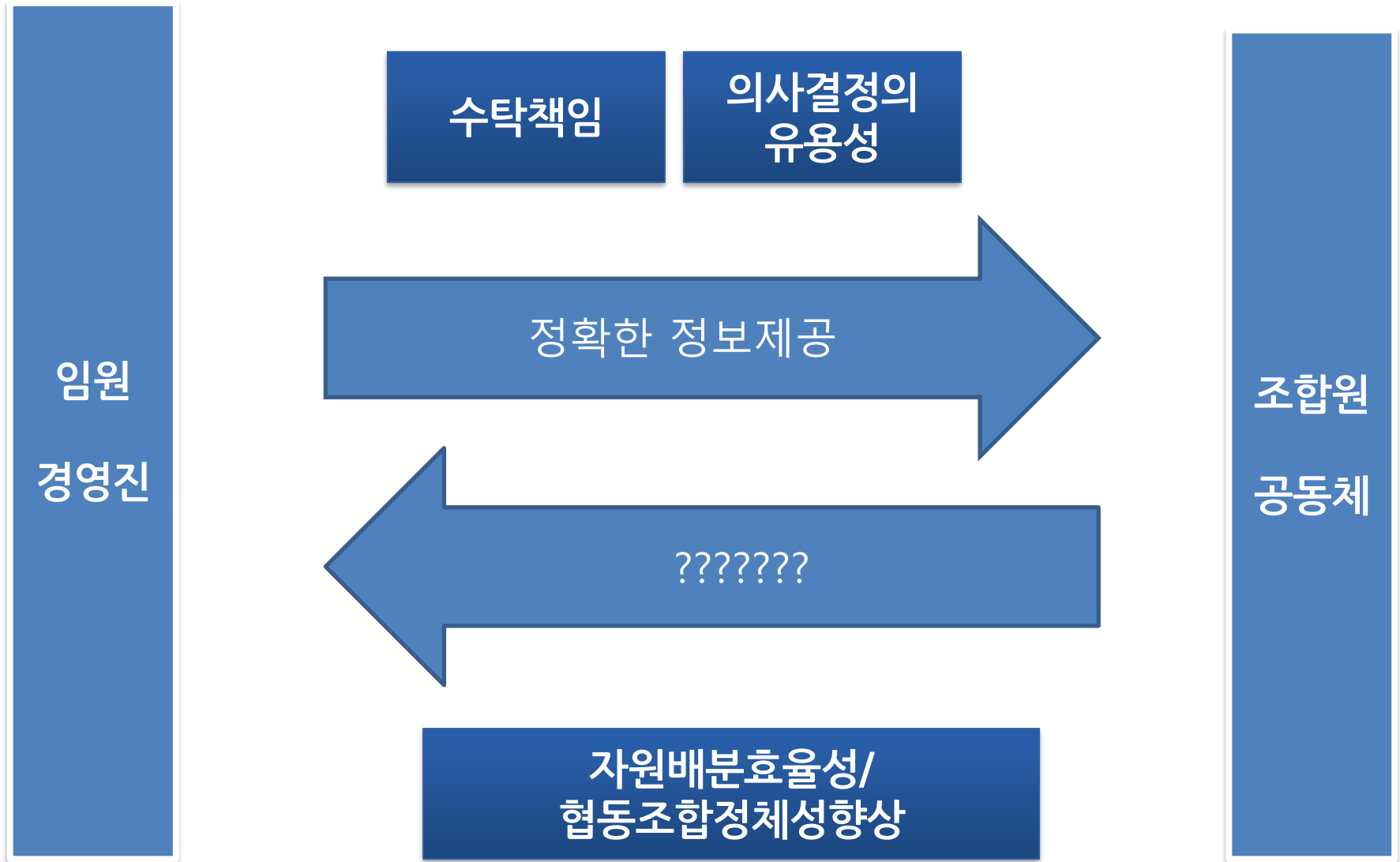


9-3. 조직운영에 대한 평가(A와 B 중 경영을잘한 조직은?)

52

2017년 운영성과표(A)		
계정과목	금액	금액
서비스매출		39,000,000
숲유치원교육비	25,000,000	
숲체험학습비등	14,000,000	
매출원가		29,000,000
조합원소득기여급여	15,000,000	
취약계층고용지원금	12,000,000	
식재료비등	2,000,000	
판관비		3,360,000
대손상각비	500,000	
지급임차료	160,000	
지급수수료	500,000	
회의비	200,000	
감가상각비	2,000,000	
고유목적사업활동전이익		6,640,000
조합활동비		3,540,000
급여-임원	2,000,000	
지급수수료	540,000	
회의비	1,000,000	
사회공헌연대활동비		1,100,000
지역취약계층기부금	1,100,000	
법인세비용차감전순잉여		2,000,000

2017년 운영성과표(B)		
계정과목	금액	금액
서비스매출		39,000,000
숲유치원교육비	25,000,000	
숲체험학습비등	14,000,000	
매출원가		20,500,000
조합원소득기여급여	10,000,000	
취약계층고용지원금	10,000,000	
식재료비등	500,000	
판관비		3,360,000
대손상각비	500,000	
지급임차료	160,000	
지급수수료	500,000	
회의비	200,000	
감가상각비	2,000,000	
고유목적사업활동전이익		15,140,000
조합활동비		3,540,000
급여-임원	2,000,000	
지급수수료	540,000	
회의비	1,000,000	
사회공헌연대활동비		500,000
지역취약계층기부금	500,000	
법인세비용차감전순잉여		11,100,000



조직과 구성원이 소통하는 언어

협동조합의 정체성을 담는 언어

경영의 방향를 설정해 주는 나침판

기본구조

정의

차 변	대 변	
자산 (총 돈)	부채 (남의 돈)	일정시점 현재 조직체가 보유하고있는 경제적 자원인 자산, 부채, 자본(순자산) 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재무보고서
	자본(순자산) (내 돈)	일정기간의 활동에 따른 운영성과에 대한 결과와 투자와 자본조달과 상환 활동의 결과가 집합된 일정시점의 상태
(자금의 운용)	(자금의 조달)	

자 산(총 돈)

- 과거 사건의 결과로 기업이 통제하고 있고
미래 경제적 효익이 기업에 유입될 것으로 기대되는 자원
- 현금과 현금을 이용하여 사업에 필요한 변화된 다른 자원
 - 사업의 결과 현금화할 수 있는 자원
 - 있으면 좋은 것들

부 채(남의 돈), 타인자본

- 과거의 거래나 사건의 결과로 현재 기업이 부담하고 있고 미래의
자원의 유출 또는 사용이 예상되는 의무
- 빚(현금등으로 상환할 의무가 있는 것)
 - 재화나 용역을 제공할 의무가 있는 것

자본(순자산)(내
돈), 자기자본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순자산

자 산 (총 돈)

- 과거 사건의 결과로 기업이 통제하고 있고
미래 경제적 효익이 기업에 유입될 것으로 기대되는 자원
- 현금과 현금을 이용하여 사업에 필요한 변화된 다른 자원
 - 사업의 결과 현금화할 수 있는 자원
 - 있으면 좋은 것들

현금, 예금(보통예금, 정기예금, 정기적금 등), 외상매출금, 대여금, 선급금, 선급비용, 상품, 제품, 보증금, 집기비품 (컴퓨터, 책상, 의자 등), 기계장치, 토지, 건물 등

조달한 경제적자원(자금)의 존재형태 또는 운용상태

유동자산

- 유동자산은 재무상태표 작성일로부터 1년 이내에 현금화되는 자산을 의미함.
- 유동자산은 당좌자산과 재고자산으로 구분됨

비유동 자산

- 비유동자산은 현금화되는 기간이 1년 이상이 되는 자산으로 영업활동에 사용할 목적으로 장기간 보유하는 자산
- 비유동자산은 투자자산, 유형자산, 무형자산, 기타비유동자산으로 구분됨

부 채 (남의 돈)

- 과거의 거래나 사건의 결과로 현재 기업이 부담하고 있고 미래의 자원의 유출 또는 사용이 예상되는 의무
- 빚(현금등으로 상환할 의무가 있는 것)
 - 재화나 용역을 제공할 의무가 있는 것

외상매입금, 미지급금, 미지급비용, 예수금, 차입금, 선수금, 퇴직급여충당부채 등

사업경영을 위해 외부(타인)로부터 조달한 경제적자원(자금)

유동부채

- 유동부채는 재무상태표 작성일로부터 1년 이내에 상환할 의무가 있는 부채
- 매입채무(외상매입금), 미지급금, 예수금, 단기차입금 등

비유동부채

- 비유동자산은 재무상태표 작성일로부터 1년 이후에 상환할 의무가 있는 부채
- 사채, 장기차입금, 장기미지급금, 퇴직급여충당부채 등

자 본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순자산(자본=자산-부채)

자본금(출자금), 자본잉여금, 이익잉여금 (적립금, 잉여금 등)

사업경영을 소유주가 스스로 조달한 경제적자원(자금)

협동조합의 자본금은 출자금총액으로 한다.

주식회사회계와 가장 큰 차이점을 보이는 재무상태표 부분

주식회사등 영리법인은 조직의 주인(주주,사원 등)이 가지고 가장 최종적인 재산적권리

협동조합은 조합원만의 권리만이 아니라 지역공동체에 대한 의무로서 보유하고 있는 자원부분

11-5. 재무상태표가 주는 정보

59

자산			부채와 자본		
자산			부채		
I. 유동자산		11,915,000,000	I. 유동부채		495,000,000
(1) 당좌자산		9,715,000,000	매입채무	350,000,000	
현금및현금성자산	3,000,000,000		예수금	90,000,000	
단기금융상품	2,500,000,000		미지급비용	55,000,000	
매출채권	5,000,000,000		II. 비유동부채		3,000,000,000
대손충당금	(800,000,000)		퇴직급여충당부채	3,000,000,000	
미수금	15,000,000		부채총계		3,495,000,000
(2) 재고자산		2,200,000,000			
상품	2,500,000,000				
평가손실충당금	(300,000,000)				
II. 비유동자산		9,130,000,000	자본		
(1) 투자자산		7,000,000,000	I. 자본금		50,000,000
장기금융상품	7,000,000,000		보통주자본금	50,000,000	
(2) 유형자산		2,130,000,000	III. 이익잉여금		17,500,000,000
건물	2,500,000,000		미처분이익잉여금	17,500,000,000	
감가상각누계액	(400,000,000)		자본총계		17,550,000,000
차량운반구	150,000,000				
감가상각누계액	(120,000,000)				
(3) 기타비유동자산		0			
자산총계		21,045,000,000	부채 및 자본총계		21,045,000,000

- 재무적건전성의 확인 : 유동비율, 부채비율
- 자산의 건전성 (실질파악이 어려울 수 있음)
- 자원의 운용상태와 자원의 조달구조
- 상환능력과 지불능력(유동성)
- 조직의 주인의 자본에 대한 정보

주식회사 재무상태표

자산	부채	
	자 본	자본금
		자본잉여금
		이익잉여금
		자본금은 자본증식(내 돈벌기)을 위한 투자한 주주의 돈
		자본잉여금은 자본조달을 위하여 투자한 돈 중에서 자본금을 제외한 주주의 돈
		영리법인의 설립목적의 달성정도로 측정된 이익잉여금 중 배당 등으로 유출되지 아니하고 자본증식을 위하여 재투자한 돈

자본은 모두 주주(주인)의 돈이다.

재무상태표

자산	부채	
	자 본	출자금
		이익잉여금 (법정적립금) (임의적립금) (미처분잉여금)

협동조합에서 잉여가 필요한 이유는?

조합원과 지역공동체를 위한 사업의 지속을 위하여

최대의 이익이 아니라 적정잉여가 필요하다.

항목	투자자소유기업	협동조합
잉여금	투자목적, 투자에 대한 보상 클수록 좋다	거래의 불완전성에 기인 적정할수록 좋다
잉여금에 대한 권한	주식좌수에 비례하여	원칙상 불인정 (출자금환급이 원칙)
잉여금 처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배당 - 사업지속을 위한 유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본형성에 대하여 보상 - 초과 잉여에 대한 조정 - 공동체귀속 - 지역과 미래세대귀속 - 사업지속을 위한 유보

12-1. 잉여금처분안(손실금처리안)

62

재무상태표(시점기준)

		부	채	2,000
자산	3,000	자 본	출자금	300
			법정적립금	200
			임의적립금	300
			전기이월미처분 잉여금	100
			당기발생잉여금	100

운영성과표(기간동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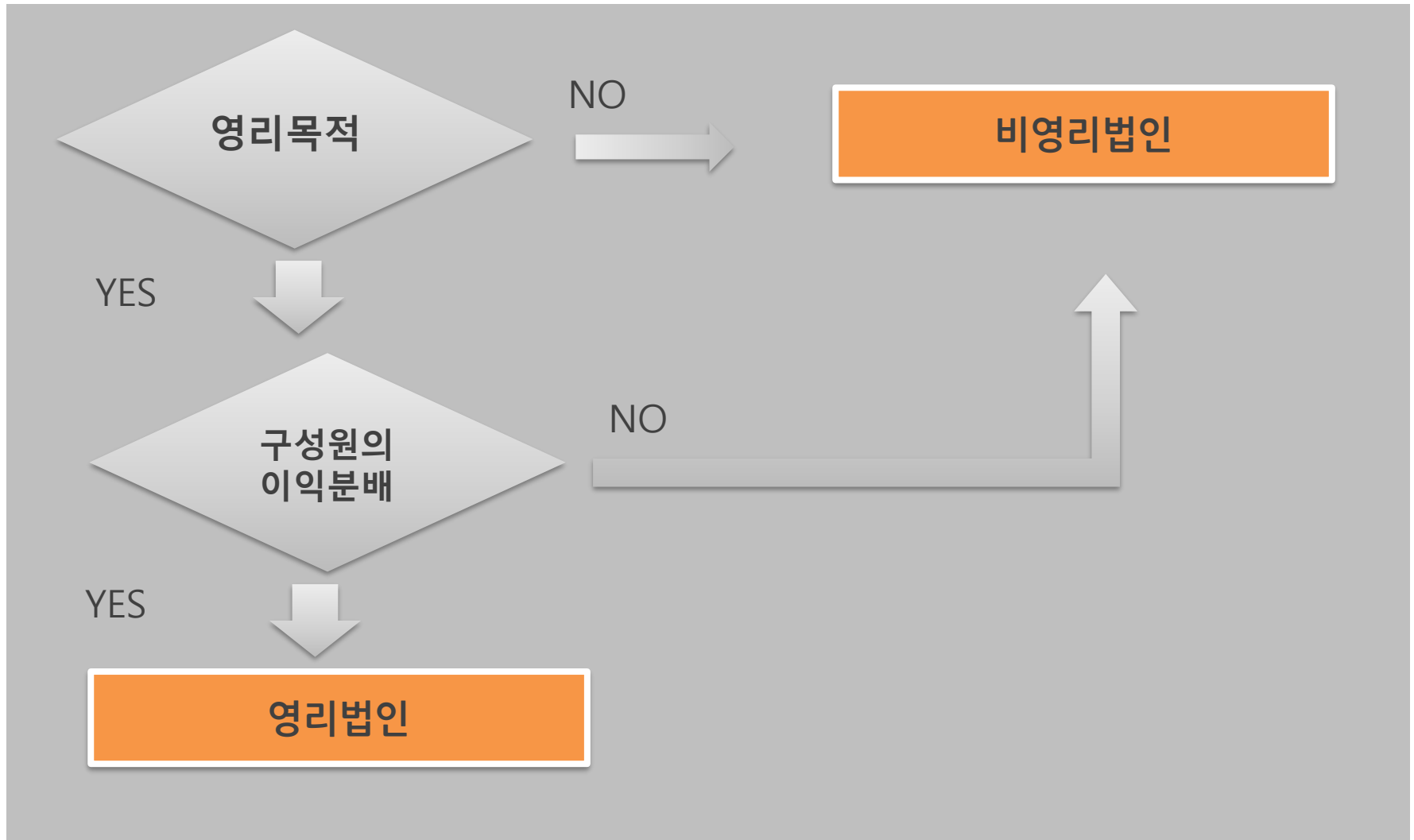
비 용	2,900	수 익	3,000
당기순잉여		100	

잉여금처분안
(다음연도 2월 혹은 3월)

미처분잉여금	200
전기이월미처분잉여금	100
당기발생잉여금	100
잉여금의 처분액	90
법정적립금의 적립	20
임의적립금의 적립	20
지분확정준비금	20
출자비례보상	10
이용고비례환급	20
차기이월미처분잉여금	110

Ⅲ. 사업자의 세무의무

법인세법



소득
관련
세금

법인세

법인이 1 회계기간동안 벌어들인 법인소득에 대하여 납부하는 법인소득세

개인소득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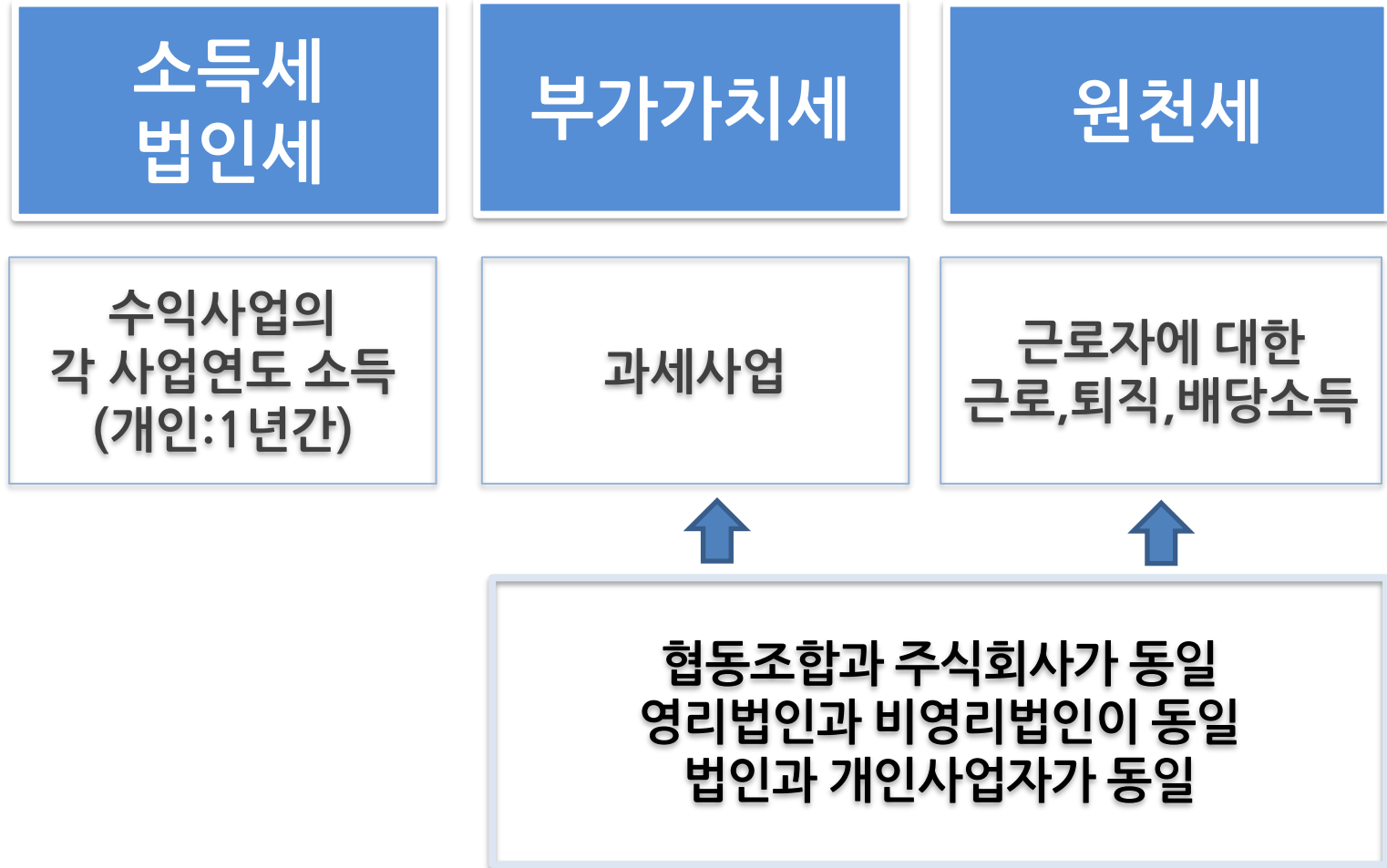
개인이 세법에서 정한 일정기간(1년)의 일정한 소득에 대하여 납부하는 개인소득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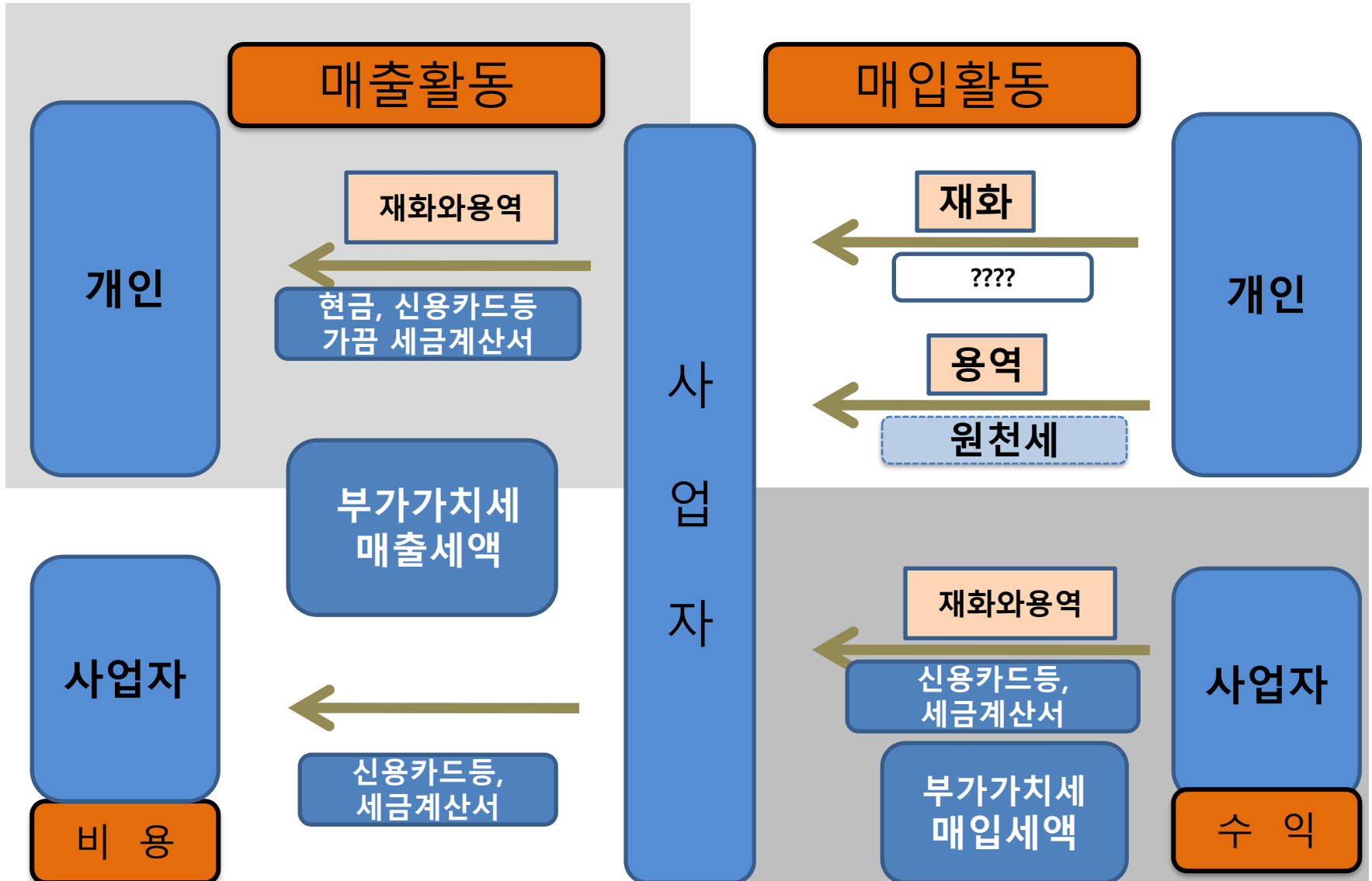
원천세

소득자에게 소득을 지급하는 자(일반적으로 사업자)가 소득자의 소득에서 일정의 세금을 미리 징수하여 국가에 납부하는 제도. 일반적으로 사업자가 개인으로부터 용역을 구매하고 대가를 지급할 때 발생

부가가치세

사업자가 일정기간 동안 재화와 용역의 생산,유통의 산업활동과정에서 창출한 부가가치에 대하여 납부하는 세금으로 최종소비자가 부담하는 소비세이고,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하여 계산.





매출활동

개인과 사업자에게
재화나 용역의 판매

매출(공
급)
수익

부가가치
세매출세액

- 비용

- 부가가치
세매입세액

사업자로부터
재화나 용역구입

- 비용

개인으로부터 용역구입

법인세

부가가치세

원천세

부가가치세와 원천세는
법인세신고의 선행절차

정규지출증빙

건당 3만원 초과 재화와 서비스
구매 및 건당 1만원 초과 접대비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직불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원천징수신고

기타지출증빙

건당 3만원 이하 거래 및
증빙수취가 불가능한 거래

간이영수증

송금영수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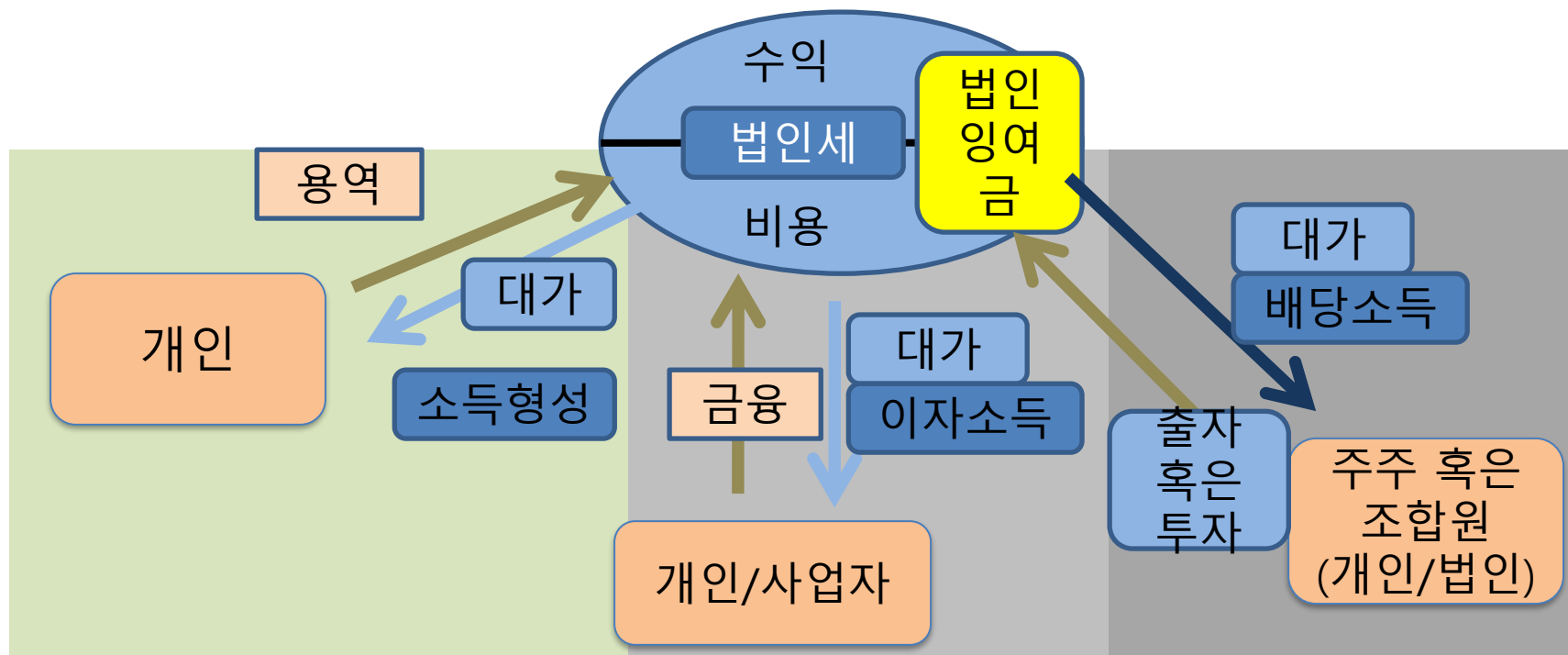
입금표

계약서, 거래내역, 품의서 등

그러나 협동조합은 회계의 투명성과 상호 신뢰를 위해서
금액과 상관없이 적격증빙을 수취해야 한다.

IV. 원천세

원천세는 개인 혹은 사업자가 종업원 등 용역의 제공자에게 각종 대가(용역 제공자의 소득을 형성)를 **지급**할 때에 소득자가 납부해야 할 세금을 미리 징수하여 국가에 대신 납부하는 제도



구분	소득종류	세율	비 고
이자소득	은행이자 등 일반적인 이자소득	14%	-
	비영업대금이익	25%	개인금융
배당소득	일반적인 배당소득	14%	법인에게 지급시 예외
사업소득	원천징수대상소득	3%	사업자등록무
근로소득	매월분 근로소득	-	간이세액표
	연말정산 근로소득	기본세율	-
	일용직근로소득	6%	-
기타소득	일반적인 기타소득	20%	소득에 대하여
퇴직소득	퇴직소득	기본세율	연분연승법

지방소득세특별징수(주민세)는 별도

과세 최저한	<p>기타소득금액이 건별로 5만원이하 소득=수입-비용</p>
	<p>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은 지급받는 총액을 소득으로 봄</p>
소액 부징수	<p>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원천징수에 있어서 당해 원천징수세액이 1,000원미만인 때에는 원천징수를 하지 아니함</p>
	<p>다만, 거주자에게 지급되는 이자소득의 경우 당해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세액이 1,000원미만이라도 원천징수를 해야 함</p>
	<p>일용근로자에게 일당을 한꺼번에 지급하는 경우 소득자별 지급액에 대 한 원천징수세액 합계액을 기준으로 소액부징수대상여부를 판단해야 함</p>
원천징수 시기	<p>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대상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때</p>

1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는 징수일(지급일)이 속하는
다음달 10일까지 세무서에 제출, 원천징수한 세액은
다음달 10일까지 금융기관에 납부,

반기별납부신청 사업자의 경우

-상반기 원천징수세액 : 7월 10일까지 납부

-하반기 원천징수세액: 다음해 1월 10일까지 납부

반기납부신청은 적용 받고자 하는 반기의 직전월에 신청해야 함
(상시고용인원 20인 이하)

상반기 적용: 직전연도 12월1일~12월 31일

하반기 적용: 6월1일~6월30일

2

원천소득지급명세서제출,
(일용직근로소득은 분기별, 그외 소득은 그 다음년도 일정시점까지)

국세청 홈택스를 이용한 전자신고 및 납부가 가능함.

			능득번호			소재지	주소, T전화번호/팩스번호	
1. 원천징수 명세 및 납부세액 (단위 : 원)								
소득자 소득구분			코드	원천징수명세				
				소득지급 (과세 미달, 일부 비과세 포함)		징수세액		
				④인원	⑤총지급액	⑥소득세 등	⑦농어촌 특별세	⑧가산
개 인 ~ 거	근로소득	간이세액	A01	5	19,000,000	644,210		
		중도퇴사	A02					
		일용근로	A03					
		연말정산	A04					
	퇴직소득	가감계	A10	5	19,000,000	644,210		
		연금계좌	A21					
		그외	A22					
		가감계	A20					

소득자별 소득금액을 모른다.
국세청은 소득지급자별명세를 원한다 - 세금추징
그래서 원천소득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한다.

원천징수납부불성실가산세
3%~10%

4-2. 지급명세서 제출기한

소득구분	지급명세서 제출시기	간이지급명세서제출 시기
근로소득	다음연도 3월 10일	반기별(2024년부터는 매월)
퇴직소득	다음연도 3월 10일	해당사항없음
연금소득	다음연도 3월 10일	해당사항없음
일용근로소득	다음달 말일	해당사항없음
이자소득, 배당소득	다음연도 2월말	해당사항없음
사업소득	다음연도 3월 10일	다음달 말일
기타소득	다음연도 2월말	해당사항없음
지급명세서제출 불성실가산세	소득금액의 1%	소득금액의 0.25%

지급명세서
소득자의 인적사항, 소득지급금액, 원천징수세액 등을 기재한 자료로, 일정기간 내 관할세무서에 제출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 부과

지급명세서는 개인별 지급한 소득금액과 원천징수세액에 대한 정보이다

1. 원천징수의무의 발생

개인으로부터 용역을 구매하고 대가를 지급할 때
차입금에 대하여 이자소득을 지급할 때

2. 원천징수신고 및 납부의무

소득을 지급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

근로자 20인 이하는 반기신고납부가능

3. 지급명세서 제출의무

일용직근로소득을 제외하고는 그 다음년도 3월 10일, 2월 28일

일용직 근로소득은 분기종료일 다음달 말일
(4/4분기는 그 다음년도 2월 말일)

V.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
란?

재화 또는 용역이 생산,유통되는 과정에서 사업자가 창출한 부가가치에 대하여 과세하는 조세

납세의무자

사업자 : 영리목적유무와 상관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재화와 용역을 공급하는 자

과세대상

사업자가 공급하는 재화와 용역
(비사업자가 일시적으로 공급하는 재화와 용역은 제외)

납세지

납세지는 사업장소재지, 따라서 각 사업장이 독립된 하나의 부가세 과세단위로 사업장마다 사업자등록을 해야 함

사업장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행하는 장소

부가가치세
매출세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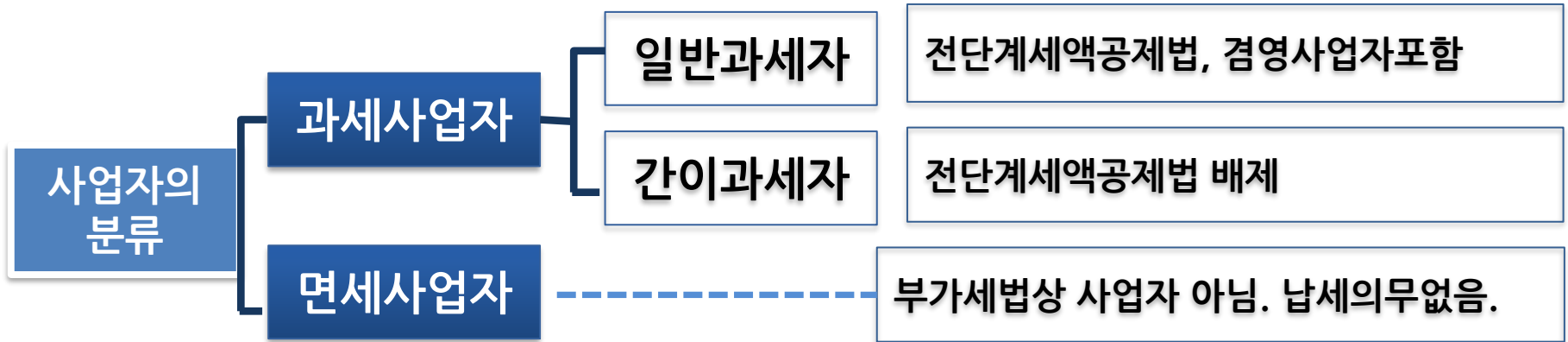
사업자가 재화와 용역을 공급하고 수령하는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사업자가 재화와 용역을 구매하고 지급하는 부가가치세

2. 부가가치세개요

80



과세기간	과세기간	과세대상기간		신고납부기간	신고대상자
제1기 1.1~6.30	예정신고	1.1~3.31		4.1~4.25	법인사업자
	확정신고	1.1.~6.30		7.1~7.25	법인.개인사업자
제2기 7.1~12.31	예정신고	7.1~9.30		10.1~10.25	법인사업자
	확정신고	7.1~12.31		다음해 1.1~1.25	법인.개인사업자

(주) : 법인사업자도 전 반기 과세표준이 150백만원이하면 예정고지 및 반기신고납부가능함.

3. 부가가치세의 특징

81

	생산자		도,소매상		소비자
	공급가액	부가세	공급가액	부가세	구매액
중간구매			400	40	
창출한 부가가치	400	40	600	60	
임금 지대 이자 이윤					
판매	400	40	1,000	100	1,100
납부(부담)부가세		40	+	60	= 100

일반소비세	모든 재화와 용역에 대해 과세(정책적 목적의 면세제외)
간접세	최종소비자가 부담하고, 사업자가 납부한다.
전단계세액공제법	납부세액 = 매출세액 - 매입세액 으로 산출한다
소비지국과세원칙	국경세조정으로 소비지국과세, 수출은 비과세,수입은 과세

4. 부가가치세 계산구조

82

매출세액

공급가액*10%

- 세금계산서 발급,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발급,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발급 공급가액
- 현금수령 공급가액

(-) 매입세액

- 세금계산서 수취,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수취,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수취 매입세액
- 매입과 관련된 세액은 그 매입이 매출부가세를 발생시킬때만 인정함.

(+) 불공제매입세액

- 사업자등록전 매입세액 (20일 이내, 이사장 주민번호 수취 제외)
- 접대비 및 업무무관지출매입세액
- 세금계산서 미수취, 부실기재 및 합계표미제출, 부실기재 매입세액
- 비영업용 소형승용차 관련 매입세액
- 면세 관련 매입세액

(-) 경감공제세액

(+) 각종 가산세

= 차가감 납부할 세액 (환급받을 세액)

5. 부가가치세 계산예

83

최종소비자가 부담하는 소비세
납부주체는 사업자

판매시 수령하는 매출부가세

매입시 지급하는 매입부가세

부가세예수금

매출세액

부가세대급금

매입세액

매출 있는 경우

항 목	공급가액	부가가치세	합계
원재료매입	20,000	2,000	22,000
생산요소투입	8,000	0	8,000
이윤	2,000	0	2,000
매출	30,000	3,000	33,000

매출 없는 경우

항 목	공급가액	부가가치세	합계
원재료매입	20,000	2,000	22,000
생산요소투입	8,000	0	8,000
이윤	2,000	0	2,000
매출	0	0	0

매출세액 3,000 부가세예수금

(-) 매입세액 2,000 부가세대급금

납부부가가치세액 1,000

매출세액 0 부가세예수금

(-) 매입세액 2,000 부가세대급금

납부부가가치세액 -2,000 (환급세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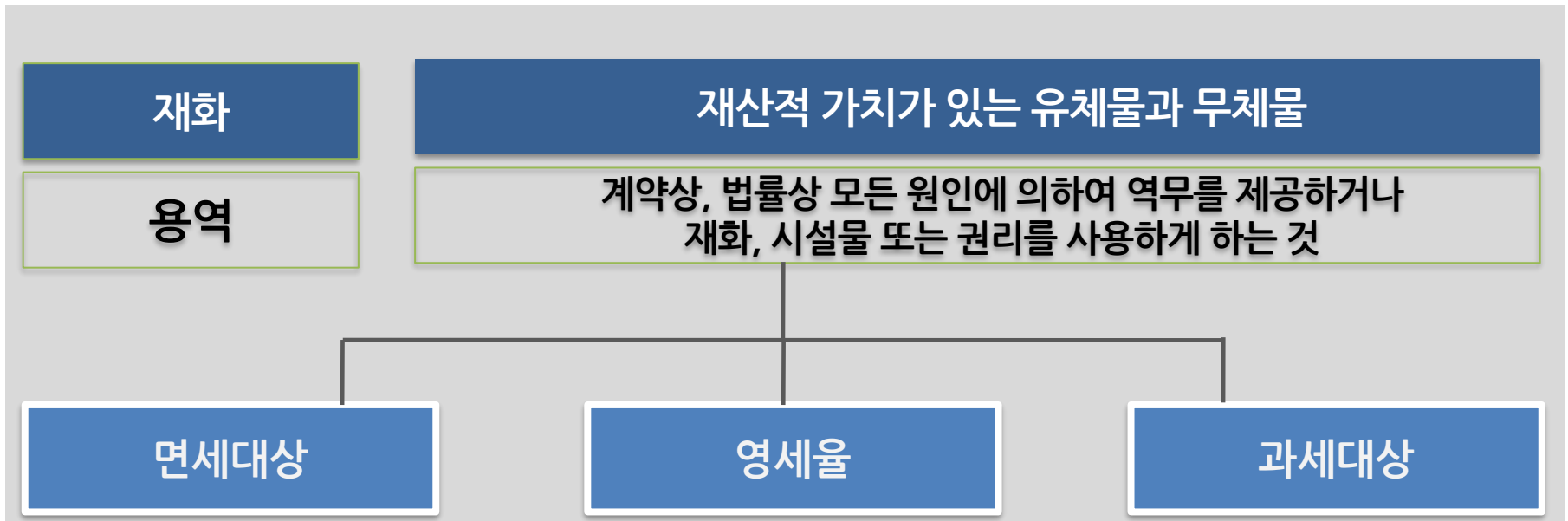
최종소비자부담하는 부가세 3000원

6.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84

부가가치세 과세거래

구분	공급자	공급받는자	과세방법
1. 재화의 공급 2. 용역의 공급	사업자에 한함	사업자여부 불문	공급하는 사업자가 공급받는자로부터 징수하여 납부
3. 재화의 수입	사업자여부 불문	사업자여부 불문	세관장이 수입자로부터 징수하여 납부



조기환급	수출, 사업설비투자시 조기환급대상 매월 또는 매2월간 간격으로 조기환급 신청
부가세 신고필수	납부할 세액이 없더라도 꼭 신고하고 환급 받아야 한다. → 무신고 매입세액공제 받을 수 없음 → 가산세 납부해야 함
간주공급	- 매입세액을 공제받았는데 매출을 발생시키지 않는 다음의 거래는 매출세액을 납부해야 한다. 간주공급(면세전용, 판매목적타사업장반출)/개인적공급 사업상증여/폐업시간존재화
폐업시 부가세 신고 필수	신고해야 이후에 불이익이 없음 특히 재고자산이나 설비자산이 있을 경우 꼭 신고해야 함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수령시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항목은 신청해서 받아야 함 비용처리와 매입세액환급 중 선택해야 함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고 하더라도 발급시기에 법인세법상 매출을 인식하지 않은 경우도 있다.

VI. 법인세

1. 신고기한을 알아둔다

부가가치세는 분기종료일 다음달 25일까지

법인세는 회계연도종료일로부터 3월이내

2. 적격증빙수취를 생활화한다

회계처리의 투명성을 위한 기본지침

부가가치세와 법인세신고의 기본서류

3. 언제든지 자문을 구할 수 있는 착한 회계사 또는 세무사

구 분	각사업연도소득	청산소득	토지 등 양도소득
주식회사 일반협동조합	국내외 모든 소득	의무있음	의무있음
사회적협동조합	수익사업소득만	의무없음	의무있음



영리사업과 비영리사업의
구분경리 필요



청산소득을 조합원에게
배분하지 않기 때문에 비과세

과세기간

법인의 정관에 정하는 1회계 기간

신고납부일

각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월 이내

✓ 협동조합은 회계연도 종료일로부터 3월 이내 정기총회를 개최,
정기총회 7일 전까지 감사에게 결산보고서 등을 제출해야 할 법적 의무가 있
음

✓ 늦어도 3월 중순 이전에 결산과 세무조정 완료해
재무제표와 법인세를 확정된 다음, 총회 준비에 들어가야 함

과표구간	법인세율	지방소득세율	세율합계
2억원 이하	10%(9%)	1%(0.9%)	11%(9.9%)
2억원 초과	20%(19%)	2%(1.9%)	22%(20.9%)
200억원 초과	22%(21%)	2.2%(2.1%)	24.2%(23.1%)

()안은 2023년 귀속 법인세 신고분부터 적용함

회계상결산		세무조정		법인세법
수익 (-)	+, -	(+) 익금산입 (-) 익금불산입	=	익금총액 (-)
비용	+, -	(+) 손금산입 (-) 손금불산입	=	손금총액
당기순이익				각사업연도소득

법인세법의 과세소득 규정: 순자산증가설
 순자산 증가 → 익금
 순자산 감소 → 손금

복식장부에 의한 법인세신고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법인세법에서 별도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해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

익금산입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발생하는 수익

- 사업수입금액
- 자산양도금액
- 자산의 임대료
- 자산의 평가차익(일부 인정)
- 자산수증이익과 채무면제이익

익금불산입

순자산을 증가시키지만
중복과세방지, 조세정책상의 목적
등으로 익금으로 보지 않음

- 출자납입
- 부가가치세 매출세액
- 수입배당금액 중 일정액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법인세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해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

손금산입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행위로
법인세 과세소득을 줄이는 내용


일반회계상의 비용과
크게 다르지 않음

손금불산입

순자산을 감소시키지만
과세소득을 감소시키지 않은 항목으로 보
지 않는 것

- 자산의 평가차손
- 과다경비
- 업무 무관 비용
- 접대비 일부
- 기부금 일부
- 법적 정규지출증빙 미수취

손금은 많으면 많을수록 세금이 적어지는 항목으로
세무당국의 보수적 접근



순자산의 증가면 사업과 관련 없어도 인정되는 익금과 달리,
손금은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만 인정



사업자의 세무조정에서 익금에 대한 조정보다
손금에 대한 조정항목이 더 많음



실무적으로 손금으로 인정되는 항목과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는 항목들에 대한 주의 요망

인건비

- 임원상여한도초과금: 급여규정상의 한도액을 초과하는 경우
✓ 급여규정이 없으면 임원의 상여금 전체가 손금인정 안됨
- 임원퇴직급여한도초과액: 정관 또는 정관의 위임에 따라 조합원총회에서 정한 퇴직급여규정을 초과하는 경우, 규정 없는 경우는 (퇴직전1년간 총급여액*10%*근속연수) 초과금액

복리후생비

- 법인세법에서 정한 복리후생비만 손금인정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등 법정부담금에 대한 사용자부담금 직장체육비, 직장연예비, 사용통념상 타당한 경조사비, 기타유사비용 등

여비와 교육훈련비

- 임직원이 아닌 자에 지급하는 여비와 교육훈련비
- 조합원을 위한 교육비의 경우, 현재 생협에서는 손금 교육비로 인정

업무무관비용

- 사업과 관련 없는 지출은 재무구조를 악화시키고 조세수입을 감소시키므로 손금으로 인정하지 않
- 업무무관자산 관련비용: 취득가액, 취득관련세금, 유지비용 등

세금과공과

- 법인세,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 법령에 의한 의무적인 것이 아닌 공과금
- 법적 의무불이행으로 인한 제재금, 과징금, 가산금, 범칙금 등

자산평가차손

- 자산평가 차손은 손금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이 세법상 원칙이나 아래와 같은 예외의 경우를 둠
 - 1) 재고자산이 파손, 부패 등의 사유로 정상가격 판매가 어려운 경우
 - 2) 고정자산이 천재지변으로 원래의 목적으로 사용이 어려운 경우

법적 정규지출 증빙미수취

- 3만원 초과 지출의 경우 법적 정규지출증빙 또는 거래나 지출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이 없는 경우

구분	내 용
무기장(무신고) 신고가산세	산출세액의 20%와 수입금액의 0.07% 중 큰 금액 납부 부정무신고의 경우 산출세액의 40%와 부정무신고수입 금액의 0.14% 중 큰 금액
과소신고가산세	과소신고 해당 산출세액의 10% 부정과소신고의 경우 부정과소신고금액의 40%와 부정과소신고수입금액의 0.14% 중 큰 금액
법정증빙서류 미수취가산세	건당 3만원 초과하는 재화나 용역 공급받고 정규증빙서류 수취하지 아니한 경우 미수취금액의 2% 가산세 부과

VII. 종합소득세

1. 소득세 신고 및 납부

- ✓ 종합소득(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소득)이 있는 사람은 다음해 5. 1부터 5. 31까지(성실신고확인 대상 사업자는 6월 30일)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 따라서 2015년 종합소득이 있는 신고대상자는 2016년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하여야 합니다.
- ✓ 지방소득세 소득분도 함께 신고하여야 합니다. 소득세 신고서에 지방소득세 소득분 신고 내용도 함께 기재하여 신고하고, 세금은 별도의 납부서에 의하여 5. 31까지(성실신고확인 대상 사업자는 6월 30일) 납부하면 됩니다.

*** 종합소득이 있더라도 다음의 경우에 해당되면 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 ✓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으로서 연말정산을 한 경우
- ✓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7,500만원 미만인 보험모집인 또는 방문판매원 등 소속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한 경우
- ✓ 비과세 또는 분리과세되는 소득만이 있는 경우
- ✓ 연 300만원 이하인 기타소득이 있는 자로서 분리과세를 원하는 경우 등

2-1. 장부의 비치와 기장

소득세는 사업자가 스스로 본인의 소득을 계산하여 신고·납부하는 세금이므로, 모든 사업자는 장부를 비치·기장하여야 합니다.

간편장부 대상자

- 해당연도에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였거나
- 직전연도의 수입금액이 아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합니다.

업 종 구 분	직전연도 수입금액
농업 및 임업, 어업, 광업, 도매업 및 소매업, 부동산매매업 등	3억원 미만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가스 및 수도사업, 건설업, 운수업, 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 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등	1억 5천만원 미만
부동산임대업,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사업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오락·문화 및 운동관련 서비스업과 기타공공·수리 및 개인서비스업, 가사서비스업 등	7천 5백만원 미만

*단, 전문직사업자는 2007. 1. 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수입금액에 상관없이 복식부기 의무가 부여됨.

복식장부 대상자

- 간편장부대상자 이외의 모든 사업자는 재산상태와 손익거래 내용의 변동을 빠짐없이 거래시마다 차변과 대변으로 나누어 기록한 장부를 기록·보관하여야 하며, 이를 기초로 작성된 재무제표를 신고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장부를 기장하지 않았을 경우의 불이익

- 복식부기의무자는 신고를 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하여 산출세액의 20%(부당무신고는 40%)와 수입 금액의 0.07% (부당무신고는 0.14%) 중 큰 금액을 가산세로 물게 됩니다.
- 간편장부대상자는 산출세액의 20%를 가산세로 물게 됩니다. (직전 연도 수입금액이 4,800만원 미만인 사업자는 제외)
- 결손이 났더라도 이를 인정받지 못합니다.

(1) 장부를 비치·기장하고 있는 사업자는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소득)를 공제하여 계산합니다.

(2) 장부를 비치·기장하지 않은 사업자의 소득금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 기준경비율적용 대상자 (①, ② 중 적은금액)

$$\text{① 소득금액} = \text{수입금액} - \text{주요경비} - (\text{수입금액} \times \text{기준경비율})$$

$$\text{② 소득금액} = \{\text{수입금액} - (\text{수입금액} \times \text{단순경비율})\} \times \text{배율}$$

※ 2010년 이후 귀속 배율: 간편장부대상자 2.4배, 복식의무자 3.0배

✓ 단순경비율적용 대상자

$$\text{소득금액} = \text{수입금액} - (\text{수입금액} \times \text{단순경비율})$$

(1) 각종 세액공제 및 감면을 받을 수 없습니다.

(2) 무거운 가산세를 물게 됩니다.

✓ 신고불성실가산세 = 산출세액 \times 20%(부당 무신고시 40%)

✓ 납부불성실가산세 = 미납부세액 \times 0.03% \times 경과일수

(1) 복식부기의무자 vs 간편장부대상자 // 단순경비율 vs 기준경비율

업 종 구 분	간편장부대상자		복식부기의무자
	단순경비율	단순경비율	기준경비율* (1/2)
① 농업·임업 및 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 부동산매매업 등, 기타 아래 ②, ③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	6천만원 미만	6천만원~3억원	3억원 이상
②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 건설업, 운수업,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금융 및 보험업 등	3천6백만원 미만	3천6백만원~1억5천만원	1억5천만원 이상
③ 부동산임대업,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 사업지원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예술·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가구내 고용활용 등	2천4백만원 미만	2천4백만원~7천5백만원	7천5백만원 이상

- ✓ 신규사업자의 15년 업종별 수입금액이 복식부기 의무자에 해당하는 경우 기준경비율 적용
- ✓ 전문직사업자는 직전연도 수입금액 규모에 상관없이 복식부기의무 부여

기장 세액공제

간편장부대상자에 해당하는 복식부기 장부에 의해 소득금액을 계산하고 신고한 경우에는 기장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중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연간 1백만원 한도내에서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무기장 가산세

사업자(소규모 사업자 제외)가 장부를 비치·기록하지 아니하였거나 비치·기록한 장부에 따른 소득금액이 기장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결정세액에 20%의 가산세가 있습니다.

무기장 가산세 제외

무기장가산세 제외 소규모 사업자는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와 직전 과세기간의 사업소득의 수입금액04천8백만원에 미달하는 사업자 입니다

성실신고 확인제도

성실신고확인제도는 사업자의 장부기장 내용의 정확성 여부 등을 세무대리인에게 확인받은 후 신고하게 하는 제도로 종합소득신고 시 세무대리인이 확인한 「성실신고확인서」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성실신고 대상자

업 종	기준수입금액
광업, 도·소매업, 부동산 매매업, 농업 등	연매출 20억원 이상
제조업, 음식숙박업, 건설업, 금융과 보험업 등	연매출 10억원 이상
서비스업, 부동산 임대업 등	연매출 5억원 이상

성실신고 확인서 미제출시

사후검증 및 세무조사 대상자로 우선 선정되고, 미제출시 사업소득에 대한 산출세액의 5% 가산세도 부과되며,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한 사업자라 하더라도 부실하게 확인한 혐의가 있는 경우, 엄정한 사후검증 및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시정조치할 뿐만 아니라 부실하게 확인한 세무대리인에 대해서도 직무를 정지하는 등 징계조치하고 있음

8. 종합소득세율

8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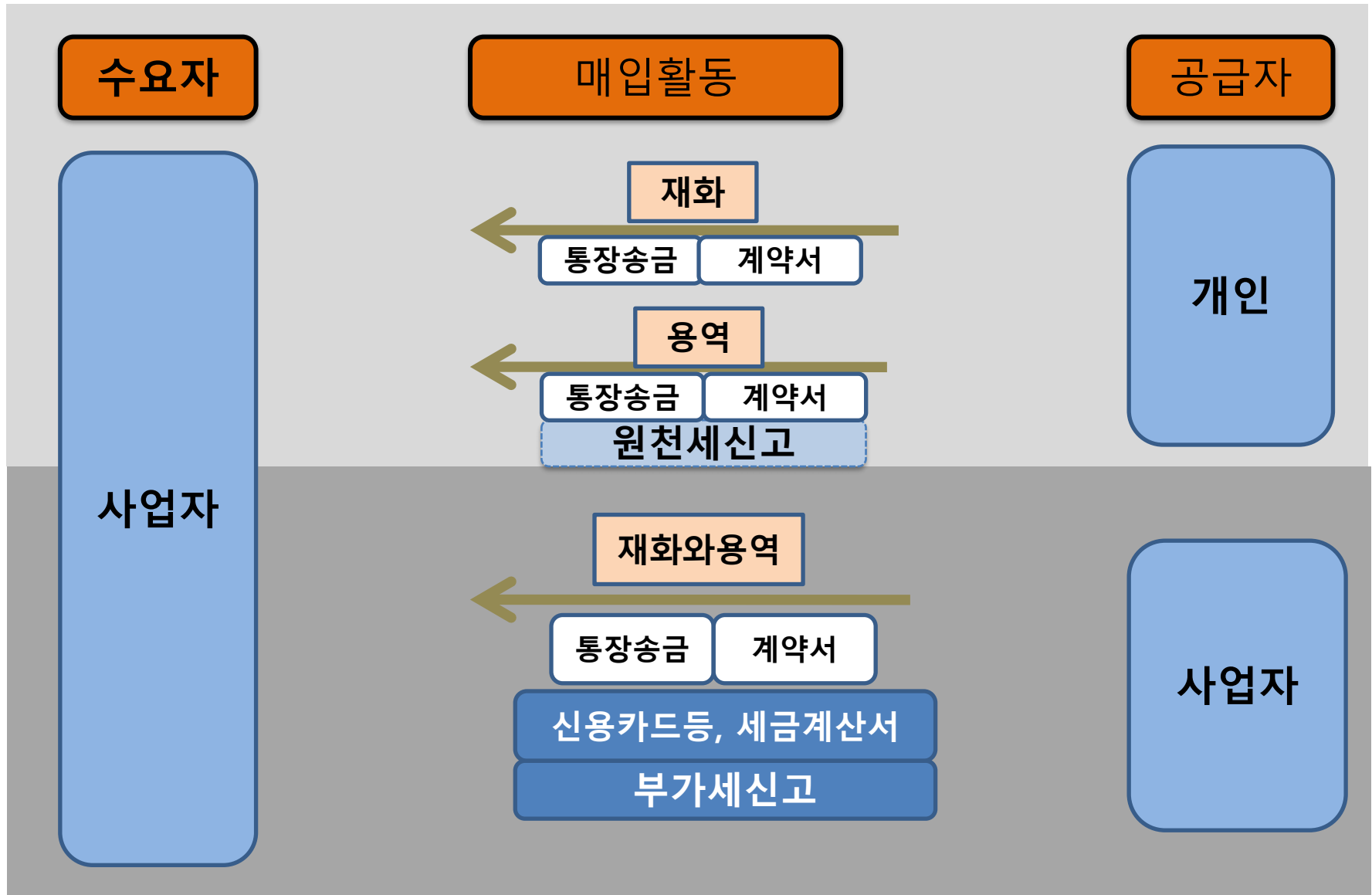
※ 서울 적용 방법: 과세표준 × 서울 - 누진공제액

*과세표준	세액	누진공제액	세율
1천200만원 이하	과세표준의 100분의 6	-	6%
1천200만원 초과 ~ 4천600만원 이하	72만원 + (1,2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15)	1,080,000	15%
4천600만원 초과 ~ 8천800만원 이하	582만원 + (4,6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4)	5,220,000	24%
8천800만원 초과 ~ 1.5억원 이하	1,590만원 + (8,8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35)	14,900,000	35%
1.5억원 초과	3,760만원 + (1.5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38)	19,400,000	38%

*과세표준이 총수입액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며, 총소득에서 필요경비(비용)등과 각종 공제를 제하고 난 다음의 금액입니다

VIII. 기타 관리업무

1. 지출증빙관리



사업자는 다른 사업자와의 거래에서 3만원초과의 자산을 취득하거나 경비를 지급할 때 (접대비는 1만원) 적격증빙을 의무적으로 수취해야 한다.
(법인세법제116조, 법인세법시행령제158조)

사업자와의 거래

재화와 용역의 공급대가

3만원초과거래
(접대비는 1만원)

증빙서류는 장부기장과 세무신고의 근거 5년 간 보관하도록 법적 의무화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등)

적격 증빙서류가 갖춰지지 않은 비용의 경우
가공비용으로 판단, 손금불산입. 대표이사상여처리(소득세납부)

사업과 관련된 지출이면 손금으로 인정하되 가산세 2% 부과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불가능

사업자가 아닌 자와의 거래에서는 적격증빙을 수취할 수 없다.
계약서작성, 통장거래 등의 대체증빙을 마련해야 한다.

법인세납세의무가 있는 법인은 지출거래(비용)에 대하여 거래증빙과 지급규정, 사규 등의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이를 당해 법인에게 귀속시키는 것이 정당함을 입증해야 함.

증빙서류는 법인세 신고기한이 지난 난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함

결손금
이월공제

해당 사업연도에 발생한 결손금은 발생한 연도의 종료일부터 10년 이내에 종료하는 과세기간에 이월공제를 허용함.

각 사업연도 개시일전 5년이 되는 날 이전에 개시한 사업연도에서 발생한 결손금을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서 공제하려는 법인은 해당 결손금이 발생한 사업연도의 증빙을 공제되는 소득의 귀속사업연도의 신고기한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보관해야 함

사례

2014년에 발생한 결손금을 2022년의 소득에서 차감하려고 한다. 2014년의 증빙서류는 언제까지 보관해야 하는가? 2014년에 발생한 결손금은 언제연도까지 발생한 소득에서 공제가능한가?

정규지출증빙

건당 3만원 초과 재화와 서비스 구매
및 건당 1만원 초과 접대비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직불카드)매출전표
(월이용대금명세서도 가능)
현금영수증
원천징수영수증

기타지출증빙

건당 3만원 이하 거래 및
증빙수취가 불가능한 거래

간이영수증
송금영수증
입금표
계약서, 거래내역, 품의서 등

그러나 협동조합은 회계의 투명성과 상호 신뢰를 위해서
금액과 상관없이 적격증빙을 수취해야 한다.

사업자로부터 재화와 용역을 공급받은 경우에도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법적정규지출증빙을 수취하지 않더라도 세무상 불이익이 없다.
(법인세법시행령제158조)

공급받은 재화와 용역의 거래건강금액이 30,000원미만인 경우

거래상대방이 읍,면지역에 소재하는 사업자인 경우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부터 금융,보험용역을 제공받은 경우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또는 국외에서 제공받은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비영리법인으로부터 재화와 용역을 제공받은 경우

철도의 여객운송용역을 공급받은 경우, 경비송금명세서를 제출하는 경우

적격증빙수취의무면제거래 중 재화나 용역의 거래금액을 금융기관을 통하여 지급한 경우로서 버인세과세표준신고서에 송금사실을 기재한 “경비등의 송금명세서”를 첨부하여 제출하면 손금인정(시행규칙제78조)

간이과세자로부터 부동산임대용역을 제공받은 경우

임가공용역을 제공받은 경우(법인과의 거래를 제외한다)

운수업을 영위하는 간이과세자로부터 운송용역을 제공받은 경우

간이과세자로부터 재활용폐자원이나 재활용가능자원을 공급받은 경우

전자상거래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법률제2조제2호본문에서 다른 통신판매에 따라 공급받은 경우

유료도로법에 따른 유료도로를 이용하고 통행료를 지급하는 경우

실제 거래처와 다른 사업자 명의로 교부된 세금계산서·계산서 또는 신용카드매출전표

부가가치세법상 미등록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교부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

부가가치세법상 간이과세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교부받은 세금계산서

주요 원자재 등 매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과세거래: 세금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증빙용) - 면세거래: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증빙용)
출장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내서비스구매: 정규지출증빙, 지출결의서 또는 품의서 (내부규정이 있는 경우 합리적 범위 내에서) - 국외서비스구매: 영수증, 계약서, 지출결의서 또는 품의서
인건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임직원: 갑종근로소득신고 - 일용직: 일용근로소득지급조서 - 기타 및 사업소득: 기타 및 사업소득 원천징수신고
복리후생비 중 경조사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내부규정 및 지출결의서 또는 품의서, 경조금지급신청서
접대비 (1만원 초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화와서비스구매: 정규지출증빙(개인카드 불가) - 현금지급경조사비: 관련증빙, 지출결의서 또는 품의서
지급임차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반과세자임대인: 세금계산서 - 간이과세자임대인: 은행송금증

2. 현금영수증

현금영수증 이란?

현금영수증 가맹점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는 경우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현금영수증 발급장치에 의해 발급하는 것으로서 거래일시, 금액 등 결제내용이 기재된 영수증을 말함

현금 영수증제도

2005.1.1.부터 현금영수증 가맹점에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현금을 받는 경우 소비자의 신분을 인식할 수 있는 카드, 주민등록 번호, 휴대폰번호 등을 입력하면 현금영수증 발급장치가 부착된 단말기를 통해 거래내역을 실시간으로 전송하는 제도

현금영수증 발행시 혜택

- 부가가치세 신고시 현금영수증 발행금액(VAT포함)의 1.3% 세액공제
- 음식, 숙박업을 영위하는 간이과세자는 2.6% 세액공제
- 연간한도 500만원, 법인사업자는 세액공제 제외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10.4.1부터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사업자가 건당 거래금액 (부가가치세 포함)이 10만원(2014.6.30.이전 30만원) 이상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에는 소비자가 발급을 요청하지 않더라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함

- 현금영수증을 미발급한 경우 미발급금액의 50% 과태료 부과 (조세범처벌법 제15조)

의무발행업종 사업자는 현금영수증가맹점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단, 가맹점 가입기한이 경과한 경우에 한함)에도 현금영수증 미발급에 따른 과태료 부과대상에 해당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

- 사업서비스업, - 보건업, - 숙박,음식점업, - 일반유흥주점업
- 교육서비스업, - 일반교습학원, 예술학원, - 운전학원
- 기타업종

3. 세금계산서와 계산서

1.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122

세금계산서란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 그에대한 부가가치세를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징수한 사실을 증명하기 위하여 발급하는계산서를 말한다.

세금계산서발급은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거래상대방에게 넘겨주는 것을 의미

세금계산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와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발급, 최종소비자대상업종은 제외, 영수증발급		
계산서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재화와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발급, 최종소비자대상업종은 제외, 영수증발급		
구 분		발급의무	비고
과세사업자	일반과세자 (협동조합)	세금계산서	최종소비자대상 업종은 영수증발급
	간이과세자 (법인불가)	영수증	영수증
면세사업자	법인,개인	계산서	최종소비자대상 업종은 영수증발급

발급기한: 발급일에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전송기한: 발급일의 다음날까지

[별지 제11호 서식]

(적색)

세금계산서(공급자 보관용)														책번호		권		호								
														일련번호												
공급자	등록번호										등록번호															
	상호(법인명)										성명		상호(법인명)										성명			
	사업장주소										사업장주소															
	업태										목종		업태										목종			
작성			공급가액										세액										비고			
년	월	일	공란수	백	십	억	천	백	십	만	천	백	십	일	십	억	천	백	십	만	천	백	십	일		
월		일	품		목		규		격		수		량		단		가		공급가액		세액		비고			
합계금액				현금				수표				어음				외상미수금				위금액을		영수함				
0																										

[별지 제11호 서식]

계 산 서 (공 급 받 는 자)														책 번 호		권		호										
보 관 용														일련 번 호														
공급자	등록번호	3	3	3	-	1	2	-	4	5	6	1	2	등록번호	1	2	3	-	4	5	-	6	7	8	9	0		
	상 호 (법인명)	(주) 비즈폼						성명	이지용 인						상 호 (법인명)	(주) 인비닷컴						성명	김혜주 인					
	사 업 장 주 소	서울시 봉천동 729-24 우성캐릭터그린빌 1216호												사 업 장 주 소	부산시 동래구 수안동 41-6 삼운빌딩 4층													
	업 태	도매 서비스						종목	컴퓨터판매 및 프로그래밍개발외						업 태	도매 서비스						종목	컴퓨터 판매					
작 성		공 급 가 액												비 고														
년	월	일	공	관	수	백	십	억	천	백	십	만	천	백	십	일												
2001	11	1	5							1	7	0	0	0	0													
월	일	품 목					규 격			수 량		단 가			공 급 가 액			비 고										
11	1	비즈폼서식								1		170,000			170,000													
합계금액			현 금			수 표			머 음			외상미수금			이 금액을 청구 함													
170,000																												

전자식 방식으로 세금계산서를 작성, 발급하여 그 내역을 국세청에 전송하는
제도, 법인으로서 의무사용자

발급방법	국세청에서 운영하는 'e세로' 홈페이지에서 발급
	전자세금계산서 시스템 사업자(ASP, ERP)를 통한 발급
	전화 ARS(126-내선3)로 발급, 세무서 방문하여 대리발급
사업자 준비사항	공인인증서
	거래처 이메일
교부시기	재화와 용역 공급시기
	월 합계로 할 경우 다음달 10일까지
국세청전송기한	발급일 다음날까지(이세로는 자동전송)

3. 전자세금계산서가산세

구 분	위반내용	발급자	수취인
미발급	발급시기가 지난후 공급시기가 속한 과세기간내에 발급하지 않은 경우	2%	매입세액불 공제(주1)
지연발급	발급시기가 지난후 공급시기가 속한달의 다음달 10일이 지나서 해당 과세기간내에 발급한 경우	1%	1%
종이발급	전자세금계산서발급의무자가 발급시기에 종이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1%	-
미전송	발급일 다음날이 지난후 공급시기가 속한 과세기간 다음달11일까지 미전송	1% (개인0.3%)	-
지연전송	발급일 다음날이 지난후 공급시기가 속한 과세기간 다음달11일까지 전송	0.5% (개인0.1%)	-



세금계산서 필수기재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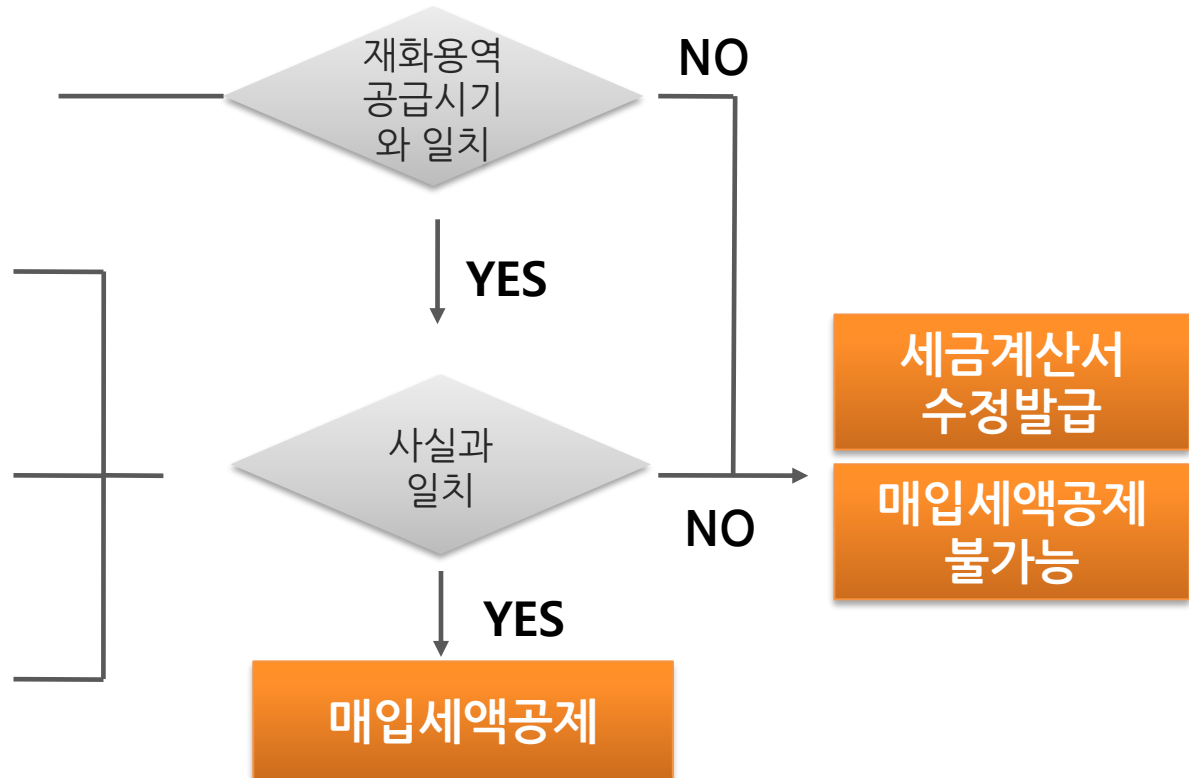
발급시기

공급가액과세액

공급하는자의
사업자등록번호와
명칭

공급받는자의
사업자등록번호

필수적기재사항이
잘못된 경우



매출자	가산세 1%
매입자	매입세액 불공제

원칙

재화-용역의 공급시기에 발급해야 한다.

재 화

현금판매,외상판매,할부판매	인도하는 때
장기할부판매, 중간지급조건부, 완성도지급조건부, 공급단위를 나눌 수 없는 계속적 공급	회수기일도래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조건부판매 및 기한부판매	조건이 성취되거나 기한이 경과되어 판매가 확정되는 때
폐업시간존재화	폐업하는 때 또는 사실상 사업을 하지 아니하는 때

용 역

통상적인 공급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장기할부판매, 중간지급조건부, 완성도지급조건부, 공급단위를 나눌 수 없는 계속적 공급	회수기일도래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일정한 용역을 2이상의 과세기간에 걸쳐 공급하고 대가를 선불로 받은 경우	대가를 월수로 안분계산 - 대가는 신고기간종료일
위 이외의 경우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

4. 창업과 재무계획

창업: 새로운 도전과 변화



사고의 전환: 재무적 사고의 틀 필요

경영환경

- 수많은 계량적 요소와 비계량적 요소로 둘러싸인 의사결정의 숲
- 매번 선택의 순간이 다가오고 이는 합리적 의사결정을 필요로 함

계량적 요소의 자료화

경영의사결정

재무환경

- 합리적 재무관리를 통한 안정적 기업경영
- 불황기를 대비한 재무관리

- ✓ 자금관리는 기업의 흥망성쇠에 영향을 주는 직접적인 요인이다
- ✓ 직관에 의한 의사결정이 아니라
- ✓ 합리적이고 계량화된 자료에 의한 의사결정을 반복하라
- ✓ 계량적 요소에서 의사결정에 필요한 자료를 추출할 수 있다. 모든 자료를 기록관리하라
- ✓ 쉬운 재무제표를 세우고 실적과 비교하고 원인을 파악하고 피드백하라
- ✓ 안정적인 자금이 누적될 때까지 한치의 여유도 없이 안전자금의 규모와 확보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 ✓ 매출과 이익이 느다고 좋아하지 말고 현금 중심적 사고를 가져야 한다
- ✓ 현금중심적 사고는 재무제표 중 손익계산서가 아니라 현금흐름표를 중시하는 사고다
- ✓ 채권과 채무관리, 재고자산관리도 현금의 유출입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가벼이 사고하지 마라
- ✓ 비용과 원가의 장단기적 성격과 변동성, 변동의 동인(원인)을 사고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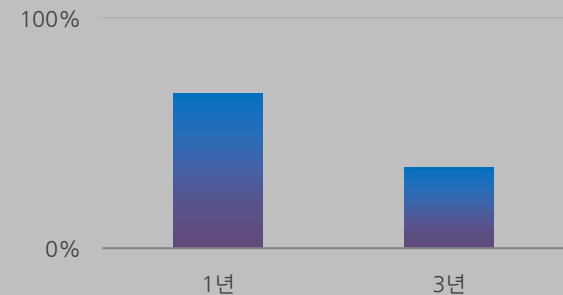
1. 창업초기 안전자금의 산정 및 조달

- 일반적으로 초기 필요자금의 1/3만 가지고 창업
- 모든 기업의 생존여부는 현금(재무, 자금)의 여력에 달려있음
- 창업초기 낙관적 전망을 가지고 시작
- 큰 건축물에 내진설계를 하듯 기업도 창업초기 내진설계가 필요

창업초기 기업생존율 (자영업 포함, KDI 자료)

1년 이내 67%, 3년 이내 30~40%

⇒ 안전창업 미비가 중요한 원인 중 하나



2. 기업은 자금의 조달과 운영으로 생존해나간다

- 얼마의 매출을 언제까지 올려야 하는가
- 얼마의 원가에 생산해야 이익이 날 수 있는가
- 경쟁기업과의 경쟁력이 가격이라면 생존할 수 있는 가격은 어느 정도인가
- 외주제작, 자체 생산설비 구매, 생산설비임대(리스)의 결정은?
- 판매가보다 낮은 대량주문에 응해야 하는가
- 매월 흑자인데 왜 자금이 부족한가
- 지금의 자금으로 현재의 매출구조와 비용구조가 유지된다면 언제까지 버틸 수 있나
- 현금의 유입은 매출과 이익, 채권과 채무, 재고자산과 어떤 관계가 있는가

“재무적 사고가 없으면 자금이 있어도 망할 수 있고
재무적 사고가 있으면 자금이 없어도 흥할 수 있다.”

기업의 생존과 성장에 있어
경영자에게 꼭 필요한 지식과 사고의 틀



재무적 사고

잠깐 테스트 ‘당신의 재무적 사고수준은?’

1. 매출이 증가하는 기업과 일정수준을 유지하는 기업 중 어디가 재무안정성을 가지고 있는가?
2. 같은 규모의 매출과 수익을 유지한다 해도 채권과 채무의 회수기간, 재고자산의 회전기간이 다를 경우 어느 기업이 안전한가?
3. 같은 규모의 매출과 수익을 유지, 고정비의 규모가 다를 경우 불황이 닥치면 어느 기업이 안정적인가?
4. 90원에 판매하고 있는데 60원에 대량주문을 받았다면, 이 주문을 수락할 것인가?
5. 외주제작을 통해 제조하고 있는데 생산설비를 저렴하게 매각 또는 임대제약이 들어왔다. 어떻게 할 것인가?
6. 제품을 OEM납품할 것인가? 자가브랜드로 할 것인가?

재무계획

구매, 제조, 판매 등 일련의 경영활동과 관련한
자금과 회계의 계획

예산관리

재무계획과 관련된 재무 부분을 세분화하여
향후 경영활동마다 자금의 운영과 사용을
구체적으로 계획하고 통제하는 활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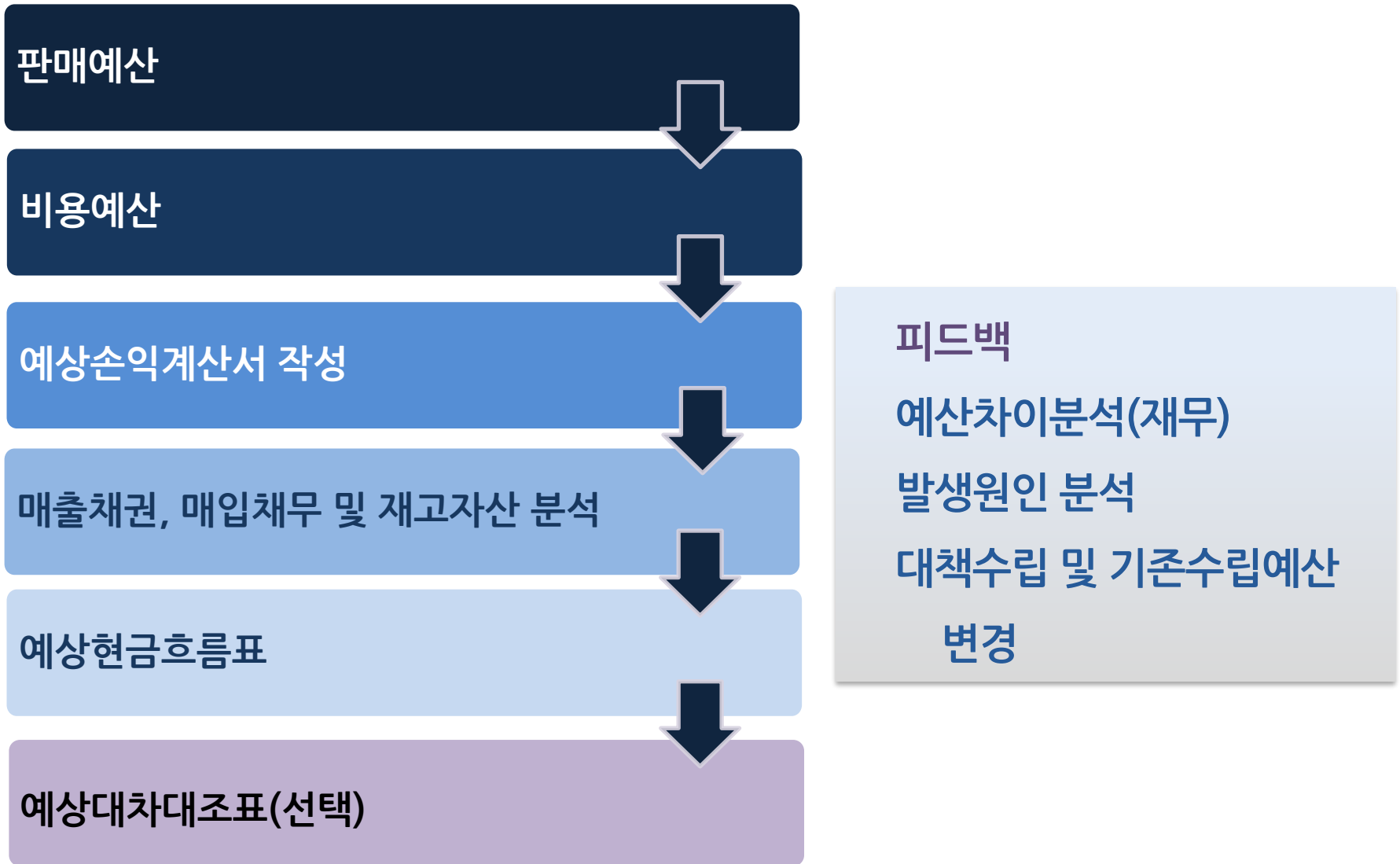
경영활동

재무계획
판매계획
구매계획
제조계획
이익계획
자금계획




예산관리
판매예산
비용예산
비용예산
이익예산
자금의 조달과 운용 재무계획의 피드백 (계획과 실적의 비교를 통한 계획의 수정, 변경)

손익계산서, 현금흐름표, 자금수지표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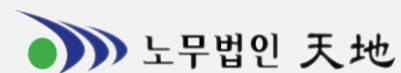
협동조합공작소
COOPCOMM.NET
02-2677-1452



2024 사회복지시설 노무관리실무

(2024년에 알아야 할 인사와 노무)

공인노무사 김정순



1. 통상임금

통상/평균임금의 판단

수당명칭	지급기준	지급시기	판단	
			통상임금	평균임금
명절휴가비	월 기본급(본봉)의60%	연2회	X (재직자에 한해 지급)	O (일할계산 지급시)
특수근무수당	관련업무수행자	매월		O
직책(관리자)수당	직책보유자(기관장 등)	매월		O
교통보조비	전 근로자에게	매월		O
정액급식비	전 근로자에게	매월		O
연장근로수당	법정기준	발생시		X
가족수당	부양가족수에 따라	매월		X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통상임금) ① 법과 이 영에서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所定)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을 말한다.

※ 통상시급 산정 방법

(월 통상임금) / 월 통상임금 산정을 위한 근로시간(=209시간)

※ 월 209시간의 통상임금 근로시간 산정 방법

월 209시간 = (주40시간 소정근로 + 주8시간 주휴시간) * 4.345주(한 달의 주수)

※ 통상임금의 적용

해고예고수당,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연차유급휴가수당**, 생리휴가수당, 산전산후휴가수당 등의 지급시 활용됨.

2. 평균임금과 퇴직급여 - 퇴직금/DB형 퇴직급여 산정

평균임금의 정의

1. 평균임금(제2조 제1항 제6호)

-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
- 1일 단위 산출이 원칙, 사후적인 개념

<업무 TIP! 산정예시>

- 1일 평균임금 = 3개월간 임금총액 / 3월간 총일 수
 - ※ 산출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을 경우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산정
 - ※ 임금 산출 기준이 연단위인 상여금이나 연차유급휴가 미 사용수당 등은 산정사유 발생 이전 3개월 지급 여부에 불구하고 1년 분을 12월로 나누어 3개월 분 산입
- 퇴직금 산정식
$$1\text{일 평균임금} \times 30\text{일} \times \left(\text{년} + \frac{\text{개월}}{12\text{개월}} + \frac{\text{일}}{365\text{일}} \right)$$

2. **평균임금은 퇴직금, DB형 퇴직급여**, 휴업수당, 연차유급휴가수당, 재해보상금, 근로자에 대한 제재로서의 감급액, 산재법상의 제 보험급여 산출의 기초가 됨.

2. 평균임금과 퇴직급여 - 퇴직금/DB형 퇴직급여 산정

평균임금의 정의

3. 산정방법

- ① 기산일 : 퇴직일(마지막 근무일의 다음날, 퇴직일의 계속근로년수 산입에 관한 해석, 지침번호 : 근기68201 - 3970, 제정일자 : 2000-12-22), 산재사고가 발생한 날, 질병의 진단을 받은 날 등.
- ② 3개월간의 총일수 : 역일상의 총일수(예: 5월 16일 퇴사자의 경우 2월 16일~5월15일까지 기간)
- ③ 3개월 이전에 지급된 임금총액 : 지급된 임금뿐만 아니라 지급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사유발생일 이전에 이미 채권으로 확정된 것은 임금총액에 포함됨.
- ④ 의도적으로 높인 성과급 등의 평균임금 등への 포함 여부. : 그 기간을 제하고 이전 3개월간의 평균임금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할 수 있음.

4. 산정의 특례

- ① 취업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 해당 기간만으로 계산함.
- ② 총일수 및 임금총액에서 공제되는 경우
 - 수습사용중인 기간,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 산전산후휴가기간,
업무상 재해로 휴업한 기간, 육아휴직기간, 쟁의행위기간, 병역법 등에 의해 휴직하거나 근로하지 못한 기간, 업무외 부상, 질병 등으로 사용자의 승인하에 휴업한 기간
- ③ 감봉기간, 직위해제기간, 대기발령기간, 개인적 범죄로 구속기소된 경우 등 개인적 사유에 의한 기간은 대상기간에 포함함.

2. 평균임금과 퇴직급여 - DC형 퇴직급여 산정

DC형 퇴직연금 납입기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20조(부담금의 부담수준 및 납입 등) ①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현금으로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한다.

1. DC형 퇴직연금제도하의 출산휴가, 육아휴직 사용 직원의 연간 퇴직연금 부담금 계산방법

출산휴가, 육아휴직 등 휴업, 휴직 기간이 있는 경우 해당 기간의 임금을 제외한 연간 임금 총액을 해당 기간을 제외한 기간으로 나눈 금액을 부담금(아래 산식 참조)으로 납부하여야 함.

휴직기간 중 지급된 임금총액을 제외한 연간 임금총액

12 - 휴직기간

2. DC형 퇴직연금제도하의 출산휴가, 육아휴직 사용 직원의 월 퇴직연금 부담금 계산방법

* 육아휴직 기간 동안의 월별 퇴직연금 부담금(육아휴직기간 7월~12월 가정시)

: $[(1\text{월} \sim 6\text{월의 임금 총액}) / 6\text{개월}] / 12\text{개월}$

- 출산휴가기간, 육아기근로시간단축기간, 개인질병 휴직 등에 대한 퇴직연금 부담금도 육아휴직기간에 대한 부담금 계산방식과 동일하게 산출함.
- 출산휴가기간, 육아기근로시간단축기간 등에 일부 임금이 지급된다 하더라도 정상적 급여에 해당하지 않아 출산휴가 등의 개시전 임금을 기준으로 부담금을 산정함.
- 1월 1일자로 육아휴직에 들어가는 등 그 해 부담금을 계산할 수 있는 정상적 임금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전년도에 지급받은 임금을 기준으로 부담금을 산정하면 됨.

2. 평균임금과 퇴직급여 - DC형 퇴직급여 산정

사례 검토

DC형 퇴직연금 부담금 산정사례 1

조건) 24년 6월 30일까지 근무하고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육아휴직에 들어가는 경우

산정방법) (24년 1월부터 ~ 6월까지 임금 합계) / 6개월 = 연 부담금

연 부담금 / 12개월 = 월 부담금

24년 7월 1일부터 매월 월 부담금 납부

DC형 퇴직연금 부담금 산정사례 2

조건) 24년 2월 10일까지 근무하고 2월 1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육아휴직에 들어가는 경우

산정방법) (24년 1월부터 ~ 2월 10일까지 임금 합계) / 1.344개월* = 연 부담금

***1.344개월 = 1개월(1월) + 10일(2월의 근무일수) / 29일(2월의 총일수)**

연 부담금 / 12개월 = 월 부담금

24년 2월 11일부터 29일까지의 부담금은 상기 월부담금을 일할계산하여 납부, 이후 매월 월 부담금 납부

(1) 1월~2월 명절휴가비를 지급받아 1/12를 부담금으로 납입한 경우 임금합계에서 명절휴가비 제외

(2) 하반기 명절휴가비 지급시점에(휴직자에게 명절휴가비가 지급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1회 지급분 / 12개월의 부담금을 별도 납입하는 것이 필요

(3) 명절휴가비를 지급받지 못하고 바로 휴직에 들어간 경우에는 전년도 명절휴가비 기준, 상하반기 각 1회 별도 적립 필요(1회 지급분/12*2회(상하반기 각 1회씩 별도 적립))

3. 임금의 일할계산

관련근거 및 사례

근로기준법 제43조(임금 지급) ①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임금의 일할계산 방법

[2024년 2월 19일까지 근무 후 퇴사시 임금 계산방법]

1) 시급 계산 후 일할계산

- ① (기본급 + 제수당(시간외수당 제외)) / 209시간 = 시급, (가족수당은 월일수 기준 일할계산**)
- ② 시급 * 8시간 * (근무일수 + 주휴일수), 다만, 마지막주 금요일까지 근무한 경우 그 주의 주휴수당 미발생(익월 발생)

2) 월 일수로 나누어 일급 구한 후 일할계산

- ① (기본급 + 제수당(가족수당 포함, 시간외수당 제외)) / 29일(2월의 근무일수) = 일급
- ② 일급 * 2월의 근무기간(19일)

- 1) 원칙 : 취업규칙, 운영규정이 정하는 방식에 따라 상기 1, 2번의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하여 일할계산 함.
(다만,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발령일 기준 월액 일할 계산으로 명시되어 있음.**)
- 2) 상기 원칙에도 불구하고, 신규 입사 후 얼마 안되어 퇴사하는 직원 등이 2번으로 계산하여 하루 일급 등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1번으로 계산, 지급하여야 함.
- 3) **공무원의 경우 임용시점을 기준으로 가족수당 일할계산(그 달의 총일수 기준 일할계산)

3. 임금의 일할계산

참고 - 국민신문고 답변 내용

국민신문고 답변 내용

국민신문고 고용노동부 답변내용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lc_minwon/lc_quick_internet_view.do?idx=201909300934397201000)

질의

세후 195만원 정도 받는 직장인인데, 10월달 11일까지만 일을 하기로 했습니다. 급여 계산은 얼마를 받아야하는건지, 쉬는날 제외하고 최저시급으로 준다는데 그게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답변

우리부 행정해석은 월급제 근로자는 월의 대소(28일~31일)나 월의 소정근로일수 및 휴일수에 관계없이 소정근로시간을 정상적으로 근로한 경우에는 정해진 월급액을 받는 자이므로, 별도의 자체규정이 없는 한 근로일수에 대하여 일할 계산지급할 수 있으며, 별도의 자체규정에 명시된 바 있다면 동 규정에 따라야 하며, (근기 1455-24422, 1981.8.11.) ○ 월급 일할계산 시 ‘월급액/역일수×1월 미만의 근무기간’ 또는 ‘월급액/소정근로일(근로일이 아니나 유급으로 처리되는 날 포함)×근로일수(근로일이 아니나 유급으로 처리되는 날 포함)’의 방법으로 일할계산하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귀하가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상기의 행정해석대로 임금을 일할계산하여 지급받으시기 바라며 귀하의 임금이 최저시급이 아닌데(월금으로 산정 시 최저시급 상향임금) 최저시급으로 지급하는 경우라면 임금체불의 여지가 있습니다.

[참고] 임신중 근로시간 단축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비교

비교표

구분	임신중 근로시간 단축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근거법령	근로기준법 제74조 제7항 및 제8항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의2~제19조의4
대상	임신 12주 이내, 36주 이상 임신 여성	8세 이하 또는 초등 2학년 자녀가 있는 남녀 직원
기간	상동	1년 이내(3개월 이상 사용), 육아휴직 미사용시 해당 미사용시간만큼 추가사용가능
근로계약서	재작성 필요 없음.	재작성 필요(변경되는 근로시간, 감액되는 임금, 적용기간 등 표시하여 재작성)
단축시간	일 2시간 이내(일 6시간 근무까지 단축 가능)	주15시간~35시간 범위내에서 근로시간 편성 (일 1시간~5시간까지 단축가능)
임금감액	불가	단축되는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감액 가능
임금감액방법	불가	1) 통상임금에 한해 감액 가능 - 가족수당, 명절휴가비 등 비통상임금성 제수당은 감액 불가 2) 예시 - 월 통상임금 / 40시간 * 단축 후 근로시간 = 단축 후 월 통상임금
연장근로	불가	근로자가 명시적으로 청구하는 경우에 한해 주12시간 범위내에서 시행 가능
연장근로수당 지급여부	단축으로 일 6시간 근무 중 불가피하게 일 8시간 근무가 발생하더라도 연장근로수당 미발생	단시간근로자로 근로조건이 변경되었기에 단축 후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경우 1.5배의 연장근로수당 지급 필요

4.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근로자의 임금 감액 방법

사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자의 임금 지급방법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할 경우 교통비, 식대를 단축된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삭감하는 것이 타당한지

회시번호 : 여성고용정책과-2060, 회시일자 : 2018-05-16

【회 시】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근무자에 대해서는 단축된 시간에 비례하여 임금을 삭감할 수 있는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에 의하면 통상임금을 정기적·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해 지급하기로 정한 금액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통상임금은 단축된 시간에 비례하여 삭감하고 그 외의 임금은 삭감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 교통비, 식대가 실제 출근일수와 중식일수에 맞추어 실비변상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라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 동안 출근일수가 감소하거나 단축된 근로시간이 중식을 하지 않을 정도가 아닌 한 전액 지급이 타당하며, **교통비와 식대가 모든 근로자에게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된다면 통상임금에 해당하므로 단축된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감액하여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근로자가 주 40시간에서 주 20시간으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하면 사업장에서 지급해야 하는 임금액이 얼마인지

회시번호 : 여성고용정책과-1776, 회시일자 : 2018-04-27

【회 시】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근무자에 대해서는 단축된 시간에 비례하여 임금을 삭감할 수 있는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에 의하면 통상임금은 정기적·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해 지급하기로 정한 금액이라고 정의하고 있으므로 통상임금은 단축된 시간에 비례하여 삭감하고 그 외의 임금은 삭감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 구체적인 자료가 없어 정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문의하신 내용에 의하면 귀하 소속 사업장의 기본급은 통상임금으로서 단축된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삭감하고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고, 연장근로와 야간근로를 하지 않아도 연장수당과 야근수당이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되었다면 이 수당 역시 통상임금의 성격이 강하므로 단축된 시간에 비례하여 삭감하고 지급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

- **명절급여도 근로와 무관하게 특정 시점에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만 지급된다면 통상임금으로 볼 수 없으나, 특정시점에 퇴직하더라도 그 근무일수에 따라 지급되었다면 고정성이 인정되므로 통상임금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5. 휴직자에 대한 명절휴가비 지급여부

사례

3. 휴직자에 대한 명절휴가비 지급여부

- 1) 지급조건 : 지급일 현재 재직중인 근로자에 한해 지급
- 2) 재직중인 근로자의 의미 : 휴직중인 근로자를 포함한 모든 재직근로자를 의미할 수도 있고, 현재 근로를 제공하기 위해 출근 중에 있는 근로자를 의미할 수도 있음.(휴직 근로자 등 제외)
- 3) 공무원 사례
 - 출산휴가자에게는 지급 / 육아휴직 자에게는 미지급
 - 업무상 재해로 요양중인 자에게는 지급 / 기타 휴직자·정직·직위해제 중인 자에게는 미지급
- 4)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 : 출산전후휴가자, 육아휴직자, 기타 휴직자 제외(단, 대체인력, 유급병가자 지급 가능)
- 5) 노동관계법 적용방법 : 휴가/휴직자에 대한 적용기준은 내부 운영규정, 취업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름.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의3(명절휴가비) ① 설날 및 추석날(이하 “지급기준일”이라 한다) 현재 재직 중인 공무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명절휴가비를 지급한다. 다만, 제7조제1항 단서에 해당되는 사람에게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② 명절휴가비는 지급기준일 현재 월봉급액의 60퍼센트를 보수지급일 또는 지급기준일 전후 15일 이내에 각 기관장이 정하는 날에 각각 지급한다. 다만, 지급기준일 현재 징계처분에 따른 감봉으로 봉급이 감액 지급되는 경우에는 감액되기 전의 월봉급액을 기준으로 지급한다.

6. 근로시간 및 연장근로 / 기타 휴게시간 관련 쟁점

법정(기준) 근로시간

구 분	법정 근로시간	연장근로	야간근로 (22:00-06:00)	휴일근로	갱내 근로
남 성	1주40, 1일 8시간	1주 12시간 당사자 합의	제한없음	합 의	제 한 없 음
여 성	"	"	본인동의	본인동의	일 부 허 용
임신중인 여 성	"	금 지	명시적청구 장관 인가	명시적청구 장관 인가	"
산후 1년 이하인 자	"	1주 6, 1일2시간 1년 150시간 당사자 합의	본인동의 장관인가	본인동의 장관인가	"
18세 미만 남 여	1주35, 1일7시간	1주 5, 1일1시간 당사자 합의	본인동의 장관인가	본인동의 장관인가	"

근로기준법

제50조(근로시간) ①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제53조(연장 근로의 제한) ①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7. "1주"란 휴일을 포함한 7일을 말한다.

6. 근로시간 및 연장근로 / 기타 휴게시간 관련 쟁점

연장근로의 개념

1. 특정토요일에 8시간 근로하였으나 주중에 휴일 등으로 총근로시간이 44시간 미만인 경우 연장근로 발생여부
(2000.9.28, 근기 68207 - 2990)

[회시] 주중에 휴일 또는 휴가가 있어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한 경우 그러한 휴일 또는 휴가기간은 실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아니함. (중략) 특정주의 토요일에 8시간을 근로하였다고 하더라도 주중에 휴일 또는 휴가기간이 있어 당해 1주간의 총 근로시간이 44시간을 초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당해 토요일에 행해진 8시간 근로에 대하여는 연장근로 수당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근로기준법 위반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함.

2. 지각한 근로자가 업무의 종료시각 후 추가근무시 연장근로로 볼 수 없다. (2002.8.21, 근기68207-2776)

사례 1 – 연장근로 발생여부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월
10시간	10시간	10시간	10시간				

사례 2 – 연장근로 발생여부

08:00~12:30(4h)	지각
12:30~17:00(4h)	정규근무
17:00~21:30(4h)	추가근무

사례 3 – 연장근로 발생여부

08:00~12:30(4h)	반차
12:30~17:00(4h)	정규근무
17:00~21:30(4h)	추가근무

6. 근로시간 및 연장근로 / 기타 휴게시간 관련 쟁점

▶ 변경 행정해석

<변경 대법원 판례 및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주 최대 근로시간을 1주 52시간으로 단축하면서 노동부는 1일 8시간을 초과해 근무한 시간이 1주 12시간을 초과하면 1주 근로시간이 52시간 이내여도 근로기준법 제53조(연장근로의 제한), 이른바 52시간제 위반으로 보았으나, 최근 대법원은 1주 근로시간이 52시간 이내라면 1일 8시간을 초과해 근무한 시간이 1주 12시간을 초과하더라도 근로기준법 제53조 위반이 아니라는 입장을 보였다. 다만 대법원은 1일 8시간을 초과해 근무한 시간도 여전히 연장근로에는 해당한다고 하였던 바, 연장수당은 기존과 동일하게 1일 8시간을 초과해 근무한 시간에 대하여도 지급되어야 한다.

요일	월	화	수	목	금	토	일	합계
근로시간	8	8	8	8	7	-	-	39
연장근로시간	3	4	3	3	-	-	-	13
기존 노동부 행정해석	연장근로시간이 1주 12시간 초과이므로 1주 총 근로시간이 52시간 이내여도 근로기준법 제53조 위반							
최근 대법원 판례	연장근로시간이 1주 12시간 초과여도 1주 총 근로시간이 52시간 이내이므로 근로기준법 제53조 위반 아님							

6. 근로시간 및 연장근로 / 기타 휴게시간 관련 쟁점

사례 4 - 연장근로 발생여부

일요일=주휴일 가정, 토요일 근무시

월	화	수	목	금	토	일
		휴일/휴가			8시간	

무급휴무일인 토요일에 근로를 함으로써 당해 주에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였다면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회시번호 : 근로기준과-2325, 회시일자 : 2004-05-10)

[회시] 개정 근로기준법 제49조에 따르면 1주간의 근로시간은 40시간을, 1일의 근로시간은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특정주의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8시간씩 근로할 경우 근로를 제공하지 않는 **토요일(일요일은 주휴일)은 노사가 휴일로 정하지 않는 이상 '무급휴무일'이 될 것으로 사료됨.** 이 때, 무급휴무일인 토요일에 근로를 함으로써 당해 주에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였다면 동법 제55조의 규정에 따라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만, 개정법 시행 후 3년간은 1주의 연장근로중 최초의 4시간에 해당하는 시간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25(25%) 이상을 가산한 임금을 지급할 수 있을 것임.

일요일=주휴일 가정, 일요일 근무시

월	화	수	목	금	토	일
		휴일/휴가				8시간

6. 연장, 야간, 휴일근로의 보상

법정수당 계산방법

- ◇ 연장근로수당 : 1일 8시간 or 1주 40시간 초과하는 근무시 수당 : 50% 가산
- ◇ 야간근로수당 : 오후 10시부터 익일 6시까지의 근무시 수당 : 50% 가산
- ◇ 휴일근로수당 : 휴일에 근무시 수당 : 8시간 까지는 50% 가산, 8시간 초과시 100% 가산

근무일	시간	법정수당	수당계산방법
평일	18:00~22:00	연장	시급*시간*150%(100%+50%)
	22:00~24:00	연장+야간	시급*시간*200%(100%+50%+50%)
주휴일 (일요일)	09:00~18:00	휴일	시급*시간*150%(100%+50%)
	18:00~22:00	휴일+연장	시급*시간*200%(100%+50%+50%)
	22:00~24:00	휴일+연장+야간	시급*시간*250%(100%+50%+50%+50%)
휴무일 (토요일)	09:00~18:00	연장(주40시간 초과시)	시급*시간*150%(100%+50%)
	18:00~22:00	연장	시급*시간*150%(100%+50%)
	22:00~24:00	연장+야간	시급*시간*200%(100%+50%+50%)

6. 근로시간 및 연장근로 / 기타 휴게시간 관련 쟁점

휴게시간의 개념 및 관련 사례

1. 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시간)

- (1) 사용자는 ① 근로시간이 4시간일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② 도중에 주어야 하며,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2) 반차 사용시의 휴게시간
- (3) 연장근로시 저녁식사시간 부여 여부

[참고 :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이 아닌 업무의 시작 전 또는 업무가 끝난 후에 부여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

(회시번호 : 근로개선정책과-1773, 회시일자 : 2013-03-19)

- 2. 대기시간 중에 사업장 밖으로 나갈 수 없지만 사용자의 지휘 감독을 벗어나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다면 이는 휴게시간으로 인정할 수 있다.(2000.10.25, 근기 68207 - 3298)
- 3. 휴게제도 본래의 취지에 어긋나지 않는 한 휴게시간을 분할해 주어도 무방하다. (1992.6.25, 근기 01254 - 884)

6. 근로시간 및 연장근로 / 기타 휴게시간 관련 쟁점

연장근로 관련 사례

1. 연장근로의 제한에 대한 규정은 강행규정으로서 노사당사자가 합의하더라도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처벌을 받을 수 있다.(2004.1.7, 근로기준과 - 161)
2. 휴일의 근로가 역일을 달리하여 익일의 소정근로시간대까지 계속되는 경우 이를 전일 근로의 연장으로 볼 수 없다.(2003.3.31, 근기 68207 - 402)
3. 파업으로 인하여 법정근로시간 미달시 종업시간 이후의 근로시간에 대한 연장근로가산임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다.(2002.8.21, 근기 68207 - 2776)
4. 특정토요일에 8시간 근로하였으나 주중에 휴일 등으로 총근로시간이 44시간 미만인 경우 연장근로 발생여부(2000.9.28, 근기 68207 - 2990)
[회시] 주중에 휴일 또는 휴가가 있어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한 경우 그러한 휴일 또는 휴가기간은 실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아니함. (중략) 특정주의 토요일에 8시간을 근로하였다고 하더라도 주중에 휴일 또는 휴가기간이 있어 당해 1주간의 총 근로시간이 44시간을 초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당해 토요일에 행해진 8시간 근로에 대하여는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근로기준법 위반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함.
5. 지각한 근로자가 업무의 종료시각 후 추가근무시 연장근로로 볼 수 없다.(2002.8.21, 근기68207-2776)

6. 근로시간 및 연장근로 / 기타 휴게시간 관련 쟁점

연장근로 관련 사례

1. 근로자가 채권회수성과를 높여 성과수당을 더 받기 위하여 자기의 의사에 의하여 연장근로를 했다면 이에 대해서는 연장근로가산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다.(2005.8.22, 근로기준과-4380)
2. 연장근로를 실시하지 않겠다는 의사표시를 분명히 하고 실제 연장근로를 시키지 않는다면 별도의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2000.10.12, 근기 68207 - 3155)(2003.3.13, 근기68207-286)

[회시] 귀 회사가 사무직 근로자에 대하여 기왕에 실시하던 연장근로를 앞으로 실시하지 않겠다는 의사표시를 분명히 하고(예 : 게시판공고, 근로자 개별통지 등), 실제 연장근로를 시키지 않는다면 별도의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근로기준법 위반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함.

3. 현실적으로 연장근로가 필요한 경우라면 연장근로신청 및 회사의 승인이 없었더라도 실제 연장근로 시간에 상당한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서울중앙지법2013가소5258885, 2014.01.07)

[요지] 연장근로에 관하여 사용자로서는 근로자가 근무시간중에 열심히 일하지 않고 연장근로를 발생시키는 것을 원하지 않고, 또 연장근로의 경우 지급할 임금에 할증률이 적용되므로 연장근로를 가급적 방지할 필요가 있으며, 연장근로가 필요한 경우에도 사용자측의 승인을 받도록 하여 사용자의 지휘, 감독하에 연장근로가 이루어지도록 통제할 필요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연장근로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사용자측이 싫어하기 때문에 사실상 연장근로신청을 포기하는 분위기에 있는 직장이라면 연장근로에 대한 사용자의 승인을 얻지 않았거나 연장근로신청을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연장근로한 시간에 대하여는 그에 상당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할 것이다.

7. 휴일근로

휴일 비교

구분	법정휴일	약정휴일
휴 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u>주휴일(주 1일)</u> ▪ <u>근로자의 날(5월 1일)</u> ▪ <u>관공서 공휴일**</u>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공서 공휴일** ▪ 재단, 기관, 시설창립일
특 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급휴일 ▪ 주휴일 및 근로자의 날은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나, 관공서 공휴일은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 ▪ 주휴일 및 관공서 공휴일은 주 15시간 이상 근무자에 한해 적용되나, 근로자의 날은 근로시간 무관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추가 약정 휴일의 운영 여부는 시설 결정 사항임.

(1) 휴일과 휴가는 근로자가 근무를 하지 않고 쉬다는 의미에서는 동일하지만, 휴일은 본래 근무할 의무가 없는 날인데 반하여, 휴가는 본래 근무해야 할 날이지만 근로자의 신청에 의해 특별히 근로자의 근로의무가 면제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음.

(2) ** 관공서 공휴일의 단계적 법정휴일 적용 : 상시 근로자 300인 이상 사업장 2020.1.1
상시 근로자 30인 이상 사업장 2021.1.1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 2022.1.1

7. 휴일근로

법정휴일 및 기타 근로조건 적용기준

구분	근로시간		상시근로자수	
	주15시간 이상	주15시간 미만	5인 이상	5인 미만
유급주휴일	○	X	○	○
관공서공휴일	○	X	○	X
근로자의 날	○	○	○	○
연차유급휴가	○	X	○	X
퇴직급여	○ (다만, 1년 이상 근무시 적용)	X	○	○
연장, 야간, 휴일 가산수당	○	○	○	X

7. 휴일근로

관공서 공휴일

구분	내용
근로기준법	<p>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p> <p>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p>
근로기준법 시행령	<p>제30조(휴일) 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p> <p>② 법 제55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이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각 호 (제1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공휴일 및 같은 영 제3조에 따른 대체공휴일을 말한다.</p>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p>제2조(공휴일) 관공서의 공휴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재외공관의 공휴일은 우리나라의 국경일 중 공휴일과 주재국의 공휴일로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일요일 국경일 중 3·1절, 광복절, 개천절 및 한글날 1월 1일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날 (음력 12월 말일, 1월 1일, 2일) 삭제 <2005. 6. 30.> 부처님오신날 (음력 4월 8일) 5월 5일 (어린이날) 6월 6일 (현충일)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날 (음력 8월 14일, 15일, 16일) 12월 25일 (기독탄신일) 10의2. 「공직선거법」 제34조에 따른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 11. 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

7. 휴일근로

관공서 공휴일

구분	내용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p>제3조(대체공휴일)</p> <p>① 제2조제2호부터 제10호까지의 공휴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제2조 각 호의 공휴일이 아닌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대체공휴일로 한다.</p> <p>1. 제2조제2호(국경일)·제6호(부처님오신날)·제7호(어린이날) 또는 제10호(기독탄신일)의 공휴일이 토요일이나 일요일과 겹치는 경우</p> <p>2. 제2조제4호(설연휴) 또는 제9호(추석연휴)의 공휴일이 일요일과 겹치는 경우</p> <p>3. 제2조제2호·제4호·제6호·제7호·제9호 또는 제10호의 공휴일이 토요일·일요일이 아닌 날에 같은 조 제2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다른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p> <p>② 제1항에 따른 대체공휴일이 같은 날에 겹치는 경우에는 그 대체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 까지 대체공휴일로 한다.</p> <p>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대체공휴일이 토요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을 대체공휴일로 한다.</p> <p>제4조(임시공휴일의 지정) 제2조제11호에 따른 공휴일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p>

7. 휴일근로

관공서 공휴일예의 임금

휴무일 등이 관공서 공휴일과 겹칠 경우 해당일을 유급으로 처리하여야 하는것은 아니다.

회시번호 : 임금근로시간과-743, 회시일자 : 2020-03-30

【회 시】 □ 관공서 공휴일을 근로기준법상 유급휴일로 보장하도록 한 법 개정 취지는 공무원과 일반근로자가 공평하게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써, 근로자가 관공서 공휴일에 휴식을 취하더라도 임금의 삭감이 없도록 하여 온전히 휴식을 보장하기 위해 유급으로 정한 것입니다. 만약 휴무일 등과 같이 애초부터 근로제공이 예정되어 있지 않은 날이 관공서 공휴일과 겹칠 경우에 추가 휴일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해석할 경우 법 개정 취지를 넘어 근로자가 실질적으로 누리는 휴일 수는 동일함에도 추가적인 비용부담만 강제하게 되는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휴무일 등 애초부터 근로제공이 예정되어 있지 않은 날이 관공서 공휴일과 겹칠 경우 해당 일을 유급으로 처리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일급제 또는 시급제 근로자가 근로자의 날에 근로를 제공한 경우 임금(100%)에 휴일근로가산임금(150%)을 추가 지급하여야 한다. 회시번호 : 근로기준과-848, 회시일자 : 2004-04-29

【회 시】 귀 질의서상의 공공근로사업 참여자가 1일 단위 또는 시간 단위로 임금을 계산하여 매월 지급하는 일급제 또는 시급제 근로자인 경우라면 당해 사업(장)의 통상의 1일 근로를 제공하였을 때 지급해야 할 임금을 지급하고 휴일을 부여해야 할 것이며, 만일, 유급휴일인 근로자의 날에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근로제공이 없더라도 지급받을 수 있었던 임금(100%)에 근로기준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휴일근로가산임금(150%)을 추가 지급하여야 할 것임.

다만, 매월 고정적인 임금을 지급받는 월급제 근로자에게는 당해 월의 소정근로일수나 유급휴일수 또는 근로자의 날이 월요일에서 일요일 사이의 어느 날에 속하는지에 관계없이 소정의 월급금액을 지급하면 될 것임.

7. 휴일근로

관공서 공휴일에의 임금

일일단위로 근로계약이 체결되는 일용근로자의 경우 원칙적으로 유급휴일 부여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건설일용근로자의 근로자의 날 적용관련] 회시번호 : 근로개선정책과-6257, 회시일자 : 2014-11-12

【회 시】 1.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은 5월 1일을 근로자의 날로 하고 이 날을 근로기준법에 의한 유급휴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때 유급휴일은 근로를 제공했다라면 지급받을 수 있는 금액을 지급받으면서 근로제공의 의무는 없는 것으로 정해진 날을 의미합니다.

- 이와 관련 유급휴일의 부여요건에 대해 법원은 “근로기준법상의 휴일제도는 연속된 근로에서의 근로자의 피로회복과 건강회복 및 여가의 활용을 통한 인건으로서의 사회적·문화적 생활의 향유를 위해 마련된 것으로 이러한 유급휴일 제도를 규정한 규범적 목적에 비추어 보면 근로의 제공 없이도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도록 한 유급휴일의 특별규정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평상적인 근로관계, 즉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해 왔고 또한 계속적 근로제공이 예정되어 있는 상태가 전제되어 있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09.12.24. 2007다73277 등 판결참조)

2. 따라서 근로자의 날은 평상적인 근로관계를 전제로 근로계약 기간 내에 있어야 유급휴일로 될 수 있는 바, 일일단위로 근로계약이 체결되는 일용근로자의 경우 원칙적으로 유급휴일 부여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할 것입니다.

- 다만 근로계약을 반복 갱신해 근로자의 날을 전후해 계속 근로한 것으로 인정될 수 있는 경우라면 그 기간 내 포함된 근로자의 날에 대해서는 유급휴일을 부여해야 할 것이므로(근기 68207-2505, 2001.8.6. 참조), 이에 대해서는 근로계약 및 근로실태 등에 대한 구체적 사실관계를 검토해 판단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결론적으로 상기 사례를 종합하여 보면 시급제·일급제 근로자의 경우 휴무일과 근로자의 날이 겹쳐 휴무시 유급휴일 수당 100%가 추가 지급되어야 하나, 관공서 공휴일에 휴무시에는 별도 수당의 추가 지급의무가 발생하지는 않는다.

7. 휴일근로

관공서 공휴일예의 임금

<관공서 공휴일 유급휴일화에 따른 급여처리 방안>('22년 : 5인 이상 사업장 적용)

구분	관공서 공휴일과 소정근로일 중복 시	관공서 공휴일과 휴무일 중복 시	근로자의 날과 휴무일 중복시
월급제 근로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휴무 시 급여 변동 X 근무 시 휴일근로수당 지급 (×1.5) <p>예) 소정근로일이 월~금(일-주휴일)인 근로자 → 월요일이 관공서 공휴일인 경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휴무 시 급여 변동 X 근무 시 휴일근로수당 지급 (×1.5) <p>예) 소정근로일이 월~금(일-주휴일)인 근로자 → 토요일이 관공서 공휴일인 경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휴무 시 급여 변동 X 근무 시 휴일근로수당 지급 (×1.5) <p>예) 소정근로일이 월~금(일-주휴일)인 근로자 → 토요일이 근로자의 날인 경우</p>
시급제/일급제 근로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휴무 시 1일 분 급여지급 (×1) 근무 시 1일 분 급여에 더하여 휴일근로수당 지급 (×2.5) <p>예) 소정근로일이 월, 수, 금(일-주휴일)이고 1일 8시간 근로하는 시급제 근로자 → 월요일이 관공서 공휴일인 경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휴무 시 급여 추가 지급 X 근무 시 1일 분 급여에 더하여 휴일근로수당 지급 (×1.5) <p>예) 소정근로일이 월, 수, 금(일-주휴일)이고 1일 8시간 근로하는 시급제 근로자 → 화요일이 관공서 공휴일인 경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휴무 시 휴일수당 지급 (×1) 근무 시 1일 분 급여에 더하여 휴일근로수당 지급 (×2.5) <p>예) 소정근로일이 월, 수, 금(일-주휴일)이고 1일 8시간 근로하는 시급제 근로자 → 화요일이 근로자의 날인 경우</p>

※ 참고 : 휴일근로수당 산정 시, 1일 8시간 초과분에 대하여는 0.5배의 추가 가산을 해주어야 함.

7. 휴일근로

주휴일

1. 사용자는 1주간의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한**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휴일로 주어야 함.
결근시 주휴수당 공제가 가능하며, 주휴일의 경우 **사전대체 가능함**.
2. 1회는 원칙적으로 역법상의 하루를 의미하지만, 3교대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계속하여 24시간의 휴식을 주면 됨.
3. 주휴일은 반드시 **일요일이 아니라도 무방하며**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의함.

휴일대체 사례 1 – 금/일 대체시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월
			32시간	휴무		8시간	

휴일대체 사례 2 – 일/월 대체시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월
				40시간		8시간	휴무

휴일대체 사례 3 – 관공서 공휴일 대체시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월
			공휴일근무	40시간			

7. 휴일근로

휴일 관련 사례

1. 주휴일 및 월차유급휴가 부여요건을 충족하였으나, **주휴일 발생** 및 유급휴가 청구권 **발생일 이전에** 각각 근로관계가 종료된 경우에는 주휴일 및 월차유급휴가 청구권은 발생하지 않는다. (2005.3.3, 근로기준과 - 1186) → **“금요일이 마지막 근무일 경우의 주휴수당 발생여부”**
2. 근로자가 소정의 근로일수를 모두 근무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사용자에게 유급휴일로 처리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없을 뿐 휴일 자체가 보장되지 않는다고 볼 수 없다. (2004.6.25, 대법 2002두2857)
3. **휴일과 휴일이 겹치는 경우 반드시 2일분의 임금을 지급해야 할 책임이 있는 것은 아니다.** (1987.7.24, 근기1455-23011)
4. 휴일과 휴가가 겹치는 경우(1989.3.8, 근기01254-3488), 연차휴가 및 생리휴가는 반드시 영업일 기준으로 부여해야 하나, 그 밖의 휴가에 있어 휴가의 연장 여부는 취업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를 수 있다.
5. 지각, 조퇴, 외출 3회를 결근 1일로 취급하여 주휴, 연차유급휴가 등에 영향을 미치게 하는 것은 부당함.(1984.10.20, 근기1451-21279)

7. 휴일근로

휴일 관련 사례

[2021. 8. 4일자 행정해석 변경내용]

변경 전	변경 후
1주간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아울러 <u>1주를 초과하여 (예 : 8일째) 근로가 예정되어 있는 경우</u> 주휴수당 발생(근로기준정책과-6551, 2015.12.7. 등)	1주간 근로관계가 존속되고 그 기간 동안의 소정근로일에 개근하였다면 <u>1주를 초과한 날(8일째)의 근로가 예정되어 있지 않더라도</u> 주휴수당 발생 (임금근로시간과-1736, 2021-08-04)

※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도록 하고(제55조①), 시행령에서는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도록 규정(제30조①)하고 있으므로, 법령상 그 다음 주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어야 한다는 내용은 없으며,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한다는 규정은 최소한 1주 동안의 근로관계 존속을 전제로 한다고 봄이 타당함.

※ 연차 유급휴가(제60조)의 경우에도 “1년간 80%이상 출근”이라는 요건에서 1년간 근로관계 존속을 요하는 것으로 보고 있음.

7. 휴일근로

근로자의 날

1. “근로자의날제정예관한법률”에 의해 5월 1일로 규정되어 있으며, 주휴일과 함께 법정 휴일에 해당함.
2. 다만, 주휴일과는 달리 **휴일대체제도를 적용할 수는 없음.**
(휴일근로시 통상임금의 50%를 가산지급)
3. 보상휴가제도는 적용 가능함.

근로자의 날 대체 - 행정해석

근로자의 날에 대한 보상휴가제 실시 가능 여부

회시번호 : 임금근로시간정책팀-2363, 회시일자 : 2007-07-13

【회 시】○ 보상휴가제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 제57조에서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56조에 따른 연장근로, 야간근로 및 휴일근로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에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56조의 규정에 따라 가산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는 ‘휴일근로’에는 주휴일 뿐만 아니라 「근로자의날제정예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근로자의 날’도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근로자의 날에 근로한 것에 대하여는 임금(가산수당 포함)을 지급하는 것에 갈음하여 동등한 가치의 휴가를 부여할 수 있다 할 것임.

○ 따라서 귀 질의상 공단이 노사간 서면합의로 보상휴가제를 실시하기로 하였다면 귀청의 ‘을설’ 의견과 같이 **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이므로 그 날 근로한 것에 대하여는 휴일근로가산수당을 지급하거나 이에 갈음하여 보상휴가제를 실시할 수 있다고 사료됨.**

7. 연장, 야간, 휴일근로의 보상

법정수당 계산방법

- ◇ 연장근로수당 : 1일 8시간 or 1주 40시간 초과하는 근무시 수당 : 50% 가산
- ◇ 야간근로수당 : 오후 10시부터 익일 6시까지의 근무시 수당 : 50% 가산
- ◇ 휴일근로수당 : 휴일에 근무시 수당 : 8시간까지는 50% 가산, 8시간 초과시 100% 가산

근무일	시간	법정수당	수당계산방법
평일	18:00~22:00	연장	시급*시간*150%(100%+50%)
	22:00~24:00	연장+야간	시급*시간*200%(100%+50%+50%)
주휴일 (일요일)	09:00~18:00	휴일	시급*시간*150%(100%+50%)
	18:00~22:00	휴일+연장	시급*시간*200%(100%+50%+50%)
	22:00~24:00	휴일+연장+야간	시급*시간*250%(100%+50%+50%+50%)
휴무일 (토요일)	09:00~18:00	연장(주40시간 초과시)	시급*시간*150%(100%+50%)
	18:00~22:00	연장	시급*시간*150%(100%+50%)
	22:00~24:00	연장+야간	시급*시간*200%(100%+50%+50%)

7. 연장, 야간, 휴일근로의 보상

보상휴가제/휴일대체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근로기준법 제57조(보상휴가제)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56조에 따른 연장근로·야간 근로 및 휴일근로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다.

(1) 주휴일의 사전대체 제도는 근로기준법에 규정이 되어 있지는 않지만 ① 취업규칙에 근거하고 ② "사전에 (최소 24시간 이전)"에 미리 특정 휴일과 특정 소정 근로일을 대체하기로 동의를 얻은 후 원래 쉬어야 할 특정 휴일은 일하고, 소정 특정근로일에 휴일을 하는 경우를 의미함.

(2) 단, 관공서 공휴일의 사전대체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로 적용 가능함.

보상휴가/휴일대체 비교

구분	시행방법	보상방법	예시	적용대상
휴일대체	①주휴일:취업규칙에 규정 & 24시간 전 휴일 특정하여 통보 ②관공서공휴일: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	휴일변경 1:1 대체	휴일 근무시 무조건 1일의 대체휴일 부여(예: 일요일에 4시간 근무를 했다 하더라도 휴일 1일 부여 필요)	휴일 -주휴일 -관공서공휴일
보상휴가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	가산율(50%) 적용	2시간 연장근로시 3시간(2시간 *1.5)의 보상휴가 부여(시간단위 부여 가능)	연장, 야간, 휴일근로

8. 연차유급휴가

1년 이상 근속자

- ✓ 전년도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 대하여 **연간 15일**의 연차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며,
- ✓ 3년 이상 계속 근로하는 경우에는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근로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의 휴가를 가산,
- ✓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일수는 **25일 한도**로 함.
- ✓ 만일 전년도 출근율이 **80% 미만이라면 전년도 개근한 달에 대해 1일의 휴가**를 주면 됨.

연차휴가일수 계산방법			
연차	발생개수	연차	발생개수
1년차		월만근시 1일, 총 11일 월만근연차	
2년차	15	3년차	15
4년차	16	5년차	16
6년차	17	7년차	17
8년차	18	9년차	18
10년차	19	11년차	19
12년차	20	13년차	20
14년차	21	15년차	21
16년차	22	17년차	22
18년차	23	19년차	23
20년차	24	21년차	24
22년차	25	23년차	25
24년차	25	25년차	25

8. 연차유급휴가

1년 미만 근속자

- ✓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해서는 **월 개근시 매월1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함.
- ✓ 이를 사용한 경우 그 일수만큼 이듬해 최초로 부여되는 15일의 연차휴가에서 공제할 수 있었으나,(예컨대, 근로자가 입사 첫해에 연차휴가를 총 10일을 사용했다면 만 1년 근무시 주어지는 연차휴가는 15일에서 10일을 뺀 5일이 되었음.)
- ✓ 근로기준법의 개정(2018.5.29. 시행)으로 이를 공제할 수 있도록 명시한 조항이 삭제됨(근로기준법 제60조 제3항 삭제)에 따라 1년 미만 근속기간에 부여받게 되는 **월만근연차 총 11일이 별도로 주어지게** 되고, 따라서 만 1년 근무시 연차휴가는 1년 미만 근속기간에 대한 연차휴가 **11일과 만 1년이 되는 시점에 발생하는 연차휴가 15일을 합하여 총 26일이 발생**하게 됨.
(2017.5.30일 입사자부터 적용)

월만근연차의 발생과 계산방법

(단위 : 일수)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개근	개근	개근	개근	개근	개근	개근	개근	개근	개근	개근	미발생
	1	1	1	1	1	1	1	1	1	1	1

8. 연차유급휴가

근로기준법 개정 전후 최초 1년 근무시 연차휴가일수 비교

구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월
기존		1	1	1	1	1	1	1	1	1	1	1	15 (11+4)
개정		1	1	1	1	1	1	1	1	1	1	1	26 (11+15)

2017.5.30일 이후 입사자부터 적용

Q&A

✓ 1년 근무 후 퇴사시 발생하는 연차의 총 개수는 ?

- 1) 1년 미만 근무 기간에 대해서는 11개의 월만근연차 발생
- 2) 1년 근무 후 바로 퇴사하는 경우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는가?
- 3) 1년 근무 후 바로 퇴사하는 경우 발생하는 연차휴가일수는
 - 11개인가?
 - 26개인가(11개+15개)?

8. 연차유급휴가

1년 계약직 근로자 대법원 판례 요약(21.10.14)

- ✓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는 다른 특별한 정함이 없는 한 **그 전년도 1년간의 근로를 마친 다음 날 발생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그 전에 퇴직 등으로 근로관계가 종료한 경우에는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에 대한 보상으로서의 연차휴가 수당도 청구할 수 없다.
- ✓ 근로기준법 제60조는 **1년차에 11일, 2년차에 15일 주자는 의미로서**(최초 11일의 연차휴가 사용시 15일에서 공제하는 내용을 삭제한 것은 연차휴가가 줄어드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서) 이를 근거로 11일과 15일을 중첩적으로 적용된다고 해석할 이유는 없다.
- ✓ 중첩적으로 이를 적용할 경우 연차휴가일수는 **총 26일이 되고** 이는 가산휴가를 포함한 휴가 일수를 25일로 한정된 근로기준법과 충돌되고 장기근속 근로자와 비교하여 1년 계약직을 더 우대하는 결과가 되어 형평의 원칙에 반한다.
- ✓ 연차제도의 취지상 최초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가 **그 다음 해에도 근로관계를 유지하는 것을 전제로 하여 2년차에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는 취지**로 해석함이 타당하다.

8. 연차유급휴가

고용노동부 변경지침(21.12.16)

고용노동부는 근로기준법 제60조제1항에 따른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주어지는 15일의 연차휴가에 대한 행정해석을 변경하여 12.16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 앞으로는 1년간 근로관계가 존속하고, 80% 이상 출근해도, **그 1년의 근로를 마친 다음날(366일째) 근로관계가 있어야 15일의 연차가 발생하고**, 퇴직에 따른 연차 미사용 수당도 청구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을 변경한다.

① 1년간 80%의 출근율로 주어지는 15일의 연차는 그 1년간의 근로를 마친 “다음날” 발생하므로, **계속근로 1년 미만일 때 1개월 개근 시 1일씩 주어지는 연차도 그 1개월의 근로를 마친 “다음날” 발생한다.**

② 이번 판례는 계약직의 경우이나, 정규직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해석한다.

- 즉, **다음날인 366일째 정규직도 1년(365일) 근로한 후 퇴직하면 1년간 80%의 출근율에 따라 주어지는 15일의 연차에 대한 미사용 수당을 청구할 수 없고**, 근로관계 존속 후 퇴직하면 15일 연차 전부에 대해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다.

- 계속근로 1년 미만일 때 1개월 개근 시 1일씩 주어지는 연차도 그 1개월의 근로를 마친 다음날 근로관계 존속 후 퇴직해야 퇴직 전월의 개근에 대한 연차 미사용수당 청구가 가능하다.

③ **정규직이 마지막 근무하는 해에 1년(365일) 근무하고 퇴직하는 경우, 80% 출근율을 충족하더라도 그에 따라 주어지는 15일의 연차와 3년 이상 근속자에게 주어지는 가산 연차에 대한 미사용 수당을 모두 청구할 수 없다.**

8. 연차유급휴가

고용노동부 변경지침(21.12.16)

주요내용

변경
1

앞으로는 1년간 근로관계가 존속하고, 80% 이상 출근해도,
그 1년의 근로를 마친 다음날(366일째) 근로관계가 있어야 15일의 연차가 발생하고,
퇴직에 따른 연차 미사용 수당도 청구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을 변경한다.

사례

- 2024. 1.1 입사, 2024. 12. 31까지 근무 후 퇴사시(마지막 근무일 24. 12. 31) 24년 1년간 80% 이상 출근하였다 하더라도 15일의 연차휴가 미발생
- 휴가가 발생하는 25년 1월 1일에 퇴사자의 신분이기때문에 퇴사자에게 연차휴가가 발생할 수 없음.
- 25년 1월 1일까지 근로자 신분이 유지되어야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

8. 연차유급휴가

고용노동부 변경지침(21.12.16)

주요내용

변경
2

1년간 80%의 출근율로 주어지는 15일의 연차는 그 1년간의 근로를 마친 "다음날" 발생하므로, 계속근로 1년 미만일 때 1개월 개근 시 1일씩 주어지는 연차도 그 1개월의 근로를 마친 "다음날" 발생한다.

사례

- 2024. 1.1 입사, 2024. 06. 30까지 근무 후 퇴사시(마지막 근무일 24. 06. 30) 발생하는 월만근연차의 총 개수는 ?

(단위 : 일수)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1퇴사
개근	개근	개근	개근	개근	개근	
	→ 1	→ 1	→ 1	→ 1	→ 1	→ 퇴사로 인해 미발생

8. 연차유급휴가

고용노동부 변경지침(21.12.16)

주요내용

변경
3

이번 판례는 계약직의 경우이나, 정규직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해석한다.
- 즉, 정규직도 1년(365일) 근로한 후 퇴직하면 1년간 80%의 출근율에 따라 주어지는 15일의 연차에 대한 미사용 수당을 청구할 수 없고, 근로관계 존속 후 퇴직하면 15일 연차 전부에 대해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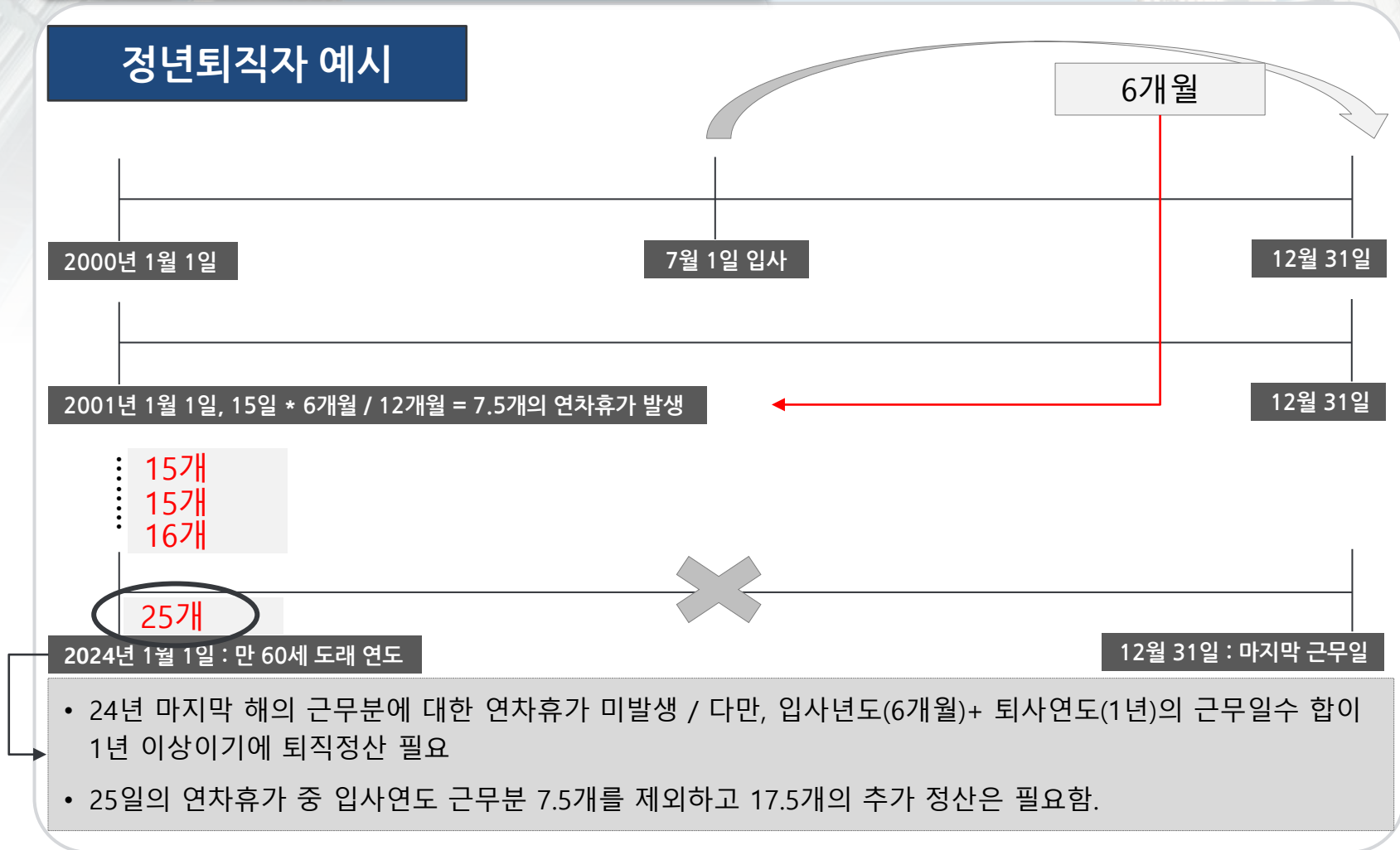
사례

- 하반기에 생일이 있어 24년에 정년이 도래하여 퇴직하는 경우, 퇴직년도 연차휴가의 발생여부?
 - 24년 하반기에 생일이 있는 정규직 직원의 정년퇴직일은 24년 12월 31일,
 - 25년 1월 1일까지 근로관계가 존속되어야 24년 근로분에 대한 연차휴가 25개(최대일수)가 발생하나, 24년 12월 31일자로 정년퇴직하게 됨에 따라 24년 근로분에 대한 연차휴가 25일은 발생하지 않음.
 - 다만, 회계연도로 연차휴가를 관리하는 기관, 시설의 경우 연차휴가의 퇴직 정산은 필요함.

8. 연차유급휴가

고용노동부 변경지침(21.12.16)

정년퇴직자 예시



8. 연차유급휴가

1년 11개월 근무 후 퇴사하는 직원의 연차휴가일수는?

출근율 산정방법(1) / 입사일 / 회계연도

- ✓ 출근율을 산정하는 기산일은 원칙적으로 개별 근로자의 입사일이나,
- ✓ 회사의 편의에 따라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출근율을 산정할 수는 있지만,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조치**하여 주어야 함.

예시)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출근율 산정기간으로 한 경우에는 1년이 되지 못한 연중 입사자에 대하여도 근무월수에 비례하여 연차휴가를 부여하여 주어야 한다.

- ✓ 회계연도 단위로 연차휴가를 주는 경우 근로기준법상 원칙인 입사일별로 1년씩 주는 경우와 비교해서 휴가일수가 불리해서는 안되므로 법정 방식에 의해 산출된 휴가일수에서 재직기간 동안 근로자에게 준 총 휴가일수를 뺀 나머지 일수의 휴가를 추가로 사용하게 하거나 수당으로 지급해야 함.(퇴직정산 필요)

8. 연차유급휴가

회계연도 단위 연차휴가 부여, 정산 방법 2023.7.1일 입사자 예시													
구분	1.1	2.1	3.1	4.1	5.1	6.1	23.7.1	8.1	9.1	10.1	11.1	12.1	총합계
2023년								1	1	1	1	1	5
구분	1.1	2.1	3.1	4.1	5.1	6.1	24.7.1	8.1	9.1	10.1	11.1	12.1	총합계
2024년	1	1	1	1	1	1							6
	7.5 (=15일 * 6개월 / 12개월)												7.5

퇴직정산 예시

Q : 2023년 7월 1일 입사자가 2024년 10월 31일 퇴사하는 경우의 연차휴가 발생일수는 ?

A : 입사년도 근무일수 6개월 + 퇴사년도 근무일수 10개월 = 1년 4개월

1년 1일의 근무조건을 충족하였기에 추가적으로 15일의 연차휴가 발생

다만, 이미 부여한 7.5일(입사년도 근무분 비례연차)을 차감하여 총 7.5일의 연차휴가에 대해서 추가정산하면 됨.

Q : 2023년 7월 1일 입사자가 2024년 5월 31일 퇴사하는 경우의 연차휴가 발생일수는 ?

A : 입사년도 근무일수 6개월 + 퇴사년도 근무일수 5개월 = 11개월, 월만근연차 10일만 발생함.

8. 연차유급휴가

신규 입사자의 연차휴가 관련 Q&A

Q1 : 2023년 7월 15일 입사자의 월만근연차는 어떻게 발생하는지?

A2 : 달력 기준이 아닌 근로자 본인의 입사일 기준으로 한달 만근여부를 계산해야 하는 바, 23년 7월 15일부터 ~ 23년 8월 14일까지 만근하고, 23년 8월 15일에 재직근로자 신분이 유지되고 있다면 23년 8월 15일에 1개의 월만근연차가 발생함.

결론적으로 월의 중간 입사자라 하더라도 익월에 1일의 월만근연차가 발생하는 것은 동일함.

Q2 : 비례연차 계산시 소수점 이하의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상해야 하는가?

A2 : 소수점 이하를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방식으로 버릴 수는 없음. 반올림 규정도 소수점 이하의 정당하게 발생한 휴가를 임의로 버리는 것이기에 허용되기 어려움.

반차나 시차단위에서 올림 처리하는 것이 필요함.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연차휴가일수의 상향조정으로 연차휴가일수가 소수점 이하 발생시 수당으로 지급하는 것도 가능하나 노사합의로 1일의 휴가를 부여하여야 할 것이다(회시번호 : 근기 01254-11575, 회시일자 : 1989-08-07)

【회 시】 89.3.29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른 연차휴가일수 상향조정은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른 업무지침 근기 01254-5561(89.4.17)에 의하여 지도하여 연차휴가일수가 소수점 이하로 발생할 경우 신·구법 계산분을 합산하여 잔여 소수점 이하에 대하여는 수당으로 계산 지급하는 것도 가능하나 가급적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노사합의로 1일의 휴가를 부여하여야 할 것임.

8. 연차유급휴가

신규 입사자의 연차휴가 관련 Q&A 2

Q3 : 회계연도 연차휴가가 보다 유리한 직원에 대해서 입사일자 기준 연차휴가 일수만큼만 차감하여 지급할 수 있는지?

A3 : 회계연도 단위로 연차휴가의 산정단위를 변경하여 매년 1월 1일에 연차휴가가 발생하였다면 이후 근로자의 퇴사일자와 무관하게 해당 연차휴가에 대한 보상이 필요함.
다만, 운영규정이나 취업규칙 등에 “퇴사시 입사일자 기준 연차휴가일수로 정산(가감)한다”는 내용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해 정산(감액)이 가능함.

회계연도 기준 연차유급휴가 부여방법 및 취업규칙 불이익 해당 여부(회시번호 : 임금근로시간정책팀-489, 회시일자 : 2008-02-28)

【회 시】 ○ 귀 질의는 “회계연도 기준 연차유급휴가 부여방법 및 취업규칙 불이익 해당여부”에 대하여 묻는 것으로 보임.

○ 근로기준법 제60조의 연차유급휴가의 부여 요건인 출근율의 산정기준일은 근로자의 개인별 입사일을 기준으로 정하는 것이 원칙이나, 사업장의 노무관리 편의 등을 위하여 취업규칙 등에 의하여 전 근로자에게 회계연도(1.1~12.31)를 기준으로 일률적으로 정할 수도 있음.

- 이 때 중도 입사자에 대하여는 입사한 지 1년이 되지 않는 기간에 대하여도 연차유급휴가를 일할 계산하여 부여하고, **퇴직연도에 있어서는 개별 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유급휴가일수와 취업규칙 등에 따라 부여한 연차유급휴가일수를 비교하여 부족할 경우에는 추가로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는 등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지 않도록 하여야 함.**

○ 귀 질의 1과 같이 취업규칙으로 연차유급휴가를 회계연도(1.1~12.31) 기준으로 하고 있는 사업장에서 2006.9.1부터 2007.12.31까지 근무한 근로자라면, 취업규칙에서 **퇴직시점에 입사일 기준으로 재산정한다는 별도의 단서가 없는 이상** 연차유급휴가는 2006.9.1부터 2006.12.31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5일을, 2007.1.1부터 2007. 12.31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15일을 각각 부여하여야 할 것으로 보임.

○ 귀 질의 2와 같이 연차유급휴가를 회계연도 기준에서 개별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으로 하거나 퇴사시점에 입사일 기준으로 재산정하도록 취업규칙을 변경하는 것은 회계연도 중에 입사한 일부 근로자에게는 연차유급휴가 일수가 줄어들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므로 **취업규칙의 변경시 불이익변경 절차를 거쳐야 할 것으로 사료됨.**

8. 연차유급휴가

출근율 산정방법 / 출산휴가 기간 등

소정근로일수에서 제외	출근으로 간주는 날	기타
<p><법정 또는 약정휴일></p> <p>① 주휴일</p> <p>② 근로자의 날</p> <p>③ 취업, 단협상 약정휴일</p> <p><근로제공 의무 정지되는 날></p> <p>① 사용자귀책사유휴업기간</p> <p>② 적법한 쟁의행위 기간</p> <p>③ <u>육아휴직기간(2018.5.29이전개시)(출근한 날에 비례부여)</u></p> <p>④ <u>업무외 질병 휴직(개인병가)</u></p>	<p>① <u>업무상 재해로 인한 휴업</u></p> <p>② <u>산전후 휴가기간</u></p> <p>③ <u>육아휴직기간(2018.5.29이후개시)</u></p> <p>④ 예비군 민방위 훈련기간</p> <p>⑤ 공민권행사 휴무일</p> <p>⑥ 연월차 유급휴가</p> <p>⑦ 생리휴가</p>	<p>① 대체된 휴일의 결근 - 결근처리</p> <p>② 정직기간 - 결근처리</p> <p>③ 지각, 조퇴외출 - 영향없음</p> <p>④ 휴일근무불이행 - 영향 없음</p>

1.1

4개월 ???

12.31

- | |
|--|
| (1) 출산휴가, 업무상재해 휴업기간, 신법에 의한 육아휴직 등 : 출근으로 간주, 100% 출근으로 15일 모두 발생 |
| (2) 구법에 의한 육아휴직 : 출근한 날에 비례해서 발생, $15\text{일} * 8\text{개월(출근일)} / 12\text{개월} = 10\text{개}$ 발생 |
| (3) 신법에 의한 개인병가 : 출근한 날에 비례해서 발생, $15\text{일} * 8\text{개월(출근일)} / 12\text{개월} = 10\text{개}$ 발생 (21.8.4 행정해석) |
| (4) 구법에 의한 개인병가 : 결근으로 간주, 출근율이 80%에 미달하는 경우 월만근연차만 발생(8개월 만근시 8개) |

8. 연차유급휴가

단시간 근로자의 연차휴가

관계법령

근로기준법

제18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①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은 그 사업장의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 비율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근로조건을 결정할 때에 기준이 되는 사항이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주휴일 및 관공서공휴일)와 제60조(연차유급휴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기간제및단시간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6조(단시간근로자의 초과근로 제한) ① 사용자는 단시간근로자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2조의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이 경우 1주간에 1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없다.

② 단시간근로자는 사용자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초과근로를 하게 하는 경우에는 이를 거부할 수 있다.

③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초과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8. 연차유급휴가

단시간 근로자의 연차휴가 2

사례

Q : 편의점 야간 청년 아르바이트 : 일 8시간(22:00~익일06:00) 근무시 연차유급휴가 지급 관련

A : 휴게시간 1시간을 제외한다 하더라도 일 7시간 근무, 주 5일 근무시 주 35시간 근무자에 해당하여 연차유급휴가의 부여 대상에 해당함.(주15시간 이상 근무는 연차유급휴가 부여대상)

- ① 1년간 80% 이상 출근시 15일이 정상적으로 발생하며, 다만, 일 평균근로시간이 7시간이기에 일 휴가부여시 7시간으로 부여하면 됨.
- ② 1년 미만 근무자의 경우 월 소정근로일 만근시 1일의 월만근연차가 발생하고 1일 7시간 기준으로 부여하면 됨.

단시간 근로자의 연차휴가일수 산정방법

주단위 근무시간	일평균근로시간	발생휴가일수	환산 휴가시간	비고
40	8	15	120	일평균근로시간 =주단위근로시간/5
20	4	15	60	
24	4.8	15	72	

※ 발생휴가는 사용한 시간만큼 차감

8. 연차유급휴가

단시간 근로자(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자)의 연차휴가 3

사례

Q : 24년 3월부터 하루 2시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 들어가는 근로자의 연차휴가 산정방법?

A : 연차유급휴가는 전년도 근무실적에 의해 발생하기에 23년에 정상적으로 일 8시간, 주 40시간 근무했다면 24년에 발생하는 연차휴가에는 영향 없음.

- 총 15일 * 8시간 = 120시간의 연차휴가 발생
- 다만, 24년 3월부터 일 6시간 근무로 변경되기에 이후 사용되는 휴가에 대해서는 사용한 시간만큼 차감해야 함.
- 예시) 하루 연차휴가 사용시 : 120시간 - 6시간 차감
- 다만, 25년에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24년 근무실적에 의해 산정되기에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산정해야 함.

※ 15일 * 2개월(1월~2월) / 12개월 * 8시간 + 15일 * 10개월(3월~12월) / 12개월 * 6시간 = 95시간의 연차휴가 발생

- 25년도에 사용 가능한 휴가시간은 95시간이며,
- 통상근로(일8시간)로 복귀한다고 가정하고 이를 휴가일수로 환산하면 95시간 / 8시간 = 약 12일의 휴가 발생

Check point

- 다만,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않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활용하는 경우에는 정상 풀타임 출근으로 간주해야 할 것임.
- 육아휴직으로 출근하지 않은 직원에 대해서도 출근으로 간주하여 연차휴가에 불이익을 주지 않기에 육아휴직을 단축근무로 전환한 근로자에게도 동일한 원칙이 적용되어야 할 것임.

8. 연차유급휴가

휴가사용 촉진제도

- ✓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연차유급휴가의 사용촉진조치를 실시하는 경우 사용자의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지급책임을 면해주는 제도임. 휴가의 적극적 사용을 유도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임.

휴가사용촉진조치 절차 : 회계연도 연차(15일 등)

- ㉠ 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회계년도 기준시 7월1일 ~ 10일)**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 ㉡ ㉠항의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회계년도 기준시 10월 31일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촉진제도 절차	실시 기간
미사용 연차휴가일수 통지 및 연차휴가사용시기 지정 촉구(휴가계획서 제출 촉구)	7월 1일~10일(1차 촉진)
근로자의 연차휴가사용시기 지정(휴가계획서 제출)	7월 11일~20일(근로자의 휴가계획서 제출)
(근로자가 미지정 시) 사용자의 연차휴가사용시기 지정	7월 21일~10월 31일(2차 촉진)

8. 연차유급휴가

휴가사용촉진조치 절차 : 11개의 월만근연차

1. 월만근연차의 사용기간이 입사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로 변경됨.(2020. 3. 31 근로기준법 개정, 시행)
2.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다만, 사용자가 서면 촉구한 후 발생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을 기준으로 5일 이내에** 촉구하여야 한다.
3.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다만, 제1호 단서에 따라 촉구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0일 전까지**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촉진제도 절차	실시 기간	1.1 입사자 가정
발생한 9개 휴가의 1차 촉진	3개월 전~10일 이내	10월 1일~10일
근로자의 휴가계획서 제출	촉구 받은 때로부터 10일 이내	10월 11일~20일
사용자의 2차 촉진	종료 1개월 전까지	10월 21일~11월 30일
추가 발생한 2개 휴가의 1차 촉진	1개월 전~5일 이내	12월 1일~5일
근로자의 휴가계획서 제출	촉구 받은 때로부터 10일 이내	12월 6일~15일
사용자의 2차 촉진	종료 10일 전까지	12월 16일~21일

8. 연차유급휴가

휴가사용촉진 관련사례

- ① 이메일이나 게시판 등을 통한 사용촉진은 인정되지 않는다. 반드시 서면으로 촉구해야 한다.
- ② 연초나 여름휴가기간에 진행되는 연차휴가사용촉진제도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반드시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간내에 사용촉진을 해야 수당지급책임을 면할 수 있다.
- ③ 정년퇴직자에게도 휴가사용촉진조치가 가능하다.

노무수령 거부 의사

【회 시】 -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른 일련의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조치를 정상적으로 이행하였음에도 근로자가 해당 휴가일에 출근한 경우, 사용자는 노무수령 거부 의사를 명확히 표시해야 하며, 명확한 노무수령 거부 의사에도 불구하고 근로를 제공한 경우에는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사료됨.

- 연차휴가일에 해당 근로자의 책상위에 '노무수령 거부 의사 통지서'를 올려놓거나, 컴퓨터를 켜면 '노무수령 거부 의사 통지' 화면이 나타나도록 하여 해당 근로자가 사용자의 노무수령 거부 의사를 인지할 수 있는 정도라면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노무수령 거부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사료됨.
(근로기준과-351, 2010.03.22)

8. 연차유급휴가

기타사례

1. 근로자가 2010년 6월 15일 입사하여 2011년 9월 25일까지 **약 1년 3개월 근무한 경우**, 1년간 근로에 대한 연차유급휴가 이외 잔여 **3개월에 대한 연차유급휴가 부여의무**는 사업장의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다른 특별한 정함이 없는 이상 **발생하지 않음**. (2011.11.21, 근로개선정책과-4641)
2.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등에서 “**지각·조퇴 및 외출은 누계 8시간을 연가 1일로 계산한다**”라는 규정을 두는 것은 노사간 특약으로 볼 수 있으며, 해당자가 부여 받을 수 있는 **연가일수에서 공제하는 것이므로** 근로기준법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음. (2004.6.25, 대법 2002두2857)
3. **격일제 근로자에 대해서도** 사용자는 근로자의 청구가 있는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는 바, 격일제 근무의 경우 1일 근무를 전제로 그 다음날 1일의 휴무를 부여하는 것이므로 근무일과 바로 다음날(당초 비번일) 휴가를 사용한다면 연차휴가를 **2일 사용한 것으로 보아도 되고**, 근무일만 휴가를 사용하고 그 다음날(당초 비번일)에 근무를 하면 1일의 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임. (1999.2.5, 근기 68207-313)
4.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은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으로 지급하고 별도의 규정이 없으면 휴가청구권이 있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으로** 지급해야 한다.(근로개선정책과-4218, 2013.07.19.)

8. 기타 휴가

휴가의 유형

구분	법정 휴가	약정 휴가
휴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연차휴가 생리휴가(무급, 신청시 부여하되, 임금공제) 난임치료휴가(연 총3일, 1일만 유급) 배우자출산휴가(총 10일, 유급, 출산일로로부터 90일 이내 신청 필요) 출산전산후휴가(90일 중 60일에 한해 유급, 다태아출산 120일중 75일 유급, 무급기간은 고용보험급여 지급) 업무상 재해 휴직(요양에 필요한 기간, 산재보험급여 평균임금의 70% 지급) 육아휴직(1년, 무급, 단 고용보험급여 지급) 가족돌봄휴직(총 90일, 30일 이상 사용, 무급)/가족돌봄휴가(총10일, 일일단위 사용, 무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경조휴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휴가기간중의 휴일의 포함여부는 시설 결정사항 유무급, 부여여부도 시설결정사항이나, 통상 유급으로 운영하는 것이 일반적임. 병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노동법상 개인병가의 경우 무급으로 부여 병가 또는 휴직의 경우 3개월 이상 부여하여 근로자가 치료후 복귀할 수 있도록 배려 서울시 60일(연간) 유급병가제도 : 입원, 수술, 입원/수술과 관련된 통원치료에 한해 유급 자녀돌봄휴가 : 서울시 운영 제도, 총 2일, 자녀가 2명인 경우, 한부모, 장애인 자녀의 경우 3일, 유급
특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유급이 기본이나 일부 무급휴직, 휴가 존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휴가일수, 휴가부여조건, 임금지급 여부 모두 노사 자율 결정

8. 기타 휴가

육아휴직(20.2.28)

구 분	기 존	변 경
적용제외자	① 계속근로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② 배우자가 동일한 자녀에 대하여 육아휴직 중인 경우	① 계속근로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② (삭제)

육아휴직(21.11.19)

구분	내 용
육아휴직의 임신중 사용	<p>제19조(육아휴직) ① 사업주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위반시 500만원 이하 벌금)</p> <p>제19조의4(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사용형태) ① 근로자는 육아휴직을 2회에 한정하여 나누어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보호를 위하여 육아휴직을 사용한 횟수는 육아휴직을 나누어 사용한 횟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p>

8. 기타 휴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19.10.1)

구분	기 존	변 경
단축시간	일 2~5시간(주 10~25시간)	일 1~5시간(주 5~25시간)
정부지원	통상임금의 80%(월 상한 150만원) x 근로시간 단축비율	· (일 1시간 단축분) 통상임금의 100%(월 상한 200만원) x 근로시간 단축비율 · (나머지 단축분) 80%(월 상한 150만원)
사용기간	육아휴직 + 근로시간 단축 = 최대 1년	육아휴직 1년 + 근로시간 단축 1년 = 2년 * 근로시간 단축은 1년 이상 가능
분할사용	육아휴직과 근로시간 단축을 합하여 1회 허용	· (육아휴직) 2회 분할사용 허용 · (근로시간 단축) 최소 3개월 단위로 자유롭게 가능 (분할사용 횟수제한 없음)